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채 지 윤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

지도교수 서 정 은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채 지 윤

채지윤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_____ 이 민 정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박 지 현 _____ (인)

위 원 _____ 서 정 은 _____ (인)

초 록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함의 및 진로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내용은 음악전공학습경험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차이, 수행성취가 음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에 미치는 영향,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영향, 환경적 맥락이 음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교 중 6개교의 기악, 성악, 작곡, 전공의 2, 3, 4학년 재학생이며, 총 326부의 설문자료를 SPSS 25.0 for Window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음악전공학습경험에 따라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학습경험 중 수행성취는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는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과기대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적 장벽은 자신감 및 진로결정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정서지지는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자의 정서지지는 자신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교수자의 지도기술과 정서지지는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종합적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학습경험 중 콩쿠르 수상경력, 연주경험, 음악활동에 따라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에 차이가 있다. 둘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수행성취가 인지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것을 근거로 수행성취가 학습적·직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의 수행에서 교수자의 지지

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신감의 영향력이 가장 낮고, 진로결과기대와 진로결정의 관계에서는 내재적 결과기대와 외재적 결과기대의 영향력 차이가 크다. 이러한 변인의 관계는 수행성취와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자신감과 외재적 결과기대를 위한 학습에서의 지지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환경적 맥락의 종합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외적장벽은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교수자의 정서지지, 부모정서지지는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모정서지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고 외적장벽의 영향력은 그보다 낮다. 그러므로 음악전공자의 외적장벽을 완화시키기 위한 주요 요인으로써 부모진로지지, 교수자지지가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음악교육, 음악전공 대학생, 진로결정,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사회인지진로이론,

학 번 : 2015-21681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6
3. 용어의 정의 ····· 7
4. 연구모형 및 가설 ····· 14
5. 연구의 제한점 ····· 16

Ⅱ. 이론적 배경 ····· 17
1. 사회인지진로이론 ····· 17
2.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관련 요인 ····· 33

Ⅲ. 연구방법 ····· 55
1. 연구대상 ····· 55
2. 연구절차 ····· 62
3. 측정도구 ····· 63
4. 분석방법 ····· 79

Ⅳ. 연구결과 ····· 80
1. 빈도분석 ····· 80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 81
3. 변인들 간의 관계에 따른 가설검증 및 결과 ····· 85

Ⅴ. 논의 ····· 114
1. [연구문제 1]에 대한 논의 ····· 114
2. [연구문제 2]에 대한 논의 ····· 119
3. [연구문제 3]에 대한 논의 ····· 121
4. [연구문제 4]에 대한 논의 ····· 126

Ⅵ. 결론 ····· 132
1. 결론 및 시사점 ····· 132
2. 제언 ····· 135

참고문헌 ····· 136
부록 Ⅰ ····· 147
부록 Ⅱ ····· 156
부록 Ⅲ ····· 166
Abstract ····· 167

표 목 차

<표 Ⅱ-1> 음악분야 대학 졸업자의 취업·진학 현황 ····· 45
<표 Ⅱ-2> 음악대학 졸업자의 5개년 취업률 ····· 46
<표 Ⅱ-3> 대학졸업자 및 예체능계 졸업자의 진학률 ····· 47
<표 Ⅱ-4> 음악대학 졸업자의 전공별 진학률 ····· 47
<표 Ⅲ-1>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 중 음악전공이 있는 17개교 ····· 56
<표 Ⅲ-2> 세부전공 비율에 따른 표본추출 과정 ····· 58
<표 Ⅲ-3> 표본의 일반적 특성 ····· 61
<표 Ⅲ-4> 연구절차 및 세부내용 ····· 62
<표 Ⅲ-5> 설문지(측정도구) 구성 ····· 64
<표 Ⅲ-6> 진로결정 척도의 요인분석 ····· 66
<표 Ⅲ-7> 진로결정 척도의 신뢰도 ····· 67
<표 Ⅲ-8> 수행성취 척도의 요인분석 ····· 68
<표 Ⅲ-9> 수행성취 척도의 신뢰도 ····· 69
<표 Ⅲ-10> 음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요인분석 ····· 71
<표 Ⅲ-11> 음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 71
<표 Ⅲ-12> 진로결과기대 척도의 요인분석 ····· 73
<표 Ⅲ-13> 진로결과기대 척도의 신뢰도 ····· 73
<표 Ⅲ-14> 외적 장벽 척도의 요인분석 ····· 75
<표 Ⅲ-15> 외적 장벽 척도의 신뢰도 ····· 75
<표 Ⅲ-16> 부모진로지지 척도의 요인분석 ····· 76
<표 Ⅲ-17> 부모진로지지 척도의 신뢰도 ····· 76
<표 Ⅲ-18> 교사지지 척도의 요인분석 ····· 78
<표 Ⅲ-19> 교사지지 척도의 신뢰도 ····· 78
<표 Ⅳ-1> 다중응답문항의 빈도분석 ····· 80

<표 Ⅳ-2> 측정 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 82
<표 Ⅳ-3>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 84
<표 Ⅳ-4> [가설 1-1]의 차이분석 결과① ····· 86
<표 Ⅳ-5> [가설 1-1]의 차이분석 결과② ····· 87
<표 Ⅳ-6> [가설 1-1]의 차이분석 결과③ ····· 88
<표 Ⅳ-7> [가설 1-1]의 차이분석 결과④ ····· 89
<표 Ⅳ-8> [가설 1-2]의 차이분석 결과① ····· 90
<표 Ⅳ-9> [가설 1-2]의 차이분석 결과② ····· 91
<표 Ⅳ-10> [가설 1-2]의 차이분석 결과③ ····· 92
<표 Ⅳ-11> [가설 1-2]의 차이분석 결과④ ····· 93
<표 Ⅳ-12> [가설 2-1] 수행성취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94
<표 Ⅳ-13> [가설 2-2] 수행성취가 진로결과기대에 미치는 영향 ····· 96
<표 Ⅳ-14> [가설 3-1]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 98
<표 Ⅳ-15> [가설 3-2] 진로결과기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 99
<표 Ⅳ-16> [가설 3-3] 진로결과기대의 매개적 영향 ··· 100
<표 Ⅳ-17> [가설 4-1] 외적장벽이 과제수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 103
<표 Ⅳ-18> [가설 4-1] 외적장벽이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103
<표 Ⅳ-19> [가설 4-1] 외적장벽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 104
<표 Ⅳ-20> [가설 4-2] 부모진로지지가 과제수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 105

<표 Ⅳ-21> [가설 4-2] 부모진로지지가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106
<표 Ⅳ-22> [가설 4-2] 부모진로지지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 107
<표 Ⅳ-23> [가설 4-3] 교사지지가 과제수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 108
<표 Ⅳ-24> [가설 4-3] 교사지지가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109
<표 Ⅳ-25> [가설 4-2] 교사지지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 110
<표 Ⅳ-26> [가설 5-1] 외적 장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 111
<표 Ⅳ-27> [가설 5-2]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 112
<표 Ⅳ-28> [가설 5-3] 교사지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 113

그 림 목 차

[그림 Ⅰ-1] 본 연구의 연구모형 ····· 14
[그림 Ⅱ-1] 사회인지진로이론-기본모델 ····· 26
[그림 Ⅱ-2] 사회인지진로이론-진로자기관리모델 ····· 28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인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직업을 통해 사회와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다.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에 공헌을 하게 되고 개인적 측면에서 자아실현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대학은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합당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적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 으로써 발전해왔고(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88), 매년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여[1]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해왔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적 성취를 위해서는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방향, 진로목표에 대한 확신수준이 높아야하는데 이는 진로결정과 관련이 있다. 진로결정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하여 대안을 산출한 다음, 그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의 진로에 관한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선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심리적 과정" (Harren, 1979; 김춘경 외, 2016)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진로결정은 진로발달과정 중 성인 초기의 단계인 대학생 시기에 보다 결정화, 구체화 및 실행된다(Ginzberg, 1984; Supper, 1990). 그러므로 대학생 시기에 전공을 선택하고 관련된 학습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목표를 구체화시키고 결정하여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에 진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진학시기 혹은 이후에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악전공자들은 그 이전인 중·고등학생 혹은 초등학생 시기에 이미 전공을 선택하고 관련된 교육을 일정기간 받은 후 대학에 진학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악전공생들은 진로의 방향을 결정한 상황에서 대학에서의 전공학업을 연장한다고 할 수 있다.

1) 2019년 국내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 비율은 70.4%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따라서 진로 목표에 대한 확신 또한 높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목표는 음악연주활동과 관련된 것들로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완규, 권수미, 2008; 주희선, 2013). 반면, 진로확신수준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성 및 결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슬, 2016; 차혜윤, 2016; 남수진, 2017).

원하는 진로 목표가 있지만 그에 대한 결정성 및 결정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다소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선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예견한다. 진로대안을 선택 및 결정하고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심리적인 확신이 있어야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데 목표에 대한 확신수준이 낮다면 그에 대한 수행의 유지나 성취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로선택에 대한 목표와 결정성의 대비되는 양상은 진로결정과정에서 어떠한 문제 상황으로 인해 원하는 진로목표에 대한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정보를 충분히 탐색하고 관련 대안을 검토하지 못했거나, 진로목표의 실행에 앞서 선택이 충분히 구체화 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로의 선택 및 결정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생각했을 때, 음대생의 진로결정과정은 개인의 내적 요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고, 음악과 관련된 직업대안의 확장 및 진로탐색에 대한 학생들의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현가능한 진로대안을 선택해야 하며, 진로발달과업에서 자신의 진로결정과정을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방안이 지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목표가 실현가능한 진로선택으로 구체화되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진로결정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촉진될 수 있는지 연구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교육적 지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의 긍정적 강화 또는 완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을 통해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계 전반적으로 직업적 자아실현과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2] 음악분야에서도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들과 같이 전공생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들이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중 진로결정과 관련된 연구는 진로성숙도 중 결정성을 다룬 연구, 진로결정수준을 다룬 연구, 진로선택을 세분화하여 다룬 연구가 있다.

먼저, 음악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성숙도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음대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와 의사결정능력 중 하위요인인 결정성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이슬, 2016; 차혜윤, 2016). 따라서 이러한 결정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서 결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진로결정의 수준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이승민(2014)은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탐색경험유무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남수진(2017)은 음악대학 작곡전공생들의 진로계획 유무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추상희(2020)는 관현악 전공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의 평균이 학년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일반적 특성이나 진로변인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및 영향을 확인한 것에서 진로결정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가진다. 하지만 진로결정과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연구된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진로결정과 관계되는 사회인지요인에 대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악대학의 세부전공과 전공별 구성인원이 다른 것을 생각했을 때,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선정된 표본을 대표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며, 자료수집과정에서 그 기준이 적용된 표본추출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음대생들의 진로목표를 세분화하여 비교한 연구에서는 음악활동과 관련된 진로에 종사할 것이라는 음대생들의 희망진로와 실제선택 진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환호, 2016). 이러한 결과는

2) 진로교육법은 2015년 6월 22일 제정되었으며 초중등학교, 대학의 진로교육을 포함한다.(법률 제13336호)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에서 희망 진로목표가 졸업 후 실제 진로대안의 선택과 차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진로결정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가진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전공선택요인, 진로선택, 진로장벽요인을 각각 분석하였으므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변인을 확장하여 변인 간의 관계 및 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진로장벽과 관련하여서도 외적 장벽의 직접적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분석 방법, 조사변인을 확장하여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련되는 다양한 영향요인 및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진로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진로이론은 "사람들이 왜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데(김봉환 외, 2018 :41)", 진로선택과 관련된 어떠한 요인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특성-요인이론, 욕구이론, 성격이론, 사회학적 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중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진로발달 및 선택과정을 설명하는데 용이하다.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은 렌트(R. W. Lent), 브라운(S. D. Brown), 해킷(G. Hackett)이 진로 선택과 수행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을 통합하여 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이며 학습요인, 인지요인, 흥미, 목표선택, 목표행동 및 수행 등의 변인이 하나의 진로발달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다(Lent et al., 1994). 이러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반두라(Bandura, 1986)의 사회인지이론을 바탕으로 정립되었다. 사회인지이론은 과업의 수행에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내적 요인, 행동, 외부 환경의 관계를 상호의존적인 인과구조 안에서 설명한다. 이에 따라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도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진로와 관련된 과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변인들을 추가하여 요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였고, 이후 경험적 연구의 축적을 통해 진로에서 흥미, 선택, 행동의 발달과정을 설명하는 모델들을 체계화하여 이론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회인지이론 및 사회인지진로이론이 음악 분야에 적용된 연구로는 '음악학습과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다룬 연구들과 음악전공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먼저, 음악학습 분야에서는 음악적 자기효능감 또는 연주 자기효능감이 연습수준 및 음악적 성취와 높은 상관이 있고 사회적 지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Mcpherson & McCormick, 1999; 2003; 박지현, 2009; 김보람, 2014; 안소영, 2016). 또한 박세진(2019)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진로에 큰 설명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다른 하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전공 관련 요인, 진로준비행동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다(주희선, 2013; 박명숙, 2017; 백고은, 이지예, 2017; 양은주, 2017).

이상의 연구들은 사회인지이론 및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주요 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습요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지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학습과 진로라는 각각의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음대생의 학습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어떠한 사회인지 요인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고, 각 변인간의 단편적인 관계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주요 변인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결정은 개인의 환경, 교육적 기회, 다양한 활동경험에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선택하고 수행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거친다. 그러므로 음대생들의 진로결정 또한 특정 요인에 의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랜 전공학습경험과 그에 따른 수행성취가 스스로 지각하는 음악적 능력이나 직업적 결과 및 보상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지,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환경적 맥락이 인지요인과 다시 상호작용하여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은 보다 다각적으로 다루어져야하며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제시하는 통합적인 이론의 틀 안에서 진로결정 및 관련 변인들을 살펴봄

으로써 보다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을 기반으로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전공학습경험,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환경적 맥락요인의 영향을 알아보고, 실제적인 교육적 시사점 및 진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음악전공학습경험(교육기간, 콩쿠르 수상경력, 연주경험, 음악활동)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음악전공학습경험 중 수행성취는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는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환경적 맥락은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진로결정

진로상담분야에서 진로결정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하여 여러 대안을 산출한 다음, 그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의 진로에 관한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선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심리적 과정(Harren, 1979; 김춘경 외, 2016)” 으로 정의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의 진로결정은 목표에 대한 선택과 행동의 발달 과정을 다루는 ‘목표 시스템(goal system)’ 으로 설명되며, 사회인지이론 및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의 목표는 “특정한 활동에 열중하거나 어떤 미래의 결과를 이루겠다는 것에 대한 결심” 으로 정의된다(Bandura, 1986; Lent & Brown, 2006). 따라서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의 진로목표(career goal)는 미래 진로목표를 이루겠다는 결심과 그에 따른 진로 준비행동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진로선택과 의사결정이론에서 두루 사용되어온 필수 요소로써, 진로계획, 의사결정, 진로포부, 진로선택 등을 포함한다(Lent et al., 1994)” . 이러한 진로에 대한 목표(goal)는 진로 선택 및 선택행동 모형과 관련하여 진로목표의 선택(choice goal), 진로 행동의 선택(choice action), 수행 및 성취의 과정(attaintment)으로 나누어지며 이것이 다시 피드백이 되어 미래 진로 행동을 형성해 나가는 인지적 · 행동적 개념으로 설명된다.

그러므로 진로결정은 발달적 관점에서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변경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확신의 정도에 따라 확신의 정도가 높으면 ‘진로결정’ , 낮으면 ‘진로미결정’ 의 상태로 볼 수 있으며 그 스펙트럼이 넓다. 이러한 진로발달에서 진로결정은 미결정자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개념의 측정에 있어서도 진로미결정을 기본 가정으로 확신요인과 미결정원인에 대한 다양한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그 측정 방식에 있어서도 미결정에 대한 하위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결정’ , 높으면 ‘미결정’ 의

상태로 본다(Osipow et al., 1976; Holland & Holland, 1977; Jones & Chenery, 1980; Gati et al., 1996).

음악전공자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자신의 진로방향을 결정한다는 전공 특성을 가지므로 진로 미결정자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본 연구의 초점은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선택한 음악관련 진로 및 직업선택의 결정에 대한 확신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개념을 '음악전공과 관련된 진로 및 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 및 행동과 그에 대한 확신수준' 으로 정의한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오시포(Osipow), 카니(Carney), 버락(Barack)의 CDS(Osipow et al, 1976)나 탁진국과 이기학(2003)의 K-CII와 같은 측정도구를 통해 진로미결정 원인에 대한 이유를 측정하여 점수가 높으면 미결정, 점수가 낮으면 결정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진로확신수준 및 행동에 대한 측정도구(박아청, 2003; 정민, 노안영, 2006; 김유경, 2012)를 음악전공 대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된 진로결정의 개념을 바탕으로 측정한다.

나. 음악전공학습경험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의 학습경험은 반두라의 학습경험 정의를 바탕으로 설명된다. 반두라(Bandura, 1986)는 사회인지이론에서 학습경험을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주는 정보의 원천들(sources)”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의 유형에는 개인의 수행성취, 사회적 설득, 모델링, 생리적·정서적 상태가 있다(Bandura, 1986; Lent et al., 1994).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이러한 학습경험의 측정을 위해 과목별 성적이나 교육기간과 같이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사용하거나(Ferry et al., 2000), 과거나 현재의 학습경험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같은 수행성에 대한 성취를 묻는 척도를 사용하여 학습경험의 개념을 측정하여 왔다(Lent & Brown, 2006). 그러므로 학습경험이 인지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수행성취가 주요 음악전공학습경험 중 하나일 것이다.

한편, 음악전공은 음악이라는 특수한 학습적 맥락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전공분야에서와는 달리 음악학습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특정 교육경험들이 존재한다. 음악학습영역에서 음악활동과 관련된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전공교육기간을 비롯하여 콩쿠르 수상경력, 연주회 횟수, 음악학습의 경험 등을 학습경험의 요인으로 측정하였다(박지현, 2009; 장근주, 심소연, 2013; 김보람, 2014). 그러므로 전공학습경험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인지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의 분석을 통해 진로와 관련된 학습 지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수행성취 외에도 교육기간, 콩쿠르 수상경력, 연주경험, 음악활동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학자들의 정의 및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음악전공학습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음악전공학습경험은 ‘음악전공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주는 이전의 전공실기와 관련된 학습경험’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학습경험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공교육기간, 콩쿠르 수

상경력 횟수, 연주경험 횟수, 전공학습과 관련된 교내·외의 음악활동경험 횟수, 음악대학의 전공실기교과목에서의 인지된 수행성취로 구성된다. 또한 이러한 학습경험 중 수행성취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실기와 관련된 교과학습의 수행을 통해 인지하는 음악적 성취경험' 으로 정의되며, 선행연구를 근거로 인지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 음악적 자기효능감

반두라(Bandura, 1986)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주어진 과제의 수행이나 과정에서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으로 정의하였으며, 개인의 실제 능력보다 그 능력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수행결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도 자기효능감은 개인인지요인 중 핵심 개념이며 "특정영역의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목표 및 수행과정에서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으로 정의된다(Lent et al., 1994).

이러한 반두라의 자기효능감은 음악이라는 특정 영역에 적용되어 연구되었다. 맥퍼슨과 맥코믹(McPherson & McCormick, 2003)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음악적 활동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연습수준이나 음악적 성취 및 음악 영역에서의 지속적이고 질 높은 활동·성장에 관련된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음악전공학습에서 음악활동 수행 및 과정에서 지각하는 자신의 전공실기 능력에 대한 믿음' 으로 정의한다.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과제수준 선호도,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과제수준 선호도는 '음악학습자 스스로 과제수준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방법, 연습에 대한 선호도' 를 의미한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음악학습 및 활동과정에서 인지, 환경, 정서 등 여러 측면의 의도적 집중을 위해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감은 ‘실기능력 평가와 관련된 음악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표출된 정서적 반응’을 의미한다.

라. 진로결과기대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의 결과기대란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때의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으로 정의된다(Lent et al., 1994). 결과기대는 특정한 행동을 수행한 이후의 결과에 대한 기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돌아오느냐에 따라 내재적 결과기대와 외재적 결과기대로 나누어진다.

내재적 기대란 수행과정자체에서 오는 결과로 자신의 수행자체에 대한 자부심 등의 자기지향적결과를 의미하며, 외재적 기대란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받을 수 있는 물리적 보상 및 타인의 인정과 같은 외적 강화를 의미한다(Lent et al.,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자들의 정의를 기반으로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과기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과기대를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학습경험이 내적, 외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마. 환경적 맥락

환경적 요인의 개념은 적용된 이론과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진로이론에서는 파슨스의 특성-요인이론, 홀랜드 이론과 같이 개인과 환경이 상대적으로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특질을 지닌다고 하는 관점의 이론이 있는 반면,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인 측면을 조명하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이 있다(김봉환 외, 2018 : 67).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근접한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

인의 외적 영향을 알아보고자하며,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적용하여 음악전공자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영향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정의하는 환경적 맥락 요인의 개념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 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환경적 맥락은 개인이 인지하는 특정한 환경적 변수에 의한 기회, 자원, 장벽, 지지 등으로 개념화된다(Lent et al., 2000). 이러한 환경적 맥락은 근접 맥락과 배경 맥락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의 환경적 맥락은 근접 맥락을 의미한다.

근접 맥락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근접한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Lent et al., 2000) 사회적 장벽, 중요한 타인의 지지와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성격 요인을 의미한다(Lent & Brown, 2013). 사회인지진로이론 중 진로자기관리모델(Lent & Brown, 2013)에서는 이러한 근접 맥락 중 외적장벽 및 지지, 성격요인이 인지요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가정하였다. 하지만 성격요인은 이후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영향에 대한 경로가 수정·검증되고 있고(Lent et al., 2016; 전미리, 김봉환, 2018 :445),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맥락 중 외적요인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성격요인을 제외한 외적 장벽 및 지지를 다룬다.

본 연구에서의 환경적 맥락은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의 근접 맥락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근접하여 영향을 미치는 외적 장벽,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로 정의한다.

1) 외적장벽

외적장벽은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상황이 진로결정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희망하는 직업을 방해하는 외적 요인에 대한 믿음' 으로 정의한다.

2) 부모진로지지

부모진로지지는 개인의 진로에 대한 부모님의 정서적, 경제적 지지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부모님의 정서적, 경제적 지지에 대한 믿음' 으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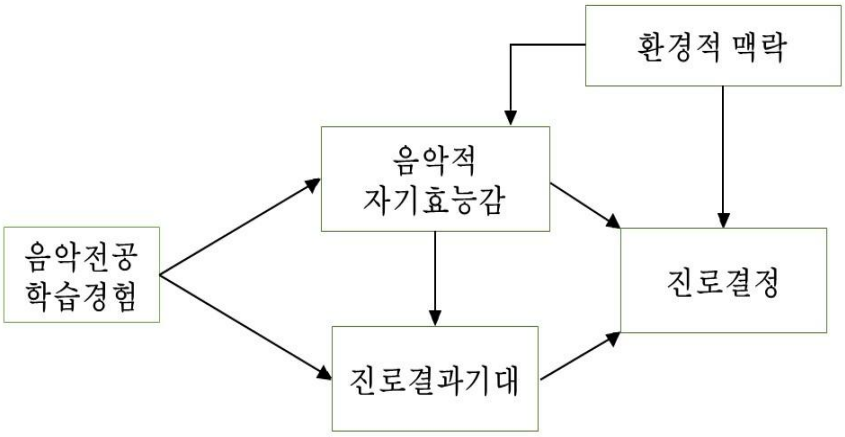
3) 교사지지

교사지지는 학생이 주로 지도를 받는 레슨지도 교사의 지도기술, 정보지지, 정서지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지도기술은 '교사의 교수능력에 대한 학생의 인식' 으로 정의하며, 정보지지는 '개인이 진로문제에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로 정의하며, 정서지지는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정서적지지' 로 정의한다.

4. 연구모형 및 가설

가.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을 기반으로 하며 음악전공학습경험,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환경적 맥락, 진로결정의 관계를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에 적용하였다[그림 Ⅰ-1].



[그림 Ⅰ-1] 본 연구의 연구모형
: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기반으로(Lent & Brown, 2013)

나. 연구가설

가설 1. 음악전공학습경험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음악전공학습경험(교육기간, 콩쿠르, 연주경험, 음악활동)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음악전공학습경험(교육기간, 콩쿠르, 연주경험, 음악활동)에 따른 진로결과기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음악전공학습경험 중 수행성취는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수행성취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수행성취는 진로결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 진로결과기대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진로결과기대는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진로결과기대는 매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환경적 맥락(외적 장벽, 부모진로지지, 교수자지지)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외적 장벽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부모지지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교사지지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환경적 맥락(외적 장벽,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1. 외적 장벽은 진로결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 부모지지는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3. 교사지지는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 중 관현악, 성악, 작곡, 피아노 전공의 2, 3, 4학년 학생으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제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것이다. 음대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여건과 기회를 고려하였을 때, 지역에 따른 음악공연, 음악교육, 음악수요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역을 하나로 한정하였다. 서울시에는 4년제 대학교 중 음악전공이 있는 총 17개교가 소재하여 진로결정 및 관련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다양한 응답자가 분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로 지역을 한정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음악전공은 각 지역별로 국립대학, 사립대학, 음악원, 전문대학 등 다양한 학제의 형태로 설립되어있으며 학제의 형태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및 전공교과목 구성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서울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 중 음악전공생으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셋째, 음악대학의 음악관련 학과 및 전공을 음악장르에 따라 나누면 국악, 서양클래식음악, 실용음악 관련 전공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클래식음악과 관련된 4년제 대학에서의 음악전공자를 연구 참여자로 먼저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관현악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피아노전공이 고르게 개설된 7개 대학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6개교의 재학생으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진로결정은 직업세계이행 직전인 4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였으나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1학년 학생을 제외한 2, 3, 4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연구대상의 표본선정에 서울에 소재한 4년제 6개 대학교의 관현악, 성악, 작곡, 피아노전공 2, 3, 4학년 학생으로 제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인지진로이론

본 연구는 음악전공이라는 특정영역에서의 진로결정과 영향요인을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알아보고자 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1절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구성하는 주요개념, 모델, 그에 따른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러한 이론적 틀을 2절에 적용하여 음악전공과 관련되는 진로결정과 영향요인들을 고찰한다.

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주요개념

사회인지진로이론은 반두라(Bandura, 1977; 1986)의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사회인지이론을 기반으로 발전된 진로발달이론이다. 사회인지이론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인간의 내적 요인과 행동이 외부 환경과 상보적 인과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즉,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생물학적 요인들과 행동, 그리고 환경적 사건들은 인지요인을 중심으로 상호 의존적인 결정인자로 작용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진로의 영역에 도입하여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발달에 중요한 토대가 된 연구는 베츠(Betz)와 해킷(Hackett)의 1981년 연구다.

이들은 여성과 남성의 직업에 대한 흥미 및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여성의 직업선택대안이 축소된다는 것을 밝혔다. 진로발달에서 단순히 개인의 내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만으로 진로가 결정된다기보다는 이 두 특성 사이에 존재하는 개인의 인지적 특성이 중요하며, 직업선택에서 자신의 실제 능력뿐만 아니라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목표(진로선택)가 잘 수행될 수 있다. 즉,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 및

과업의 수행에서 학생의 실제 능력보다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인 자기효능감이 수행 정도를 더욱 잘 예측하고 영향을 주는 것이다(Betz & Hackett, 1981).”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라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었고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s), 맥락적 요인(contexture influences)등 진로 선택과 수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이 기존의 전통적 진로이론에 통합됨으로써 하나의 이론체계인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으로 정립되었다(Lent et al., 1994; 2000; 2003; Lent, 2005).

기존의 진로이론들이 개인의 자아개념이나 흥미 등의 심리적·내적 요인들만을 강조하여 진로선택을 설명한 데 반해,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나 진로장벽 등의 맥락적 요인을 하나의 이론적 틀 안에서 통합하여 제시하므로, 보다 현실을 반영한 진로이론이라 할 수 있다(Lent & Brown, 2019).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연구하는 것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들의 사회적·인지적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며, 주요 요인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학습경험(Learning Experiences)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의 학습경험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의 경험으로, 정보의 원천(sources of efficacy information)을 의미한다. 반두라(Bandura, 1997)는 자기효능감이 네 가지 정보 원천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는데, 네 가지 원천에는 성공경험(수행성취), 대리적 경험, 사회적인 언어설득, 생리적·정서적 (각성)상태가 있다. 렌트 등(Lent et al ,1994)은 이러한 반두라의 사회인지이론을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정보원을 ‘학습경험’이라고 표현하며, 어떤 행동을 수행했을 때의 직접적 성취나 모델이 될 만한 다른 사람의 성취를 관찰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수행한 특정 행동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 등의 경험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습경험 요인이 자

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정도는 여러 변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접적인 성취경험이 자기효능감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Lent & Brown, 2006 :16).

직접적인 수행성취경험은 실제로 어떤 행위를 직접 수행하여 성취해 본 경험을 의미하며, 수행성취경험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실패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은 훼손된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보들이 개인에게 어떻게 인지적으로 처리되는가이다. 동일한 정보들이 투입되어도 인지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냐에 따라 결과적인 자기효능감의 산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습경험이 진로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또한 개인이 관련 경험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지각하는지에 달려있다.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연구에서 다루는 학습경험은 음악전공이라는 특정 영역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연구들에서 인지요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던 수행성취를 인지요인들의 선행변인으로 설정하여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와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대상이 음악전공 대학생이므로 음악전공이라는 특수한 학습적 맥락이 가지는 측면을 반영하고자 한다.

음악학습영역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육기간, 콩쿠르 수상경력, 연주경험, 음악활동 등의 음악학습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특정 교육 경험들에 대해 다루어왔다. 이러한 학습경험들은 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이나 연주몰입 등의 음악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수행성취뿐만 아니라 음악학습에서의 특정 경험에 따른 인지요인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공학습경험요인으로 수행성취, 교육기간, 콩쿠르, 연주경험, 음악활동을 설정하여 인지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음악전공학습경험과 관련하여 2절에서 보다 자세히 고찰한다.

2)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과제의 수행이나 행동의 과정에서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으로(Lent & Brown, 2006), 반두라(Bandura, 1986)는 개인의 실제 능력보다 그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 수행결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개인인지요인 중 핵심적인 개념으로 목표 및 수행과 관련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수행과 관련된 특정 행동이나 과업에 접근 또는 회피하는 행동 및 목표에서 수행에 장애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행동의 영향은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선택할 때의 결과기대, 흥미, 이후 진로목표의 결정 및 수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된다(Bandura, 1997).

또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배경 및 이전의 학습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데, 학습경험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의 성취 경험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음악실기시험을 잘 본다거나 실기의 수행에서 칭찬을 받는 등의 경험이 쌓이면 음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결국 음악관련 흥미 및 음악관련 진로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종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특정 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학습이라는 특정 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다루고자 하므로 2절에서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대해 보다 자세히 고찰한다.

3)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

결과기대란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때의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으로,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받을 수 있는 물리적 보상 및 타인의 인정과 같은 외적 강화와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등의 자기지향적결과인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자체에서 오는 내적 결과를 포함한다((Lent et al., 1994; 공윤정 외, 2017). 자기효능감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믿음이라면, 결과기대는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 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안정적인 고용이라면 이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외적 보상, 즉 외재적 결과기대를 중요하게 고려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공윤정 외, 2017), 음악가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행과정에서 오는 성취와 자부심이라면 내재적 결과기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진로결과기대가 특히 한국의 공과대학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이었으며(Kim & Seo, 2014), 공(Gong, 2002)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계의 학생들에게는 결과기대가 진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공윤정 외, 2017, 재인용). 즉,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한 많은 선택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영향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되며, 자기효능감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긍정적 결과기대 역시 더 커질 것으로 가정된다. 음악에서 진로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기대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과기대에 대해서는 음악대학 졸업자의 취업 및 진학률, 직업인식, 전공 선택동기를 중심으로 2절에서 보다 자세히 고찰한다.

4) 진로선택(Career Choice)

진로선택(결정)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에서 '목표(goal)' 에 해당하는 것으로, 목표는 특정한 활동(activity)에 열중하거나 어떤 미래의 결과를 이루겠다는 결심으로 정의된다(Bandura, 1986; Lent & Brown, 2006). 목표는 자기조절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외적인 강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의 목표는 진로선택과 의사결정이론에서 두루 사용되어온 필수 요소로써, 진로계획, 의사결정, 진로포부, 진로선택 등이 모두 목표(또는 목표 메커니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Lent et al., 1994).

렌트는 목표의 개념에서 직업을 단순히 희망하는 것과 실제 그 직업을 선택(및 행동)하는 것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목표는 특정분야 또는 역할에 종사할 것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의도와 관련되었을 때 선택, 계획, 결정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목표는 크게 목표선택과 목표수행의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지며, 목표의 두 가지 개념은 서로 연결되지만 각기 다른 모형으로 제시된다.(Lent & Brown, 2006).

먼저, 선택(내용)목표(choice-content goals)는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특정 활동영역의 유형을 언급하는 것으로 선택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목표는 선택행동 모델 안에서 목표선택(choice goal), 행동선택(choice action), 성취(attainment)의 세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즉,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개인의 의도와 관련 되는 것은 목표선택이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의 수행은 행동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그러한 행동에 대한 성취는 다시 과거의 학습경험이 경험의 원천으로써 인지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목표수행(performing goals)은 수행모델에서 제시되는 개념이다. 선택목표와 비교하여 보다 성과와 관련되며 특정 영역 안에서 개인이 수행에서 도달하기 원하는 수준(레벨) 또는 완성도(quality)에 대한 열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선택에 대한 개념은 진로자기관리모델(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에서 진로 탐색, 의사결정, 직업탐색행동에 적용이 될 수 있으며, 진로의사결정에 적용하게 되면 결정목표(decisional goal), 결정에 대한 행동(decisional actions), 결정/미결정/결정불안 에 대한 수준과 같은 결과의 과정으로 세분화된다(Lent & Brown, 2013). 따라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목표(또는 목표 메커니즘)는 진로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며, 각 모형에 따라 개인의 의도에서 행동 및 성취가 순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역동성을 띄게 된다.

진로발달연구에서의 진로결정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변경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이 넓고, 확신의 정도가 높으면 '진로결정', 낮으면 '진로미결정'의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진로결정과 관련된 국외연구에서는 미결정을 중심으로 진로결정수준과 미결정 원인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7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며,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여부, 진로미결정 원인 등에 대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Osipow et al., 1976; Jones, 1989; Gati et al., 1996).

국내연구에서도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고향자(1992)가 번안한 오시포 등(Osipow et al., 1976)의 CDS를 중심으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개인의 내적 특성 및 진로변인과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많았다(김봉환, 1997; 김봉환, 김계현, 1997; 홍혜경, 1998). 김봉환과 김계현(1997)의 연구는 진로결정자로 분류된 사람들이라도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행동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진로결정을 관련 변인에 따라 유형화 하였다. 이후, 이러한 관점에서 존스(Jones, 1989)의 CDP를 통해 진로결정을 유형화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존스(Jones, 1989)의 CDP는 진로결정에 결정성과 편안성이라는 두 축을 제시함으로써 진로결정의 세부 유형 분류를 가능하게 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CDP를 이용하여 진로미결정자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자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결정자의 하위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장선철, 2004; 백지숙, 2006; 고홍월 2007; 김경은, 2011).

본 연구에서의 진로결정은 진로계획 및 행동에 대한 확신수준을 살펴보는 것이다. 음악전공자들의 경우, 진로가 이미 선택되었으므로 진로결정 상태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 대부분에서 음대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음악전공자의 진로결정 및 진로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2절에서 보다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5) 환경적 맥락(Contextual Influences)

환경적 요인은 적용된 이론과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진로이론에서는 파슨스의 특성-요인이론, 홀랜드 이론과 같이 개인과 환경이 상대적으로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특질을 지닌다는 관점의 이론이 있는 반면,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인 측면을 조명하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이 있다(김봉환 외, 2018 : 67).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진로선택 및 행동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개인에 따른 맥락 요인으로 제시한다. 맥락 요인은 환경의 지속적인 특질보다는 가변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선택 및 행동이 이루어지는 근접한 시점에서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벽의 개념이 개인의 내적·외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과는 달리(손은령, 2002),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의 환경적 요인은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맥락적인 진로장벽 또는 진로지지를 의미한다(Lent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과 근접한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환경맥락 중 직업과 관련되는 장벽요인이나 지지요인과 같은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초점에 따라 렌트 등(Lent et al., 1994; 2000)이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제시하는 근접 맥락 요인의 적용을 위한 고찰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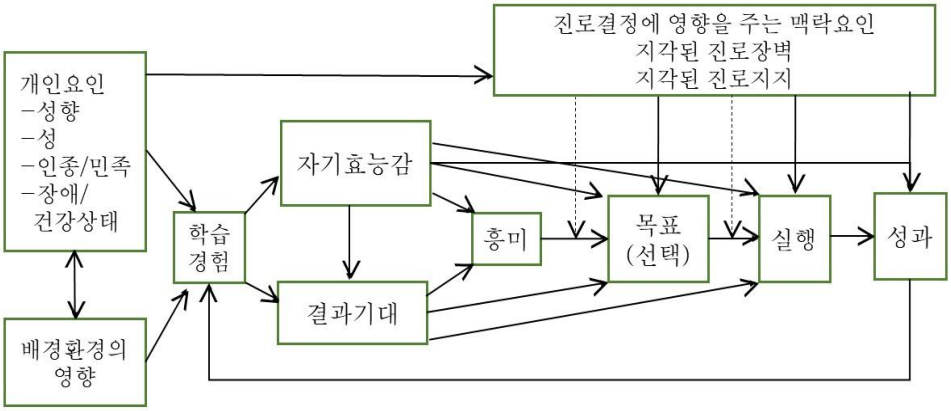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맥락요인은

영향을 미치는 시기와 개념에 따라 근접 맥락 요인과(contextual influences Proximal to Choice Behavior) 배경 맥락 요인(Background Contextual Affordances)으로 구별된다(Lent et al., 1994). 근접 맥락은 진로선택의 시점과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재정적 지지 및 자원, 장벽을 의미하는데, 개인에게 밀접한 환경(가족, 친구,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환경자체의 객관성과 이에 대한 지각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배경 맥락 요인은 좀 더 거시적인 경제조건, 인종과 성,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의 질을 포함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가족, 사회, 문화 속에서 사회적 기능을 익히고 내면화하는 학습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및 목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관련하여 음악학습에 관여하는 환경적 지지요인과 음대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다루었다. 먼저, 음악학습의 경우, 부모님, 선생님, 가정의 음악환경이 음악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다루어졌다. 반면 진로장벽의 경우, 음대생들이 지각하는 내적인 심리불안과 경제적·외적 장벽을 모두 다루었는데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장벽 개념은 전통적인 진로장벽 연구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전미리, 김봉환, 2015 :4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희망직업에 대한 외적 장벽을 음대생의 진로에 미치는 주요 환경요인으로 선정한다.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제시한 근접 맥락의 개념을 기반으로 음악학습에서 중요한 지지요인인 부모님과 교사의 지지를 선정하여 음대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환경적 맥락을 알아보고자 한다. 음대생의 사회적지지 및 외적 장벽에 대해서는 음악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2절에서 보다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나.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델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흥미모형, 선택모형, 수행모형, 만족모형 및 자기관리모형의 5가지 모델이 제시되었다(Lent et al., 1994; 2000; Lent & Brown, 2008; 2013). 흥미모형, 선택모형, 수행모형은 진로발달의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제시된 초기의 모형으로, 진로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개인적 목표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점으로 하나의 모형 안에서 상호 연결된다(Lent et al., 1994)[그림 Ⅱ-1].



[그림 Ⅱ-1] 사회인지진로이론-기본모델(출처:Lent et al.,1994)

실선(—): 직접적 영향 , 점선(---) : 조절효과

먼저, 흥미모형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지각할 수 있고 가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 흥미를 발달시킨다.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흥미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어떤 분야에 흥미가 생기면,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그 특정한 활동을 하려고 계속 노력한다. 결국,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흥미발달을 통해 목표가 생기면 개인이 특정 행동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수정하게 된다(Lent et al., 1994).

다음으로, 선택모형은 흥미모형과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오지만 활동목표와 선택변인이 구체적인 학업적·직업적 선택목표의 실행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Lent et al., 1994). 진로선택 또는 학문적 선택의 과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특정분야에 진입하기 위해 최초의 목표 혹은 진로를 선택한다. 다음으로 개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게 된다. 예를 들면, 현악전공자가 오케스트라 수습단원으로 활동하거나 콩쿠르에 참가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 된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달성하여 성공하거나 목표했던 수준이하의 실패를 하는 것과 같은 수행경험을 통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이것은 직업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진로선택의 선행요인으로써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는 진로대안이나 선택의 내용과 연관된다. 예를 들어, 음대에 들어간 학생이 음악가라는 직업의 근무조건과 보상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험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변화를 야기하고, 이후 흥미나 목표(예: 새로운 전공이나 진로선택)역시 변화될 수 있다. 즉, 진로선택모형에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흥미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어떤(what) 진로대안을 선택할 것인지의 목표에 영향을 주게 된다(Lent et al., 1994; 황매향,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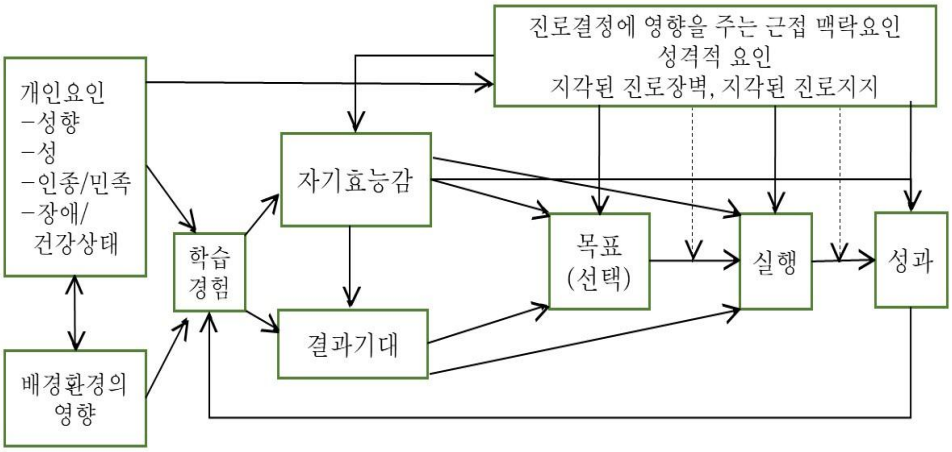
진로선택목표 또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되는 또 다른 요인에는 근접 맥락 요인이 있으며, 주변에서 받는 지지와 장애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진로대안의 선택을 둘러싼 가족이나 중요한 타인의 경제적·심리적 지지 및 갈등, 진로선택 당시 특정 진로대안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 유용성, 차별과 같은 사회구조적 장벽은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수행모형은 개인이 그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얼마나 지속할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의 수행을 해낼 것인지 예측하는지를 제안한다. 수행모형에서 개인의 학업적, 직업적 성과는 능력,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설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선택모형과 흥미모형에서는 개인이 일하고 싶어 하는 영역이나 구체적인 직업

과 같은 진로선택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수행모형에서는 개인이 이미 선택한 영역에서 추구하는 수행의 수준을 예측한다.

정리해보면, 세 가지 과정모델은 개념적으로 구별되지만 하나의 모델에 포함되며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기본모델로써 개인의 학문적·직업적 흥미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흥미모형, 교육적·직업적 선택과정을 설명하는 선택모형, 그리고 학업과 직업영역에서의 성과를 설명하는 수행모형으로 구분된다(Lent et al., 1994; 양난미, 2006).

이후의 연구에서 렌트(Lent)와 브라운(Brown)은 기본모델을 바탕으로 이론적 개념을 확장시켜 진로만족모델(Lent & Brown, 2008), 진로자기관리모델(Lent & Brown, 2013)을 제시하여 개인의 진로문제와 그에 따른 상담의 필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모델이 학습경험,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등의 변인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룬 것이라면, 새로운 모델들은 각 과정이 이루어질 때 작용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성격요인 등의 새로운 변인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Lent & Brown, 2013; 2019)[그림 Ⅱ-2].



[그림 Ⅱ-2] 사회인지진로이론-진로자기관리모델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출처:Lent & Brown, 2013, p.562)
실선(—): 직접적 영향 , 점선(---) : 조절효과

진로자기관리모델(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은 진로 탐색, 의사결정, 직업탐색행동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진로의사결정에 적용하게 되면 결정목표(decisional goal), 결정에 대한 행동(decisional actions), 결정에 대한 결과(outcomes, 예: 결정/미결정/결정불안에 대한 수준)의 과정으로 세분화된다(Lent & Brown, 2013). 따라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델들은 진로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기본모델에서 환경적 맥락과 인지요인의 관계에서 직접적 영향력이 추가된 진로자기관리모델을 기반으로 진로결정에서의 학습경험, 인지요인, 환경적 맥락[3] 중 외적장벽 및 지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사회인지진로이론은 해킷과 벳츠(Hackett & Betz, 1981)의 1981년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해킷과 벳츠는 자기효능감을 진로연구에 적용시켜 사회적으로 학습된 남녀 간의 직업인식에 따른 흥미의 발달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발견하였는데,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Hackett & Betz, 1981; 황매향, 2018). 이후, 렌트 등(Lent et al, 1994)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학습경험,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가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각 변인을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델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각 변인 간의 관계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왔는데, 국외·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맥락 중 외적 장벽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므로, 렌트와 브라운의 진로자기관리모델(그림 Ⅱ-2)에서 제시된 근접 맥락 요인 중 성격요인은 다루지 않는다.

페리(Ferry), 포드(Fouad), 스미스(Smith)의 2000년 연구에서는 두 개의 대학에서 총 791명의 심리학 수강생에게 렌트 등(Lent et al., 1994)의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인지진로모델을 실험하였다(Ferry et al., 2000). 그 결과, 학습경험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목표와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으며, 가족지지가 학습경험, 결과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트(Lent), 브라운(Brown), 해킷(Hackett)의 2000년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에서 맥락적인 지지요인과 장벽요인에 대해 다루었는데, 환경적 요인을 배경 맥락과 근접 맥락으로 나누어 각 요인의 영향력을 예측하였다(Lent et al., 2000). 이후 2003년의 연구에서 렌트(Lent), 브라운(Brown), 슈미트(Schmidt), 브레너(Brenner), 라이언스(Lyons), 트라이스맨(Treistman)은 공학(engineering)전공자들의 선택행동에서 맥락적 지지와 장벽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맥락 요인은 자기효능감을 통해 목표, 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를 58% 설명한다고 하였다(Lent et al., 2003).

사회인지진로이론이 공학계열의 학생들에게 주로 모형검증이 이루어진 한편, 포드(Fouad), 스미스(Smith), 짜오(Zao)의 2002년 연구에서는 진로선택모델을 여러 학문분야로 확장하여 예술, 사회과학, 이공계, 영문학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계열에 따른 특이성이 있지만 모형에 대한 관계성은 계열과 상관없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Fouad et al., 2002). 이와 관련하여 렌트와 브라운(Lent & Brown, 2006)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인간이 기능하는 특정 영역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어야 하므로 그에 맞는 영역별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진로발달에서 사회인지적 연구의 유용성을 위한 개념, 변형, 측정디자인을 위한 샘플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진로결정과정에서 웰빙(well-be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진로만족모형(Lent & Brown, 2008)과 개인이 생애 전체를 통틀어 진로에 대한 관리주체가 된다는 관점을 적용한

진로자기관리이론(Lent & Brown, 2013)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진로자기관리모델은 기존의 선택모델에서 환경적 맥락 요인의 인지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선이 추가되었으며, 본 연구를 기반 하는 이론적 틀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국내에서도 진로결정과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성식과 정철영(2007)은 여대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지역, 학교, 성별 특성, 전공계열, 학년에 따라 유층화 군집표집 및 비율표집으로 표본추출을 하고,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을 검증 하였다. 그 결과,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예와 조남근(2011)은 사회인지진로이론적 관점에서 대학생의 진로만족모형을 검증하였는데, 전국에 있는 6개교,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생을 임의표집을 통해 총 4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삶의 만족에 대한 진로만족의 영향력이 확인되었고,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지향행동, 진로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환경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특정 영역에 대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과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졌다.

김유경(2012)은 사회복지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 학습경험이 학생들의 사회복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경험은 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효능감에서는 직접적 성취경험이, 결과기대에서는 긍정적 피드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명화(2015)는 공과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학 효능감, 결과기대, 흥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과기대는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진로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리와 김봉환(2015)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자기관리모델을 기반으로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성격 5요인과 인지적·행동적 변인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행동적 변인의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외적 장벽을 낮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고, 진로결정 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력이 있는 유일한 인지적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규진, 양규진, 정주리(2019) 또한, 진로자기관리모델을 기반으로 진로결정의 과정을 중심으로 각 변인의 위계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점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불안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 및 진로결정수준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진로결과기대와 진로결정수준과 정(+)적 상관이 있고, 진로결과기대는 진로결정수준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과기대 및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사회인지진로이론과 각 모델들 및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특정 영역에서의 적용을 위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에서의 개념적 고찰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Lent & Brown, 2006).

2.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관련 요인

앞서 살펴본 사회인지진로이론에 이어서 2절에서는 이 이론을 음악전공이라는 특정 영역에 적용시키기 위해, 모델에서 제시하는 변인을 중심으로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전공학습경험,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환경적 맥락에 대한 개념적 고찰을 한다.

가. 진로결정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는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에 대한 연구, 진로결정수준에 관련된 연구, 진로선택에 관련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진로(태도)성숙도를 조사한 연구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다. 이슬(2016)은 음대생의 진로태도성숙을 조사한 결과, 하위요인 중 준비성(M=3.76)이 가장 높으나 결정성(M=2.89)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므로 전공자들의 진로미결정 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차혜윤(2016)은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전공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독립성(M=3.90)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결정성(M=3.3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지연(2018)의 연구에서도 음대생의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자기이해(M=4.56)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목적성(M=2.34), 관여성(M=2.45), 호기심 및 진로확정(M=2.70)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

4) 홍지연(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성숙도의 관여성, 목적성의 개념은 해당 척도를 구성하는 선행연구를 통해 정의될 수 있다(임언 외, 2001; 양명희 외 2010; 김설아, 2012). 관여성은 “자신이 진로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관여하는가를 나타내는 것(김설아, 2012)”으로 정의된다. 목적성은 현재 커리어넷에서 제공하는 진로성숙도검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직업을 선택할 때 경제적 문제와 현실을 얼마나 고려하는가”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관여성, 목적성은 본 연구의 진로결정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진로결정을 보기 위해 설계된 연구들은 아니다. 하지만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들 연구를 통해 진로결정과 관련된 시사점을 살펴보면, 음대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결정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진로결정과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진로결정수준과 관련하여 이승민(2014)은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탐색경험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개발역량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오시포 등(Osipow et al.,1976[5])이 개발하고 고향자(1992)가 번안한 CDS를 사용하여 음대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공과 진로탐색경험유무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진로확신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탐색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진로 확신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그 차이가 1.21배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승민의 연구는 각 하위요인에 대한 차이분석을 통해 진로탐색경험 유무에 따라 진로확신수준에 차이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힘으로써, 진로와 관련된 경험이 그 결정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다룬 주요변인은 진로탐색유무, 진로개발역량에 한정되므로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언 또한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므로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남수진(2017)은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결정수준의 각 요인들을 탁진국과 이기학(2001; 2003)이 개발한 한국진로미결정척도(KCII[6])를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진로계획 유무에 따라 진로계

---

5) 이승민의 연구에는 이 척도의 개발년도를 1980이라고 하였으나 척도의 원개발년도가 1976이므로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6) 남수진의 연구에는 탁진국과 이기학(2001)의 CDS척도라고 소개하였으나 CDS는 오시포(Osipow et al.,1976)가 개발한 척도이며 탁진국과 이기학(2001; 2003)은 한국진로미결정척도(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이에 부록 설문문항 확인 후 KCII로 연구자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획이 있는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계획이 없는 학생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위요인 중 자기명확성은 높으나 결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음악전공자의 진로에서 결정성을 주요 변인으로 다룰 것을 제언하였다. 개인의 진로결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작곡전공 학생들로 한정되었다. 음악대학에는 클래식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세부 전공들이 있으므로 연구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분석방법이나 조사변인 또한 확장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상희(2020)는 관현악 전공생들의 전공선택요인,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의 각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진로결정수준의 학년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승민(2014)과 남수진(2017)의 연구와는 달리 학년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고등학생에서 대학교 1, 2, 3, 4학년 및 졸업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진로결정수준의 평균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고등학생 집단의 진로결정수준은 대학교 2, 3, 4학년 및 졸업생 집단과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아지는 양상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진로결정수준이 전공선택요인, 진로준비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로결정의 양상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위해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학습경험, 사회인지요인 등의 관계를 다룰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검증된 가설에 입각한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과 변인의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과 진로선택 및 진로장벽이 연구되었다(정환호, 2016). 정환호(2016)의 연구에서는 최진호와 정완규(2009)가 개발한 희망진로, 선택 진로를 묻는 두 문항의 설문을 통해 진로선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희망진로에

서는 73.7%의 학생들이 음악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제 진로에서는 약 40%의 학생이 음악활동과 관련이 없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의 범주에 따른 진로장벽인식의 평균은 기타(창업 등, M=2.87), 취업(일반기업, M=2.77)을 원하는 학생들이 전문연주자(M=2.55), 해외유학(M=2.44)을 원하는 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장벽의 평균을 살펴보면 미래불안(M=3.13), 정보부족(M=2.96), 경제문제(M=2.78), 결정장애(M=2.62), 관계문제(M=2.33), 흥미부족(M=2.21), 타인갈등(M=2.13)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선택이 희망진로와 실제진로로 이분화 되며 미래불안, 정보부족, 경제문제 등의 장벽요인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희망진로에서 약 74% 이상의 학생들이 음악활동을 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음대생들의 진로결정과 직업선택 문제에서 이들이 원하는 희망진로를 구체화 및 실행시키기 위한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되는 학습경험, 인지요인, 외적장벽 및 사회적 지지요인의 관계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음악전공자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전공자들의 진로결정성 또는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최초에 설정한 희망진로와 대학졸업 이후 실제 선택하게 될 실제 진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진로결정에 대한 갈등요인으로 미래 불안이라는 심리적 요인과 정보부족, 경제문제 등의 외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인의 직업여건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전문 연주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의 협소함, 직업적 성취를 이루는 것의 어려움,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대한 한정적인 기회 등이 지적되어 왔다(한주연, 2012). 그러므로 음악가라는 진로선택이 직업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적 요인과 더불어 진로결정과 근접한 시점에서 맞닿아 있는 환경적 맥락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선택에서는 희망진로와 실제 진로선택의 양상에 차이가 있었는데, 실제 진로선택에서도 59.8%가 음악활동을 지속할 것이라 응답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음악전공자들이 대부분 자신의 내적 요인의 영향으로 전공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희망진로를 '음악가'로 선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직업선택의 문제는 잘못된 결정이나 미결정의 문제보다는 선택에 대한 확신 및 행동유지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들의 진로결정 및 결정수준이 낮게 측정되었으므로 결정에 대한 갈등이 있음을 유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접근에 있어 '미결정자'가 겪는 진로장벽 및 어려움의 문제로 생각하기 보다는 진로결정의 관점에서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 및 관련된 행동·수행이 유지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며, 관련되는 전공학습경험, 인지적 요인, 사회적 요인(환경적 맥락)의 분석을 통해 교육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나. 음악전공학습경험

국내에서 이루어진 음악학습경험에 대한 선행연구의 주제들은 공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학습,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학습, 조기음악교육, 영재음악교육이 주를 이룬다. 음악전공교육이 대학입학 이전부터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전공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논의된 부분이 많지 않으며, 음악전공교육과 영재음악교육의 개념적 구분 또한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악전공학습경험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음악학습 연구는 중등음악교육기관인 예술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음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의 출신학교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 중·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높다.[7] 그러므로 음악대학입학 이전의 일반고 출신학생의 음악전공교육경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음악전공학습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또 다른 하나의 연구주제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학습과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다룬 선행연구, 음악전공 대학생의 학습경험과 자기효능감을 다룬 연구, 전문음악교과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음악전공교육의 특성 및 학습경험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음악교육에서 '음악학습경험' 에 대한 연구는 음악활동 영역과 악기연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정진원, 2007; 박지현, 2009). 정진원(2007)은 음악학습이 학습자와 교사 그리고 교육의 재료로써 음악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습결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세 요소는 상호간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였다. 박지현(2009)은 음악적 경험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한 성취경험이라고 하였으며, 음악수업 시간 혹은 교내-외의 특별 활동을 통해 이루어

7) 정환호(2016)는 서울과 경기 및 지방에 소재한 S,D,K,C,M,K, 6개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전공자 총 394명을 대상으로 전공 선택요인, 진로선택, 진로장벽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출신학교 분포를 살펴보면 예술고 출신이 전체 응답자 394명 중 39.6%이고 기타 2.1%, 일반고 출신이 58.3%로 나타나 일반고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음악적 경험은 학교 및 가정의 음악환경과 부모의 음악적 지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김보람(2014)은 다양한 음악활동 중 초등생의 콩쿠르 참가경험과 수상경력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참가경험과 수상경험이 많고 수상순위가 높을수록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음악학습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음악적 경험은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음악적 활동경험 및 수행성취, 교사의 기대(언어적 설득), 부모의 음악적지지, 환경적 변인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전공자와 관련된 음악학습경험의 선행연구에는 음악교육시기와 관련하여 조기음악교육학습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 음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 대학입학 전후의 음악학습 차이를 다룬 연구가 있다. 전윤미(2007)는 음악교육시기가 음악전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서울소재 음악전공자를 대상으로 전공자들이 음악을 처음 배운 시기를 조사한 결과, 연구 참여자 중 77.1%의 음악전공생들이 11세 이전에 음악을 처음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세 이전 10.2%, 5-7세 41.5%, 8-10세 25.4%, 11세 이후 22.3%로 조사되었다. 또한 음악전공교육의 시기와 관련하여 그 시작이 어렸을 때 이루어질수록 부모님의 음악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받고, 그 시기가 늦을수록 자신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전공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전윤미, 2007).

음악전공에는 많은 세부전공이 있으므로 음악전공교육의 시작 시기는 악기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꽤 많은 음악전공자들이 조기음악교육경험을 통해 전공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공교육이 시작되는 시기는 음악전공자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요인이나 맥락과도 연결되는 주요한 특성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음대생들은 실기능력평가를 통해 대학에 진학한다. 이러한 음악대학의 입시체제를 생각했을 때, 음악전공학습경험은 적어도 대학 이전의 청소년기와 조기음악교육학습의 영향을 포함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음악에서 전공교육의 시작 시기 또는 전공교

육기간은 주요한 학습요인 및 특성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공경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에 따른 결과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장근주와 심소연(2013)은 전공경력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연주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교육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다른 연구들에서도 교육기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소영, 2016; Zelenak, 2019). 한편, 이주연(2016)은 음악교육경험의 기간과 질(quality)에 따른 음악효능감의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모든 하위요인에 주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여 앞선 두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교육기간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음악전공자의 전공학습경험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2015개정 교육과정 전문음악교과(제2015-74호[별책 22])와 서울시 소재 음악대학의 전공교과표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2015개정 전문음악교과 체계분류에 따르면 일반교과를 제외한 전문교과 영역에서의 음악교과는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전공실기, 합창, 합주, 공연실기로 이루어진다. 음악대학의 전공교과목체계도 전문음악교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서울소재 음악대학의 교과과정은 전문음악교과과정의 전공교과목을 기초 또는 공통과목으로 하고, 학교에 따라 전공심화, 음악 인접 실용과목 등으로 구성된다(부록II 참조). 그러므로 음악전공 대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학습경험 중 수행성취는 전문실기교과의 학습 및 수행을 통해 형성될 것이라 판단된다.

대학생 시기가 자신의 직업을 구체화시키고, 계획하고, 직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대학생의 전공교육은 진로변인과 영향관계에 있는 학습경험 요인의 분석을 통한 강화가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한정수(2017)는 작곡전공자가 음악대학입학 전·후로 경험하는 학습의 차이가 진로에 어떠한 인식 및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의 학습경험 차이를 확인하였다. 대학 입학 이전에 작곡전공자들의 음악학습은 조성음악을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대

학 입학 이후의 학습에서 진로에 영향을 주는 음악장르는 20세기 음악으로, 사회에서 실제 사용되는 다양한 음악의 학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에서의 학습은 그 방식과 내용에서 보다 진로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학습경험 역시 예고에서의 전문음악교과와는 다른 차별화된 교육방식 및 다양한 음악장르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음악전공학습은 음악교육 시작시기에 영향을 받으며, 전문음악실기교과 안에서 전공학습의 수행이 이루어진다. 또한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학습은 보다 진로와 구체적으로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학습경험을 근거로 연구의 수행을 위한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학습경험요인을 교육기간, 콩쿠르 수상경력, 연주경험, 음악활동, 수행성취로 구성한다.

다. 음악적 자기효능감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음악이라는 특정 영역에 대한 것으로 '음악학습 및 활동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음악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의 신념' 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음악교육에서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졌다.

박지현(2009)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음악활동 및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으로 정의하였고,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취경험, 음악적 경험, 교사의 기대, 부모의 역할,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장근주와 심소연(2013)은 음악전공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전공경력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연주자신감이 높아지므로 대학에서의 교육, 수련기간 동안 전문 연주자가 되기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박세진, 김일섭, 가종민(2019)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음악활동 및 과제 수행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반두라(1977)의 자기효능감 정의와 박지현(2009)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정의를 토대로 총 16문항을 추출하였으며, 음대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다(박세진 외, 2019).

음대생의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다룬 선행연구에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직업 및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주희선(2013)은 음대생의 희망직업과 진로자기효능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비음악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자기효능감이 연주자 및 음악 관련직을 희망하는 학생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전공에서는 피아노전공자와 성악전공자들의 하위요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숙(2017)은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또한 각 요인들이 진로준비를 위한 주요 요인이라 하였다. 백고은과 이지예(2017)도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한 주요 요인이며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에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음악학습에서의 성취경험, 교사·부모·환경적 요인, 콩쿠르경험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음악 전공에 대한 선택 동기와 만족도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진로준비행동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음악전공 영역의 진로결정과정에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음악학습 및 진로와 관련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로결과기대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결과기대는 '개인의 궁극적 선택목표가 달성된 이후 개인이 받기를 고대하는 결과'로 정의된다(Lent & Brown, 2006).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생각해봤을 때,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과기대는 '음악가라는 직업적 목표를 달성한 이후 얻게 될 내적·외적 결과의 보상에 대한 기대'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전공자의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에서는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 혹은 진로결과기대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진로결정 이후의 진로 및 직업의 상황과 여건에 대한 경험적 증명자료나 연구 또한 드물다. 일반적으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지도교수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직업정보 및 졸업생 현황에 대해 전해 듣지만(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2003), 이러한 자료는 객관적이라 할 수 없고 개인이 처한 환경적 맥락에 의존하므로 제한적이고 가변적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과기대를 고찰함에 있어 4년제 대학 음악전공 졸업자의 취업률과 진학률에 대한 통계자료를 통해 대학졸업 이후의 직업·진로상황 및 결과기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또한 음악전공 대학생의 직업인식 및 전공선택 동기를 조사한 유사선행연구, 음악가의 직업기대에 대한 국외 연구의 고찰을 통해 음대생의 진로결과기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매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8 취업통계연보와 지난 5개년의 취업통계연보에서 음악분야 졸업자의 취업률 자료를 살펴보았다. 201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의 자료는 2018년 12월 31을 조사 기준일로 2019년에 조사되었으며, 조사 내용은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제외 인정자, 기타, 미상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취업자, 진학자, 기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8 취업통계연보에서 4년제 대학의 음악분야 졸업자는 총 5,8341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음악학 1,509명[8], 국악 432명, 기악 1,723명, 성악 547명, 작곡 358명, 기타음악[9] 1,265명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음악분야의 전체 취업률을 살펴보면 51.2%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기타음악의 취업률이 57.3%로 가장 높고, 국악 55.6%, 음악학 51.2%, 성악 49.2%, 기악 47.7%, 작곡 45.5%로 나타났다. 취업자 중 교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제외하면 프리랜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취업자 외 기타로 분류되는 2,257명이 전체 졸업자의 반 정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1>.

또한 음악분야 안에서도 기악과, 성악과, 작곡과로 분류되는 학과의 취업률은 국악과나 기타음악과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매년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18년도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년도와 대비하여 음악분야 전체의 취업률이 소폭 상승하긴 하였으나 그 중 기악, 작곡, 성악은 40% 정도의 낮은 취업률을 보인다.

전문음악인들의 직업고용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면, 건강보험가입자를 중심으로 산출되는 이러한 통계자료는 음악인들의 취업률과 취업상황을 정확히 담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음악전공자들의 졸업 이후의 직업적 상황과 기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통계 자료는 진로에 대한 결과기대를 유추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전체 취업률 및 예술분야 취업률과의 비교, 세부전공 간의 비교, 일정기간 동안 축척된 자료의 비교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8)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18년 학과(전공)분류 자료집(SM2018-5)에서 음악학은 음악학과의 교육체계 안에서 기악, 성악, 작곡을 포함한다.

9)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과(전공)분류 자료집에 의하면, 기타음악에는 종교음악, 실용음악 등의 세부 전공이 포함된다.

<표 Ⅱ-1> 음악분야 대학 졸업자의 취업·진학 현황(2018 취업통계연보)

구분	졸업자	졸업상황								
		취업자							진학자 (진학률)	기타
		취업자 합계 (취업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해외 취업자	개인 창작 활동 종사자	1인 창업자	프리랜서		
			교외 취업자	교내 취업자						
음악	5,8341	2,480(51.3%)	1,052	162		227	200	839	779(13%)	2,257
음악학	1,509	661(51.2%)	259	42	-	83	56	221	187(11.1%)	608
국악	432	193(55.6%)	101	6	-	21	11	54	76 (18.5%)	150
기악	1,723	674(47.7%)	247	43	-	64	48	272	284(16.9%)	700
성악	547	227(49.2%)	107	28	-	25	17	50	74 (12.4%)	216
작곡	358	131(45.5%)	69	12	-	10	6	34	63(14.9%)	151
기타 음악	1,265	594(57.3%)	269	31	-	24	62	208	95(7.8%)	432

한편, 음악대학 졸업자들의 지난 5년간 취업률을 살펴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음악분야 전체의 취업률은 43.4%였으나, 이후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8년에는 50%를 조금 넘은 51.3%의 취업률을 보인다. 하지만 졸업자 전체의 취업률과 예술영역 전체의 취업률과 비교하면 매년 10%~20% 이상의 차이가 난다<표 Ⅱ-2>.

<표 Ⅱ-2> 음악대학 졸업자의 5개년 취업률(2014년~2018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168,510 (64.5%)	182,462 (64.4%)	191,404 (64.3%)	187,485 (62.6%)	184,950 (64.2%)
예술 전체	18,078 (59.6%)	19,578 (62%)	20,195 (62.5%)	19,799 (61.3%)	19,666 (62.2%)
음악 전체	2,192 (43.4%)	2,307 (44.6%)	2,458 (48.3%)	2,460 (49.2%)	2,480 (51.3%)
음악학	598(40%)	672(44.7%)	698(47.5%)	709(49%)	661(51.2%)
국악	188(57%)	189(51.2%)	201(54.9%)	181(56.2%)	193(55.6%)
기악	654(41.4%)	615(39.3%)	673(44.6%)	607(44.2%)	674(47.7%)
성악	219(42.3%)	216(42.2%)	219(46.8%)	246(48.6%)	227(49.2%)
작곡	143(46.1%)	162(46.3%)	190(55.4%)	173(50.6%)	131(45.5%)
기타 음악	390(47.5%)	453(51.9%)	477(51.7%)	544(53.5%)	594(57.3%)

진학률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난 4년간의 대학 졸업자 전체의 진학률과 예체능계 전체의 진학률을 살펴보면 2015년 7.9%(예체능: 6.8%), 2016년 7.3%(예체능: 6.6%), 2017년 6.8%(예체능: 6%), 2018년 6.7%(예체능: 5.8%)로 대학졸업자 전체의 진학률과 예체능계 전체 진학률의 평균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년도가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표 Ⅱ-3>.

<표 Ⅱ-3> 대학졸업자 및 예체능계 졸업자의 진학률(2015년~2018년)

구분(계열)	2015	2016	2017	2018
전체	7.9 %	7.3 %	6.8 %	6.7 %
인문	8.2 %	7.7 %	7.7 %	7.8 %
사회	2.8 %	2.7 %	2.5 %	2.5 %
교육	4.6 %	4 %	3.8 %	3.5 %
공학	11.5 %	10.3 %	9.5 %	9.1 %
자연	17.9 %	16.8 %	15.7 %	15.7 %
의약	3.1 %	2.7 %	2.3 %	2.2 %
예체능	6.8 %	6.6 %	6 %	5.8 %

하지만 음악전공자의 지난 4년간의 진학률을 살펴보면, 음악전체가 2015년 13.9%, 2016년 13.3%, 2017년 13%, 2018년 13.1%로 전체 졸업자 및 예체능계 졸업자의 2배 이상의 진학률을 보인다<표 Ⅱ-4>.

<표 Ⅱ-4> 음악대학 졸업자의 전공별 진학률(2015년~2018년)

구분(전공)	2015	2016	2017	2018
음악 전체	13.9 %	13.3 %	13 %	13.1 %
음악학	13.7 %	13 %	11.1 %	12.3 %
국악	17.5 %	17.2 %	18.5 %	17.8 %
기악	16 %	15.2 %	16.9 %	15.8 %
성악	15.6 %	15.1 %	12.4 %	13.2 %
작곡	15.1 %	14.6 %	14.9 %	17 %
기타음악	7.3 %	7.5 %	7.8 %	7.7 %

(※음악전체 외, 15.5%이상의 진학률 및 전공만 별도로 표시하였음)

세부전공별로 살펴보면, 음악학은 2015년 13.7%, 2016년 13%, 2017년 11.1%, 2018년 12.3%로 음악 전체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국악은 2015년 17.5%, 2016년 17.2%, 2017년 18.5%, 2018년 17.8%로 음악 전체에서 매년 가장 높은 진학률을 보인다. 기악은 2015년 16%, 2016년 15.2%, 2017년 16.9%, 2018년 15.8%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국악 다음으로 높은 진학률을 보인다. 성악은 2015년 15.6%, 2016년 15.1%, 2017년 12.4%, 2018년 13.2%로 음악 전체보다는 높지만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작곡은 2015년 15.1%, 2016년 14.6%, 2017년 14.9%, 2018년 17%로 음악 전체보다 높은 수준이며, 최근 조사된 2018년에는 국악 다음으로 높은 진학률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타음악은 2015년 7.3%, 2016년 7.5%, 2017년 7.8%, 2018년 7.7%로 음악 전체에서 매년 가장 낮으며, 7%대의 진학률을 보여 대학 전체 졸업자와 비슷한 진학률 양상을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과기대를 고찰함에 있어 이들의 취업률·진학률에 대한 통계가 대학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담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대학 졸업자들의 고학력·고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직업세계이행에서 겪는 어려움은 비단 음악전공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전문음악인의 진로가 내포하는 불확실성, 고용불안정성, 기회의 제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이 있으며 음대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업정보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진로장벽으로 지각하는 것과도 연결된다(이슬, 2016; 정환호, 2016; 장명진, 2019). 또한 앞서 살펴본 높은 진학률에서는 음악전공자들이 대학생 시기를 진로의 선택 및 구체화의 시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학원을 위한 과도기로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이가원, 2006). 이러한 음악 직종에 대한 낙관적이지 못한 직업상황 및 기대와는 대조적으로 음대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다소 특이점을 가진다.

정환호(2016)는 음악전공자의 전공선택요인, 진로선택 및 진로장벽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공선택 요인 중 가장 높게 측정된 요인은 음악에 대한 흥미이고, 가장 낮게 측정된 요인은 현실적으로 고려되는 수입보장, 취업진로의 보장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상희(2018; 2020)의 연구결과를 통해 지지된다. 홍지연(2018) 또한, 음악대학생들의 전공별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전공선택 동기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내부적·경험적 요인 및 재능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환경적·외부적·사회적 요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만족도에서도 인식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으며, 진로의 방향성 및 안정성의 평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음대생의 전공선택에서 내재적 동기요인의 영향이 높은 반면, 진로의 결과기대와 관련이 있는 외재적 동기는 크게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로에 대한 외재적 결과기대는 국외의 연구결과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셰비히와 비요글루(Çevik & Bayoglu, 2018)는 터키 서부(West side of Turkey)의 음악원에 재학 중인 피아노 전공 학부생의 직업적 기대를 연구하였는데, 7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네 가지의 핵심질문을 통해 반구조화 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피아노전공을 선택(선호)한 이유인데 응답자들은 피아니스트라는 직업적 목표, 내적흥미, 부모님의 지지 등으로 대답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전공교육을 1년 받은 이후 전공에 대한 기대를 묻는 것이었다. 응답자 유형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는데 만족하고 도움이 되었다는 그룹, 처음에는 더 동기부여가 되었지만 기대에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그룹, 교과과정 및 교수자에 대한 불만족 그룹으로 나뉘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은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한 설명과 이유였다. 그 결과, 1)학문적 경력 추구, 2)피아노 반주자로서의 연주경험, 3)학위수여, 4)피아노아티스트(piano artist)가 되기 위해서, 5)피아노 교사 및 레슨의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선택의 이유로는 1)자질을 갖추기 위한 학문적 경력의 추구, 2)학위

수여를 통한 성취, 3)피아노 아티스트가 되었을 때의 유명세와 기회, 4)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서의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다.

보구노비치(Bogunović), 두블예비치(Dubljević), 부든(Buden)은, 그들의 2012년 연구에서 음악가로서의 기대와 음악교육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이들은 음악교육을 받는 연령대별로 연속적인 5개의 하위그룹 487명을 대상으로 연구목표에 대한 심리적, 교육적, 직업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대의 다양성과 범위가 커져 전문적 교육과 평생학습을 추구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성취도에 대한 기대와 자기평가가 현저히 감소하며, 젊은 음악가들은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성과가 미달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에는 낮은 수준의 자기평가와 같은 개인의 특성도 있겠지만, 재능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및 사회기관의 민감성 또한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초기의 음악가로서의 시기는 전문적인 직업을 위한 핵심 기간이고, '음악적 정체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내재적 동기와 관련되는 매우 주요한 요인임을 주장하였다(Bogunović et al., 2012).

이러한 국외에서 연구된 음대생의 전공선택 및 교육과정에 따른 직업결과기대는 국내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들의 전공선택요인은 국내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음악에 대한 열정이나 주변 환경의 지지와 같은 영향이 컸다. 하지만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졌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결과가 처음 학업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여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그러한 원인에 대한 교육적 지지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진로결과기대는 전공 및 직업선택요인과 연결되며, 특히 국내연구에서 조사된 전공선택 및 동기요인은 '내재적· 외재적 요인'으로 이분화 된다. 이는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의 결과기대가 자기지향적 결과인 '내재적 결과기대'와 사회적 인정 및 보수조건을 의미하는 '외재적 결과기대'로 나누어지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 있다. 즉, 이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요인이나 동기는 자신의 흥미, 재능, 주변상황(부모님, 교사의 권유)의 영향

에 의한 것이고 전공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비교적 이르기 때문에 전공이 직업으로 연결되었을 때의 외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악전공자들의 진로결과기대는 내재적 결과기대 요인이 높지만 외재적 결과기대 요인이 낮게 측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진로결과기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전공선택 요인과 비슷한 양상으로 각 요인 간의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과기대는 직업의 기회조건과 같은 외적 장벽의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일 것이라 예상되며, 자신의 흥미나 음악에 대한 사랑 등의 자기 지향적 결과를 의미하는 내재적 결과기대는 꽤 긍정적일 것이라 예측된다.

마. 환경적 맥락

음악전공자와 관련된 환경적 맥락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서 배경 맥락과 근접 맥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배경 맥락에는 인종, 성별, 가정의 음악적 환경 등이 포함되고, 근접 맥락에는 진로결정을 선택하는 시점에서 영향을 미치는 직업의 조건, 대우, 사회적 인식, 부모님과 선생님의 지지 등이 있다. 환경적 맥락에서 근접맥락과 배경맥락은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근접한 시점에서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의 영향을 보고자 한다. 따라서 근접 맥락에 해당하는 외적 장벽,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를 중심으로 각 변인을 고찰한다.

1) 외적 장벽

외적 장벽은 개인의 내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상황이 진로결정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음악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

다. 이슬(2016)은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조사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에 따른 평균을 살펴보면 우유부단함(M=3.05), 미래불안(M=3.00), 경제적 어려움(M=2.79), 자기명확성 부족(M=2.72), 진로 및 직업조건의 갈등(M=2.70), 대인관계 어려움(M=2.55), 신체적 열등감(M=2.51),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M=2.32), 나이문제(M=2.26), 동기부족(M=2.21)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환호(2016)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과 진로선택 및 진로장벽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따른 평균이 미래불안(M=3.13), 정보부족(M=2.96), 경제문제(M=2.78), 결정장애(M=2.62), 관계문제(M=2.33), 흥미부족(M=2.21), 타인갈등(M=2.13)의 순서로 나타났다. 장명진(2019)은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를 조사하였는데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과 그 평균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2.66을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3.06), 직업정보 부족(2.95), 미래불안(2.95), 대인관계 어려움(M=2.66), 신체적 열등감(M=2.59), 자기명확성 부족(M=2.48),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M=2.30), 흥미부족(M=2.26)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진 진로장벽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온 요인에는 경제적 어려움, 직업정보 부족, 미래불안이 있고, 가장 낮은 요인은 흥미부족, 동기부족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결정과 관련되는 장벽요인 중 흥미부족이나 동기부족과 같은 내적인 장벽요인보다 직업조건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외적 장벽요인의 지각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음악전공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중 개인의 내적 심리요인에 해당하는 미래불안을 제외하고 경제적 어려움, 직업에 대한 기회구조, 사회적 인식을 외적 장벽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2) 부모진로지지

부모지지는 학습과정과 관련되는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도 연구되어 왔다. 박지현(2009)은 음악학습에서 가정의 음악적 환경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고 하였으며, Sichivitsa(2002)는 부모와 자녀가 음악을 즐기고 음악적 결정과정에 부모가 참여하는 등의 긍정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지현, 2009, 재인용).

이러한 부모의 지지는 일반학습에서도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정미예, 조남근, 2011), 진로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근접 맥락 요인으로 제시되었다(Lent et al., 2000). 또한 부모지지의 긍정적인 영향은 진로자기관리모형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전미리와 김봉환(2018)은 사회인지 진로자기관리모형에 따른 부모진로지지와 대학생의 성실성과 개방성 및 진로탐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부모의 진로지지는 결정효능감, 결정결과기대, 진로목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의 진로지지는 음악전공자의 음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부모지지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음악학습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음악적 환경이나 정서지지를 위주로 연구되었다. 한편, 부모지지와 진로변인을 다룬 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지지를 정서지지와 경제지지의 두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이상희, 2009; 김경주, 2011).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경제적 요인은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중 하나인 것으로도 조사되었다(이슬, 2016; 정환호, 2016). 따라서 음악전공 대학생의 부모지지는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모두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고찰에 따라 부모진로지지를 정서지지, 경제지지로 나누어 조사하고자 한다.

3) 교사지지

음악학습은 학습자, 교수자, 음악이라는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정진원, 2007). 음악전공 실기교육이 1:1의 도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생각했을 때, 교수자는 음악학습의 요소이자 학생의 음악학습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맥락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에서는 음악학습에서 교사의 지지가 음악흥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권슬기, 2016),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지지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Murdock & Miller, 2002).

한편, 음악 분야에서 교사의 지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교사지지가 음악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와 비교하여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행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음악학습에서 교사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교사의 지지가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음악전공자들의 학습과 진로결정에 교육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가. 표본의 선정 및 추출과정

1)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중 6개교의 관현악, 성악, 작곡, 피아노 전공의 2, 3, 4학년 학생이며,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약 1,941명이다. 서울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중 음악전공이 있는 학교는 2018년을 기준으로[10] 총 17개교이며, 각 대학은 학교에서 구성된 학과 및 세부전공에 따라 재학생수와 그 구성비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음악전공 대학생은 클래식음악전공자로 국악, 실용음악을 제외한 관현악, 성악, 작곡, 피아노전공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17개교의 2, 3, 4학년 학생은 약 3,885명일 것으로 추정되지만[11]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포함한 학교는 6개교이다. 이러한 선정의 이유는 첫째, 관현악, 성악, 작곡, 피아노 전공이 모두 있는 학교로 선정하였다. 둘째, 각 전공의 인원을 기준으로 표본 추출을 위해 관현악, 성악, 작곡, 피아노 전공의 모집인원이 입학정원 자료에서 공개된 7개교로 선정하였다. 셋째, 이러한 7개교 중 본 연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 모집에 제한이 없는 6개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인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교 중 6개교의 관현악, 성악, 작곡, 피아노 전공의 2, 3, 4학년에 재학 중인 1,941명이다<표 Ⅲ-1>.

---

10)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시기는 2019년 9월 9일부터 12월31일 까지이므로 표본선정과 관련한 근거 통계자료는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최신자료인 한국교육개발원의 2018년 고등교육기관(대학)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11) 17개교의 입학정원이 1,295명 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학년 당 인원수를 추정하였다.

<표 Ⅲ-1>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 중 음악전공이 있는 17개교[12)]

학교명	학과 및 전공에 따른 입학정원	총계
1. 경희대	기악과(71)/ 성악과(33)/ 작곡과(16)	120
2. 국민대	관현악(36)/ 피아노(19)/ 성악(23)/ 작곡(16)	94
3. 동덕여대	관현악과(29)/ 피아노과(29)/ 성악과(28)	86
4. 삼육대	피아노/ 기독교실용음악/ 뉴미디어음악/ 성악/ 응용작곡	–
5. 상명대	뉴미디어작곡/ 관현악/ 성악/ 피아노 전공	–
6. 서경대	관현악(39)/ 피아노(17)	56
7. 서울대	현악(30),관악(20),피아노(23)/성악(27)/ 작곡(17)	117
8. 서울시립대	음악학과(30)	30
9. 서울한영대	음악과: 피아노/ 성악전공	21
10.성신여대	기악과(65)/ 성악과(27)/ 작곡과(21)	113
11.세종대	음악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 실용음악전공	46
12.숙명여대	관현악과(36)/ 피아노과(33)/ 성악과(26)/ 작곡과(25)	120
13.연세대	관현악과(42)/피아노과(20)/성악과(25)/작곡과(19)	106
14.이화여대	관현악과(44)/건반악기(34)/성악과(24)/작곡과(21)	123
15.추계예대	관현악과(29)/ 피아노과(29)/ 성악과(29)/ 작곡과(20)	107
16.한양대	관현악과(39)/ 피아노과(20)/ 성악과(29)/ 작곡과(15)	103
17. KC대	피아노/ 기독교실용음악/ 뉴미디어음악/ 성악/ 응용작곡	–

12) 학교, 학과 및 전공의 기입순서는 “가나다 순서”에 따르며, 세부전공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기재하였다.

2) 표집방법

본 연구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한 표집방법은 층화에 따른 비례표집이다. 음악전공의 경우, 음악관련 학과에서의 전공이 다양하고 각 세부전공별로 재학생의 구성비가 달라지므로 전공별로 나뉘는 하위집단의 비율이 표본 집단에서의 비율과 같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각 전공 인원에 비례하여 추출할 수 있는 층화표집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3)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는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Gall 등(1999)은 전통적인 상관연구에서 최소 30명 이상의 피험자수를, 조사연구의 경우 하위그룹별로 20~50명씩,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석우 외, 2015, 재인용)."

유사선행연구에서는 각 연구별로 188명 이상부터 381명 이하까지의 표본수로 구성되는데, 표본수의 산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각 연구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뢰수준, 표본오차를 근거로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이 되는 1,941명을 대상으로 신뢰수준을 95%. 오차범위를 5로 계산하였을 때 표본의 크기는 321명이 된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는 321명 이상을 목표로 하며, 선정된 대학에서의 전공비율을 고려하여 표집 하였을 때 각 전공집단의 크기가 최소 50명 이상이 되는 324[13]명 내외를 표본의 수로 정하였다. 모집단이 되는 6개교의 음악전공생 2018년 입학정원은 총 647명이며 관현악, 성악, 작곡, 피아노 전공자의 세부 인원비율을 중심으로 구성된 표본추출과정 및 크기는 다음의 <표 Ⅲ-2>와 같다.

13) 각 전공 비율의 계산 과정에서 321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수의 표본이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3명을 더한 324명을 표본수로 정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각 전공 비율을 산출하였다.

<표 Ⅲ-2> 세부전공 비율에 따른 표본추출과정

학교	관현악	성악	작곡	피아노	합계
1. 국민대학교	36	23	16	19	94
2. 서울대학교	50	27	17	23	117
3. 숙명여자대학교	36	26	25	33	120
4. 연세대학교	42	25	19	20	106
5. 추계예술대학교	29	29	20	29	107
6. 한양대학교	39	29	15	20	103
6개교 전공별 전체 인원	232	159	112	144	647
전공 비율(%)	35.8 =36	24.5 =25	17.3 =17	22.2 =22	100
324명 기준	116.64명	81명	55.08명	71.28명	324명
각 학교당 표집인원	19.4 19명	13.5 14명	9.18 9명	11.88 12명	54명 (총324명 내외)

이상의 연구대상에 대한 표집방법과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총 324명 이내의 표본수를 선정하였으며, 6개교의 각 학교마다 관현악 19명, 성악 14명, 작곡 9명, 피아노 12명의 총 54명씩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자료수집과정에서 학교당 인원을 충분히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의 경우 전공별 비율을 지켜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의 범위 내에서 충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자료는 1차, 2차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총 32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모든 설문지에 결측치가 없고 유효하므로 총 326부의 설문지를 모두 분석하였으며, IRB에 변동위반서를 제출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Ⅲ-3>.

연구의 특성상 사용된 층화표집에 따라 응답자의 학교는 국민대학교 44명(13.5%), 서울대학교 56명(17.2%), 숙명여자대학교 57명(17.5%), 연세대학교 59명(18.1%), 추계예술대학교 51명(15.6%), 한양대학교 59명(18.1%)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년은 2학년 74명(22.7%), 3학년 136명(41.7%), 4학년 116명(35.6%)으로 3학년이 가장 많고 고학년 위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223명(68.4%), 남학생이 103명(31.6%)으로 나타났는데, 연구대상의 학교 중 여자대학교가 있었고 음악전공을 하는 학생들의 성비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음을 생각했을 때 비교적 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전공별로는 관악 44명(13.5%), 현악 74명(22.7%), 성악 81명(24.8%), 작곡 56명(17.2%), 피아노 71명(21.8%)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대상의 전공비율은 관현악 36%, 성악 25%, 작곡 17%, 피아노 22%이므로 수집된 연구참여자의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각 유층인 전공별로 그 비율에 맞게 표집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전공 악기를 처음 시작한 시기에 대한 응답은 3세 이하 1명(0.3%), 4세~7세 78명(23.9%), 초등1~3학년 58명(17.8%), 초등4~6학년 39명(12%), 중학교 57명(17.5%), 고등학교 93명(28.5%)으로 고등학생 때 처음 시작한 집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세~7세 집단이 많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세부전공별로 자신의 전공을 시작하는 시기가 달랐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졸업한 중학교 유형은 일반중학교 239명(73.3%), 예술중학교 69명(21.2%), 음악중점중학교 12명(3.7%), 기타 6명(1.8%)으로 나타났다. 졸업한 중학교 유형에는 일반중학교 출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예술중학교 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한 고등학교 유형으로는 일반 고등학교 121명(37.1%), 예술 고등학교 175명(53.7%), 음악중점고등학교 15명(4.6%), 기타 15명(4.6%)으로 중학교와는 달리 예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50%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위의 음악적 환경에 대해서는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191명(58.6%), 부모님 54명(16.6%), 형제 또는 자매 31명 (9.5%), 친척 37명(11.3%), 기타 12명(3.7%)로 주위의 환경과 관계없이 음악을 전공한 학생이 조금 더 높지만 음악적 환경 속에서 음악을 전공한 학생의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Ⅲ-3> 표본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교	국민대학교	44	13.5
	서울대학교	56	17.2
	숙명여자대학교	57	17.5
	연세대학교	59	18.1
	추계예술대학교	51	15.6
	한양대학교	59	18.1
학년	2학년	74	22.7
	3학년	136	41.7
	4학년	116	35.6
성별	여학생	223	68.4
	남학생	193	31.6
전공	관악	44	13.5
	현악	74	22.7
	성악	81	24.8
	작곡	56	17.2
	피아노	71	21.8
전공시작 시기	3세 이하	1	0.3
	4세~7세	78	23.9
	초등 1~3학년	58	17.8
	초등 4~6학년	39	12
	중학교	57	17.5
	고등학교	93	28.5
졸업한 중학교 유형	일반중	239	73.3
	예술중	69	21.2
	음악중점중	12	3.7
	기타	6	1.8
졸업한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21	37.1
	예술고	175	53.7
	음악중점고	15	4.6
	기타	15	4.6
음악적 환경	없다	191	58.6
	부모님	55	16.6
	형제·자매	31	9.5
	친척	37	11.3
	기타	12	3.7
합계		326	100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준비, 설계, 계획서 심사, 수행준비, 수행, 분석, 정리로 이루어졌으며 세부 일정과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4> 연구절차 및 세부내용

절차	일정	연구내용
준비	2018년 10월 ~ 2019년 3월	-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탐색
설계	2019년 4월 ~ 2019년 6월	- 연구목적·대상·문제·가설 수립 - 연구진행 절차 및 일정 수립 - 이론적 배경 고찰 - 연구도구(설문지)준비
계획서 심사	2019년 6월 28일	- 논문계획서 및 주제 심사
수행준비	2019년 7월 ~ 2019년 8월	- IRB(서울대 생명윤리위원회) 준비 - 연구도구(설문지) 안면타당도 검증 및 수정 - 연구도구(설문지) 내용타당도 검증 및 수정 - 통계강좌 수강 및 실습
수행	2019년 9월 9일	- IRB(서울대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2019년 9월 17일 ~ 20일	- 설문지 예비조사 실시 및 신뢰도, 타당도 검증
	2019년 9월 17일 ~ 10월 25일	- 본 조사 설문지 배포 및 자료수집 1차
	2019년 11월 7일	- IRB 변경심의 1차 승인
	2019년 11월 8일 ~ 12월 31일	- 본조사 설문지 배포 및 자료수집 2차

분석	2020년 1월~2월	- 통계프로그램에 의한 자료처리 및 분석 - 결과도출
정리	2020년 3월~7월	- IRB 변동심의 승인 - 연구결과 해석 및 정리 - 논문작성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학습경험, 인지적·사회적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표 Ⅲ-5>와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크게 일반적 특성, 진로결정, 전공학습경험 중 수행성취,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환경적 맥락의 6가지 영역으로 질문형식의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 음악전공학습경험 4문항, 복수응답문항(진로결정2-2)을 제외하고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척도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기반으로 연구의 대상인 음악전공 대학생에 적합하도록 연구자가 수정하였고, 음악대학 졸업자 3인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확인하여 다시 수정하였다. 이후 음악대학 교수 1인, 음악교육 박사과정 2인, 음악학 박사수료 1인에게 내용타당도 검토를 받고 재수정 하였다. 예비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고,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총 33명의 연구 참여자의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표 Ⅲ-5> 설문지(측정도구) 구성

변인		구성 내용의 예시	문항
일반적 특성		학교, 학년, 성별, 전공, 전공시작시기, 출신중/고등학교, 가정의 음악적 환경	8
진로결정		- 음악전공과 관련하여 나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다.	6
전공학습경험		- 교육기간, 콩쿠르 수상경력, 연주경험, 음악활동	4
전공학습경험 중 수행성취		- 전공실기학습을 통한 음악능력의 성취를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음악적 자기 효능감	과제수준 선호도	- 나는 어려운 작품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4
	자기조절 효능감	- 나는 효과적인 연습방법을 알고 있다.	5
	자신감	- 나는 실기 시험을 치룰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5
진로 결과 기대	내재적 결과기대	- 나는 음악가(연주가)로 만족할 만한 일을 할 것이다.	7
	외재적 결과기대	- 괜찮은 급여를 받을 것이다. - 음악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존경)을 받을 것이다.	5
외적 장벽		- 집안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3
부모 지지	부모 정서지지	- 진로에 관해서 나의 입장을 존중해 주시고 대체로 받아들여주신다.	2
	부모 경제지지	- 내가 원하면 유학을 보내주실 것이다.	2
교사 지지	교사 지도기술	- 레슨시간에 배우는 전공 및 음악지식은 나의 수준에 적당한 것 같다.	3
	교사 정보지지	- 선생님은 내가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신다.	3
	교사 정서지지	- 선생님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3

가. 진로결정

본 연구에서의 진로결정은 음악전공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진로결정의 확신수준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수준이란 '전공 및 직업의 선택과 관련된 확신의 정도' 라는 관점에서 정의되며, 확신의 정도가 높으면 '진로결정', 낮으면 '진로미결정' 의 상태로 볼 수 있다(Osipow et al., 1976; Holland & Holland, 1977; Jones& Chenery, 1980; Gati et al., 1996).

진로결정에 대한 측정은 7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되고 개발되어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여부, 진로미결정 원인 등에 대해 측정할 수 있으며, 오시포 등(Osipow et al.,1976)의 진로결정수준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 존스(Jones, 1989)의 CDP(Career Decision Profile), 가티(Gati), 크라우즈(Krausz), 오시포(Osipow)의 CDDQ(The Career Decision - Making Difficulties Questionnaire)등이 있다(Gati et al., 1996). 이러한 진로결정수준 측정도구는 대부분 확신수준 요인과 미결정의 원인이 되는 하위척도로 구성되므로 미결정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으면 '미결정', 점수가 낮으면 '결정' 으로 측정된다.

한편, 김유경(2012)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본 틀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사회복지 진로결정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했던 진로결정의 개념은 '진로 결정에 대한 확고함의 정도' 인데, 일반적인 진로결정수준을 묻는 CDS와 같은 척도는 측정의 초점이 되는 개념과 그 방식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진로결정의 인과적 맥락을 사회인지진로이론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진로결정 척도의 문항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원인들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것은 연구자가 의도하는 변수의 개념에 맞지 않고 논리적 모순이 있으므로 진로목표확신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김유경, 2012).

음악전공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진로방향을 결정하고 진학한다는 전공특성이 있고 대부분 음악가라는 진로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러한 집단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함에 있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묻는 것 보다는 진로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진로확신수준을 기준으로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김유경(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음악전공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김유경(2012)의 척도는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박아청, 2003)와 진로척도(정민, 노안영, 2006)의 하위요인 중 미래 확신성, 진로확신을 토대로 진로확신수준의 6문항을 추출하여 타당화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이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선택확신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하나의 성분으로 측정되었다<표 Ⅲ-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 6문항 중 복수응답문항인 2-2번 문항을 제외한 총 5문항을 진로계획 및 확신수준이라는 단일요인으로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9로 나타났다<표 Ⅲ-7>.

<표 Ⅲ-6> 진로결정 척도의 요인분석

항목	요인분석	공통성
	성분	
진로결정 4	.82	.68
진로결정 1	.78	.61
진로결정 3	.78	.60
진로결정 5	.75	.56
진로결정 2-1	.69	.47
Eigen-value	2.921	
분산설명(%)	58.424	
Kaiser-Meyer-Olkin (KMO)	.826	
Bartlett' test	근사카이제곱=534.398 자유도(df)=10, 유의확률(p)= .000	

<표 Ⅲ-7> 진로결정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

(n=326)

진로결정
.819

나. 음악전공학습경험

음악전공학습경험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차이를 유발하는 이전의 학습경험을 의미하며, 음악전공이라는 특정 영역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측정된 학습경험에의 수행성취와 음악학습 관련 선행연구에서 측정된 전공학습경험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설문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이에 따른 최종적인 설문문항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차이를 보기 위한 음악전공학습경험 4문항과 전공실기교과에서 인지된 음악학습의 수행성취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전공학습경험(교육기간, 콩쿠르, 연주경험, 음악활동)

먼저 전공학습경험 4문항은 음악학습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학습요인들로 구성하였다. 음악학습경험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여러 음악활동경험이 측정되어왔는데, 박지현(2009)은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영향을 주는 음악경험으로 연주활동 또는 음악발표 등을 측정하였다. 김보람(2014)은 음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콩쿠르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안소영(2016)은 음악전공 학생들의 연주 몰입에 대한 경험변인으로 전공학습기간, 연주 횟수, 연습시간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교육기간 1문항, 콩쿠르 수상경력 1문항, 연주경험 1문항, 음악활동경험 1문항의 총 4문항을 음악전공학습경험의 측정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전공학습경험 중 수행성취

두 번째로, 수행성취와 관련하여서는 반두라가 정의한 학습경험의 수행성취에 근거하여 전공실기교과의 음악학습수행에서 학생들의 성취정도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문효빈(2017), 윤효진(2008), 장근주와 안애란(2010), 최선월(2014)의 연구를 토대로 음악전문 실기교과에 대한 학습수행성취로 문항을 수정하였고,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수행성취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하나의 성분인 단일요인으로 측정되었다<표 Ⅲ-8>. 또한 신뢰도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가 .860으로 나타났다<표 Ⅲ-9>.

<표 Ⅲ-8> 수행성취 척도의 요인분석

항목	요인분석	공통성
	성분	
수행성취 2	.881	.776
수행성취 1	.847	.718
수행성취 3	.833	.694
수행성취 4	.795	.632
Eigen-value	2.820	
분산설명(%)	70.494	
Kaiser-Meyer-Olkin (KMO)	.794	
Bartlett' test	근사카이제곱=609.198 자유도(df)=6, 유의확률(p)=.000	

<표 Ⅲ-9> 수행성취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

(n=326)

수행성취
.860

다. 음악적 자기효능감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음악이라는 특정 영역에 대한 효능감으로 음악적 활동과 과제수행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음악학습에 적용되어 음악교육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져왔는데(박지현, 2009; 이지영, 2012),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일반음악교육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박세진 등(2019)은 음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필요성에 따라 반두라(Bandura, 1977)가 정의한 자기효능감과 박지현(2009)이 정의한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토대로 총 36문항을 제작하고, 최종 16문항을 추출하여 서울 소재 음악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다. 이러한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과 문항수를 살펴보면 과제난이도선호 5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6문항, 자신감 5문항으로 이루어지며 각 하위요인이 의미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난이도 선호는 “음악 학습자 스스로가 어떠한 수준에 이르는 과제 선택을 하는 것 이외에도 주어진 작품 과제에 대한 연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난이도를 필요로 하는 기술 및 방법, 연습의 선호도를 의미한다.” 둘째, 자기조절 효능감은 “음악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행동 및 인지, 환경, 정서 등 여러 측면의 의도적인 주의집중을 의미하여 이것은 자신의 목표수립 및 수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신감은 “음악 학습 및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신

의 음악적 능력에 대하여 표출된 정서적 반응을 의미한다(박세진 외, 2019 :56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세진 등(2019)이 개발한 음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과 개념을 기반으로 박지현(2009)이 사용한 척도 문항의 일부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수정 내용은 문항수와 문항의 구성내용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과제난이도 선호는 원척도에서 5문항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4번 문항을 제외하고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원척도에서 명시된 작품을 악기전공자에게 보다 적합하도록 장르나 작품, 과제나 테크닉 등으로 수정하였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원척도 6문항 중 1문항을 제외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신감은 5문항 모두 사용하였고, 원척도에 제시된 연주는 연주(작품발표)로 수정하였고, 실기시험은 실기시험(곡 마감)으로 수정하였다.

수정된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세 가지 하위요인인 과제수준 선호도[14] 4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5문항 , 자신감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을 설명하는 공통성에서 다소 낮게 측정된 3개의 문항(문항6=.428, 문항9=.420, 문항14=.481)을 제외하는 변수정화작업을 거쳤고 총 11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표 Ⅲ-10>. 그 결과, 모든 문항의 공통성이 .5 이상으로 설명력이 높아졌다. 또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786이며 하위요인별로 과제수준 선호도=.720, 자기조절 효능감=.753, 자신감=.813으로 나타났다<표 Ⅲ-11>

14)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과제수준 선호도’는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문항의 ‘과제난이도 선호’와 동일한 요인이며, 자료조사 이후 가독성을 위해 그 명칭을 ‘과제수준 선호도’로 변경하였다.

<표 Ⅲ-10> 음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요인분석

항목	요인분석			공통성
	자신감	과제수준 선호도	자기조절 효능감	
음악적 자기효능감 12	.820			.674
음악적 자기효능감 11	.784			.644
음악적 자기효능감 13	.782			.631
음악적 자기효능감 10	.752			.628
음악적 자기효능감 3		.791		.633
음악적 자기효능감 4		.724		.526
음악적 자기효능감 2		.701		.599
음악적 자기효능감 1		.610		.540
음악적 자기효능감 7			.834	.703
음악적 자기효능감 5			.803	.646
음악적 자기효능감 8			.788	.668
Eigen-value	2.623	2.028	1.805	
분산설명(%)	24.237	19.600	18.803	
Kaiser-Meyer-Olkin (KMO)	.773			
Bartlett' test	근사카이제곱=1100.564, 자유도(df)=55, 유의확률(*p*)=.000			

<표 Ⅲ-11> 음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

(n=326)

음악적 자기효능감 전체	하위요인별		
	과제수준 선호도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786	.720	.753	.813

라. 진로결과기대

진로결과기대는 진로와 관련된 학업 및 행동의 수행 이후 결과에 대한 기대 및 보상으로 정의되며, 결과기대의 측정을 위해 렌트와 브라운(Lent & Brown, 2013)이 개발한 결과기대 척도를 음악진로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렌트와 브라운은 대학의 공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한 기대의 측정을 위해 해당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김진관(2014)은 렌트와 브라운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과 사회인지요인에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학계열과 음악계열은 특정한 분야의 전공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학습의 영역이 다르므로 음악진로의 상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학에서의 음악전공자들 대부분은 음악가(연주자) 또는 음악활동과 관련된 직업분야를 희망한다고 하였다(최진호, 정완규, 2009; 이보아라, 2012; 주희선, 2013; 정환호, 2016; 추상희, 최진호, 2018).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음악가(연주자) 또는 음악 활동에 대한 직업적 결과기대를 초점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내가 만족할 만한 일을 할 것이다(원 문항).' 는 '나는 음악가 또는 음악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일을 할 것이다(수정문항).' 와 같이 기존척도에서 음악 분야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렌트와 브라운(Lent & Brown, 2013)이 개발한 진로결과기대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내재적 결과기대 7문항, 외재적 결과기대 5문항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음악 분야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10과 문항 11이 하위요인에 알맞게 적재되지 않았으므로 제거하였고, 총 10문항을 사용하였다<표 Ⅲ-12>. 총 10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893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내재적 결과기대= .924, 외재적 결과기대= .727로 나타났다<표 Ⅲ-13>.

<표 Ⅲ-12> 진로결과기대 척도의 요인분석

항목	요인분석		공통성
	내재적 결과기대	외재적 결과기대	
진로결과기대 4	.863		.771
진로결과기대 5	.860		.778
진로결과기대 2	.829		.738
진로결과기대 6	.817		.702
진로결과기대 1	.806		.710
진로결과기대 7	.766		.592
진로결과기대 3	.716		.543
진로결과기대 9		.825	.727
진로결과기대 12		.801	.642
진로결과기대 8		.685	.646
Eigen-value	4.812	2.039	
분산설명(%)	48.116	20.387	
Kaiser-Meyer-Olkin(KMO)	.891		
Bartlett‘ test	근사카이제곱=2017.262 자유도(df)=45, 유의확률(p) = .000		

<표 Ⅲ-13> 진로결과기대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n=326)

진로 결과기대 전체	하위요인별	
	내재적 결과기대	외재적 결과기대
.893	.924	.727

마. 환경적 맥락

환경적 맥락은 학생 개인의 근접 맥락이 되는 외적 장벽요인과 부모 진로지지요인 및 교사지지요인으로 구성된다.

1) 외적 장벽

외적 장벽은 탁진국과 이기학(Tak & Lee, 2003)이 개발한 한국진로미결정척도(KCII: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의 하위요인 중 외적 장벽을 의미하는 외적 장애 요인 3문항을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탁진국과 이기학의 KCII의 하위요인 중 외적 장애 요인은 전미리와 김봉환(2015)의 연구에서도 외적 장벽의 측정을 위한 소척도로 사용되었다. 전미리와 김봉환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자기관리모델을 기반으로 연구하였는데, 진로장벽의 개념이 전통적인 연구들에서는 진로목표를 방해하는 내적·외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개념에 따라 근접 맥락 변인인 외적 장벽을 진로장벽으로 설정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음악전공자의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외적 장벽을 측정하고자 하므로 KCII의 외적 장애 요인 중 학벌, 사회적 인식, 경제적 어려움을 묻는 총 3문항으로 외적 장벽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성분으로 적재되었으며<표 Ⅲ-14>,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746으로 나타났다<표 Ⅲ-15>.

<표 Ⅲ-14> 외적 장벽 척도의 요인분석

항목	요인분석	공통성
	성분	
외적 장벽 2	.824	.678
외적 장벽 1	.811	.658
외적 장벽 3	.810	.657
Eigen-value	1.993	
분산설명(%)	66.422	
Kaiser-Meyer-Olkin(KMO)	.691	
Bartlett‘ test	근사카이제곱=220.797 자유도(df)=3, 유의확률(*p*)= .000	

<표 Ⅲ-15> 외적 장벽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

(n=326)

외적 장벽
.746

2) 부모진로지지

부모진로지지는 이상희(2009)가 개발한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 척도를 음악전공 대학생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다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정보적 지지, 대화적 지지,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경험적 지지의 다섯 가지요인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 2문항, 경제적 지지 2문항의 총

4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수정한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이 하위요인에 맞게 잘 나누어졌으며<표 Ⅲ-16>,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전체=.805, 정서적 지지= .911, 경제적 지지= .760로 나타났다 <표 Ⅲ-17>.

<표 Ⅲ-16> 부모진로지지 척도의 요인분석

항목	요인분석		공통성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부모지지 1	.934		.920
부모지지 2	.926		.916
부모지지 4		.888	.821
부모지지 3		.855	.796
Eigen-value	1.828	1.625	
분산설명(%)	45.710	40.624	
Kaiser-Meyer-Olkin(KMO)	.645		
Bartlett' test	근사카이제곱=626.093 자유도(df)=6, 유의확률(p)= .000		

<표 Ⅲ-17> 부모진로지지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

(n=326)

부모진로지지	하위요인별	
전체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805	.911	.760

3) 교사지지

교사지지는 일반적으로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의 두 개의 하위요인 차원에서 구성된 척도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이채식, 2005; 김경주, 2011; 김국현, 2016). 그러나 음악전공생에게 교수자는 음악학습의 주요한 한 요인이며(정진원, 2007), 학습의 방식 또한 1:1 레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보적,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전공실력 향상과 관련되는 지도기술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세 가지 하위요인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기반으로 재구성 및 수정하였다.

김경주(2011)는 이채식(2005)의 사회적 지지 도구 중 교사지지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정보적 지지 5문항, 정서적 지지 4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경주의 연구에서 사용된 교사지지 척도 중 정보적 지지 3문항, 정서적 지지 3문항을 음악전공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다시 수정하여 총 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장근주와 조대현(2011)이 사용한 음악 교사의 지도기술을 추가적인 하위요인으로 재구성하였다.

장근주와 조대현(2011)은 루크와 코프(Luke & Cope, 1994)가 제작한 'Student Attitude toward Teacher Behavior and Program Content in School Physical Education'을 음악적 내용으로 수정하여 교사의 수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적 자질, 지도기술, 음악적 기술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7문항으로 이루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척도의 하위요인 중 지도기술 요인을 음악전공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총 3문항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교사지지 척도는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지며 지도기술 3문항, 정보적 지지 3문항, 정서적 지지 3문항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교사지지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한 결과, 요인적재량이 적절하게 나누어졌다<표 Ⅲ-18>. 또한 신뢰도계수는(Cronbach's α)는 전체=.930이며, 하위요인별로 지도기술=.845, 정보지지=.858, 정서지지=.907로 나타났다<표 Ⅲ-19>.

<표 Ⅲ-18> 교사지지 척도의 요인분석

항목	요인분석			공통성
	지도기술	정보지지	정서지지	
교사지지 3	.564			.722
교사지지 2	.819			.851
교사지지 1	.792			.833
교사지지 4		.784		.836
교사지지 5		.757		.784
교사지지 6		.629		.749
교사지지 7			.844	.845
교사지지 8			.843	.857
교사지지 9			.795	.790
Eigen- value	2.066	2.359	2.843	
분산설명(%)	22.961	26.207	31.586	
Kaiser-Meyer-Olkin (KMO)	.917			
Bartlett's test	근사카이제곱=2126.576, 자유도=36, 유의확률.000			

<표 Ⅲ-19> 교사지지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

(n=326)

교사지지 전체	하위요인별		
	지도기술	정보지지	정서지지
.930	.845	.858	.907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5.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95% 신뢰구간($p<.05$)에서 검증하였고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행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하고 정규분포를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측정개념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넷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문항 간의 내적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다섯째, 개인의 전공학습경험에 따른 연구의 인지변인들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행하였으며, 등분산 가정을 확인한 후 Scheffe 검증을 통해 사후검정분석을 실행하였다.

여섯째,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행하였다.

일곱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 및 단순회귀분석을 실행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의 경우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여덟 번째, 독립변인와 종속변인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빈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인 진로결정 중 2-2번 문항은 개인의 진로계획 중 일하거나 공부하고 싶은 음악장르를 묻는 다중응답문항이므로 별도로 코딩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클래식음악 238명(54.2%), 재즈 24명(5.5%), 실용음악 69명(15.7%), 영화음악 71명(16.2%), 종교음악 19명(4.3%), 기타 18명(4.1%)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음악장르는 클래식 음악의 선택 빈도가 가장 높지만 실용음악, 영화음악장르의 중복응답 빈도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Ⅳ-1>.

<표 Ⅳ-1> 다중응답문항의 빈도분석

(N=32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진로결정 음악장르	클래식음악	238	54.2
	재즈	24	5.5
	실용음악	69	15.7
	영화음악	71	16.2
	종교음악	19	4.3
	기타	18	4.1
합계		326	100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가. 측정 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은 진로결정, 음악전공학습경험 중 수행성취,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환경적 맥락이 있으며 모든 측정 변인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변인과 그에 따른 하위요인의 기술적 통계량을 분석한 평균 및 표준편차의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2>.

먼저 진로결정과 전공학습경험 중 수행성취는 진로결정(M=3.61, SD=.78), 수행성취(M=3.70, SD=.78)로 나타났다. 진로결과기대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하위요인은 내재적 결과기대(M=4.06, SD=.69), 외재적 결과기대(M=3.42, SD=.83)로 나타났다.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은 과제수준 선호도(M=3.39, SD=.78), 자기조절 효능감(M=3.54, SD=.69), 자신감(M=2.90, SD=.96)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맥락은 외적장벽, 부모지지, 교사지지의 세 가지 변인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 외적 장벽과 부모지지는 외적장벽(M=3.04, SD=.92), 부모정서지지(M=3.88, SD=.98), 부모경제지지(M=4.03, SD=.96)로 나타났다. 교사지지의 세 가지 하위요인은 교사지도기술(M=3.88, SD=.81), 교사정보지지(M=3.83, SD=.85), 교사정서지지(M=3.81, SD=.89)로 나타났다.

자료의 정규성 가정에 대한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근거로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모두 2 미만이고, 첨도의 절대값은 모두 7 미만으로 나타나 자료가 정규분포에 근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2> 측정 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N=326)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진로결정	3.61	.79	-.39	.16
수행성취	3.71	.78	-.48	.52
과제수준 선호도	3.39	.78	-.15	.18
자기조절 효능감	3.54	.69	-.07	.29
자신감	2.90	.96	.20	-.44
내재적 결과기대	4.07	.70	-.79	1.50
외재적 결과기대	3.42	.83	-.27	.20
외적 장벽	3.04	.92	-.11	-.20
부모 정서지지	3.88	.98	-.77	.12
부모 경제지지	4.03	.97	-.93	.38
교사 지도기술	3.89	.82	-.65	.54
교사 정보지지	3.84	.86	-.59	.14
교사 정서지지	3.81	.90	-.61	.19

나. 측정 변인의 상관관계

진로결정, 음악전공학습경험 중 수행성취,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환경적 맥락(외적 장벽,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Ⅳ-3>.

먼저, 진로결정은 모든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학습경험 중 수행성취와 음악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수행성취(r=.491, p<0.01), 과제수준 선호도(r=.414, p<0.01), 자기조절 효능감(r=.334, p<0.01), 자신감(r=.256, p<0.01)으로 나타났다. 수행성취와 진로결과기대의 두 하위요인은 내재적 결과기대(r=.651, p<0.01), 외재적 결과기대(r=.430, p<0.01)로 나타났다. 환

경적 맥락 요인과의 상관은 부모정서지지(r =.328, p<0.01), 부모경제지지(r=.317, p<0.01), 지도기술(r=.350, p<0.01), 정보지지(r=.339, p<0.01), 정서지지(r=.343 p<0.01)로 나타났다. 수행성취는 이러한 각 변인들과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외적 장벽(r=−.164,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악적 자기효능감 역시 부모경제지지와 와 외적 장벽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 따른 상관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조절 효능감은 외적 장벽과는 상관관계가 없고(r=−0.044, p<0.429), 부모경제지지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19, p<0.5). 자신감은 외적 장벽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r=−.159, p<0.01), 부모경제지지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68, p<0.220).

진로결과기대는 과제수준 선호도를 제외한 모든 변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재적 결과기대와 과제수준 선호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결과기대와 외적 장벽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59, p<0.01, r=−.252, p<0.01). 또한 진로결과기대는 과제수준 선호도, 외적장벽을 제외한 변인들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진로지지의 하위요인 중 부모정서지지는 외적 장벽을 제외한 모든 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외적 장벽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경제지지는 과제수준 선호도를 제외한 모든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외적 장벽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교사지지의 하위요인 중 지도기술, 정보지지, 정서지지 모두 외적 장벽을 제외한 모든 변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Ⅳ-3>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N=326)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진로결정	1												
2. 수행성취	.491**	1											
3. 과제수준 선호도	.414**	.388**	1										
4. 자기조절 효능감	.334**	.303**	.257**	1									
5. 자신감	.256**	.309**	.396**	.115*	1								
6. 내재적기대	.651**	.381**	.304**	.274**	.245**	1							
7. 외재적기대	.430**	.331**	.093	.148**	.218**	.471**	1						
8. 외적 장벽	-.164**	0.007	-0.083	-0.044	-.159**	-.159**	-.252**	1					
9. 정서지지	.328**	.362**	.133*	.165**	.133*	.368**	.271**	-.140*	1				
10. 경제지지	.317**	.301**	.083	.119*	0.068	.267**	.304**	-.209**	.469**	1			
11. 지도기술	.350**	.552**	.261**	.235**	.133*	.394**	.213**	-0.019	.240**	.220**	1		
12. 정보지지	.339**	.564**	.265**	.220**	.151**	.293**	.219**	-0.082	.324**	.265**	.749**	1	
13. 정서지지	.343**	.532**	.225**	.180**	.190**	.278**	.208**	-0.102	.213**	.215**	.651**	.736**	1

* $p<.05$, ** $p<.01$

3. 변인들 간의 관계에 따른 가설검증 및 결과

가. 음악전공학습경험,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관계

전공학습경험,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관계는 가설1에 따른 변인 간의 차이분석과 가설2에 따른 변인 간 인과관계분석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가설에 따른 검증과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전공학습경험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가설 1-1] 음악전공학습경험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음악전공학습경험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분석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행하였다. 표본의 정규분포 확인을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분산의 동질성을 확인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의 확인 이후 Scheffe 검증을 통한 사후검정을 실행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기간과 콩쿠르 수상경력 및 음악활동에 따라 자기조절 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주경험에 따라 과제수준 선호도,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간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교육기간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4>.

먼저, 교육기간에 따라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F=2.415$,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교육기간에 따라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과제수준 선호도(F=.992, n.s)와 자신감(F=.346, n.s)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4> [가설 1-1]의 차이분석 결과 ①

종속변인	교육기간	N	평균	표준편차	F/*p*	사후검증 결과
과제수준 선호도	5년 미만	44	(a)3.21	.83	.992 /.412	
	5년~10년	122	(b)3.37	.81		
	10년~15년	106	(c)3.41	.75		
	15년~20년	48	(d)3.52	.65		
	20년 이상	6	(e)3.46	1.07		
자기조절 효능감	5년 미만	44	(a)3.39	.66	2.415* /.049	
	5년~10년	122	(b)3.44	.72		
	10년~15년	106	(c)3.66	.62		
	15년~20년	48	(d)3.65	.68		
	20년 이상	6	(e)3.44	1.03		
자신감	5년 미만	44	(a)3.03	.96	.346 /.846	
	5년~10년	122	(b)2.88	.94		
	10년~15년	106	(c)2.89	.96		
	15년~20년	48	(d)2.83	.94		
	20년 이상	6	(e)3.13	1.59		

* $p<.05$, ** $p<.01$, *** $p<.001$

(2) 콩쿠르 수상경력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콩쿠르 수상경력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5>. 콩쿠르 수상경력에 따라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F=2.418, p< .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를 통해 실시한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콩쿠르 수상경력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과제수준 선호도(F=1.152, n.s)와 자신감(F=.986, n.s)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5> [가설 1-1]의 차이분석 결과 ②

종속변인	수상경력	N	평균	표준편차	F/p	사후검증 결과
과제수준 선호도	없다	165	(a)3.38	.79	1.152 /.333	
	1회	46	(b)3.34	.73		
	2회	29	(c)3.28	.88		
	3회	32	(d)3.26	.77		
	4회	11	(e)3.77	.71		
	5회 이상	43	(f)3.53	.71		
자기조절 효능감	없다	165	(a)3.45	.66	2.418* /.036	
	1회	46	(b)3.63	.67		
	2회	29	(c)3.43	.80		
	3회	32	(d)3.53	.68		
	4회	11	(e)3.70	.46		
	5회 이상	43	(f)3.81	.74		
자신감	없다	15	(a)2.90	.99	.986 /.426	
	1회	46	(b)2.90	.84		
	2회	29	(c)2.66	.89		
	3회	32	(d)2.84	.88		
	4회	11	(e)3.32	1.04		
	5회 이상	43	(f)3.04	1.03		

*p<.05 , **p<.01, *** p<.001

(3) 연주경험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연주경험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6>. 먼저, 연주경험에 따라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과제수준 선호도(F=2.294, p<.05)와 자기조절 효능감(F=3.368, p<.01)과 자신감(F=3.345,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 를 통해 실시한 사후검증 결과, 자기조절효능감은 연주경험이 5회 이상인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제수준 선호도와 자신감에서는 사후검증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6> [가설1-1]의 차이분석 결과 ③

종속변인	연주경험	N	평균	표준편차	F/p	사후검증 결과
과제수준 선호도	없다	59	(a)3.22	.80	2.294* /.045	
	1회	47	(b)3.28	.84		
	2회	44	(c)3.41	.65		
	3회	46	(d)3.30	.66		
	4회	21	(e)3.24	.87		
	5회 이상	109	(f)3.57	.78		
자기조절 효능감	없다	59	(a)3.27	.67	3.368** /.006	f > a (Scheffe 검증)
	1회	47	(b)3.48	.68		
	2회	44	(c)3.55	.75		
	3회	46	(d)3.54	.64		
	4회	21	(e)3.54	.68		
	5회 이상	109	(f)3.71	.65		
자신감	없다	59	(a)2.75	.90	3.345** /.006	
	1회	47	(b)2.73	.92		
	2회	44	(c)2.63	.94		
	3회	46	(d)2.89	.82		
	4회	21	(e)2.83	1.16		
	5회 이상	109	(f)3.19	.97		

*p<.05 , **p<.01, ***p<.001

(4) 음악활동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음악활동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7>. 음악활동에 따라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F=3.140,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음악활동에 따라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과제수준 선호도(F=1.606, n.s)와 자신감(F=.403, n.s)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7> [가설 1-1]의 차이분석 결과 ④

종속변인	음악활동	N	평균	표준편차	F/p	사후검증 결과
과제수준 선호도	없다	116	(a)3.33	.85	1.606 /.158	
	1회	54	(b)3.45	.66		
	2회	59	(c)3.42	.74		
	3회	28	(d)3.22	.74		
	4회	17	(e)3.12	.69		
	5회 이상	52	(f)3.59	.75		
자기조절 효능감	없다	116	(a)3.47	.70	3.140** /.009	
	1회	54	(b)3.44	.65		
	2회	59	(c)3.57	.66		
	3회	28	(d)3.35	.65		
	4회	17	(e)3.65	.66		
	5회 이상	52	(f)3.84	.66		
자신감	없다	116	(a)2.94	.96	.403 /.847	
	1회	54	(b)2.81	1.09		
	2회	59	(c)2.84	.90		
	3회	28	(d)2.86	.86		
	4회	17	(e)2.84	.83		
	5회 이상	52	(f)3.04	.99		

*p<.05 , **p<.01, ***p<.001

2) 음악전공학습경험에 따른 진로결과기대의 차이

[가설 1-2] 음악전공학습경험에 따라 진로결과기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음악전공학습경험에 따른 진로결과기대 차이분석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행하였다. 표본의 정규분포 확인을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분산의 동질성을 확인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의 확인 이후 Scheffe 사후검정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콩쿠르 수상경력, 연주경험에 따라 내재적 결과기대와 외재적 결과기대에 차이가 있고, 음악활동에 따라 외재적 결과기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1) 교육기간에 따른 진로결과기대의 차이

교육기간에 따른 진로결과기대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내재적 결과기대(F=.923, n.s)와 외재적 결과기대(F=1.423, n.s)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Ⅳ-8>.

<표 Ⅳ-8> [가설 1-2]의 차이분석 결과 ①

종속변인	교육기간	N	평균	표준편차	F/*p*	사후검증 결과
내재적 결과기대	5년 미만	44	(a)4.11	.64	.923 /.451	
	5년~10년	122	(b)3.99	.77		
	10년~15년	106	(c)4.12	.65		
	15년~20년	48	(d)4.07	.68		
	20년 이상	6	(e)4.40	.68		
외재적 결과기대	5년 미만	44	(a)3.27	.91	1.423 /.226	
	5년~10년	122	(b)3.34	.81		
	10년~15년	106	(c)3.53	.78		
	15년~20년	48	(d)3.54	.86		
	20년 이상	6	(e)3.33	1.30		

* p<.05 , ** p<.01, *** p<.001

(2) 콩쿠르 수상경력에 따른 진로결과기대의 차이

콩쿠르 수상경력에 따른 진로결과기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내재적 결과기대(F=3.603, p<.01)와 외재적 결과기대(F=3.267,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9>.

사후검증 결과, 콩쿠르 수상경력이 5회 이상인 집단이 수상경력이 2회 이상인 집단보다 내재적 결과기대와 외재적 결과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가설 1-2]의 차이분석 결과 ②

종속변인	콩쿠르 수상경력	N	평균	표준편차	F/p	사후검증 결과
내재적 결과기대	없다	165	(a)4.12	.65	3.603** /.003	f > c (Scheffe 검증)
	1회	46	(b)3.95	.84		
	2회	29	(c)3.72	.81		
	3회	32	(d)3.91	.67		
	4회	11	(e)4.09	.72		
	5회 이상	43	(f)4.34	.53		
외재적 결과기대	없다	165	(a)3.41	.85	3.267** /.007	f > c (Scheffe 검증)
	1회	46	(b)3.31	1.00		
	2회	29	(c)3.02	.76		
	3회	32	(d)3.48	.56		
	4회	11	(e)3.64	.81		
	5회 이상	43	(f)3.77	.66		

* p<.05 , ** p<.01, *** p<.001

(3) 연주경험에 따른 진로결과기대의 차이

연주경험에 따른 진로결과기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내재적 결과기대(F=3.701, p<.01)와 외재적 결과기대(F=3.399,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0>.

사후검증결과, 연주경험이 5회 이상인 집단이 1회 이상인 집단보다 내재적 결과기대와 외재적 결과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가설1-2]의 차이분석 결과 ③

종속변인	연주경험	N	평균	표준편차	F/p	사후검증 결과
내재적 결과기대	없다	59	(a)3.96	.72	3.701** /.003	f > b (Scheffe 검증)
	1회	47	(b)3.84	.71		
	2회	44	(c)3.92	.80		
	3회	46	(d)4.07	.65		
	4회	21	(e)4.20	.58		
	5회 이상	109	(f)4.26	.63		
외재적 결과기대	없다	59	(a)3.30	.72	3.399** /.005	f > b (Scheffe 검증)
	1회	47	(b)3.13	1.00		
	2회	44	(c)3.25	.91		
	3회	46	(d)3.53	.75		
	4회	21	(e)3.43	1.00		
	5회 이상	109	(f)3.63	.73		

* p<.05 , ** p<.01, *** p<.001

(4) 음악활동에 따른 진로결과기대의 차이

음악활동에 따른 진로결과기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과기대의 하위요인 중 외재적 결과기대(F=2.417,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Scheffe 검증을 통한 사후검증 결과, 음악활동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진로결과기대의 나머지 하위요인인 내재적 결과기대(F=1.699, n.s)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1>.

<표 Ⅳ-11> [가설 1-2]의 차이분석 결과 ④

종속변인	음악활동	N	평균	표준편차	F/p	사후검증 결과
내재적 결과기대	없다	116	(a)3.99	.64	1.699 /.134	
	1회	54	(b)4.05	.82		
	2회	59	(c)3.98	.80		
	3회	28	(d)4.24	.64		
	4회	17	(e)4.04	.58		
	5회 이상	52	(f)4.27	.61		
외재적 결과기대	없다	116	(a)3.35	.82	2.417* /.036	
	1회	54	(b)3.17	1.00		
	2회	59	(c)3.46	.81		
	3회	28	(d)3.61	.80		
	4회	17	(e)3.71	.60		
	5회 이상	52	(f)3.61	.720		

* p<.05 , ** p<.01, *** p<.001

3) 전공학습경험 중 수행성취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설 2-1] 음악전공학습경험 중 수행성취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음악전공 학습경험 중 수행성취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에 수행성취를 투입하고 종속변인에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수준 선호도,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을 투입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이에 따라 수행성취가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Ⅳ-12>.

<표 Ⅳ-12> [가설 2-1] 수행성취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β	t	p	R^2	F/p	Durbin-Watson
과제수준 선호도	.388	7.583 ***	.000	.151	57.504 /.000	1.967
자기조절 효능감	.303	5.731 ***	.000	.092	32.850 /.000	2.014
자신감	.309	5.842 ***	.000	.095	34.129 /.000	1.806

* p<.05 , ** p<.01, *** p<.001

먼저, 수행성취는 과제수준 선호도를 15.1%(R^2 =.15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검증 결과의 값이 1.967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F값은 57.504, p값은 .000(p<.001)으로 나타나 회귀식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행성취는 자기조절 효능감을 9.2%(R^2 =.09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검증 결과의 값이 2.014로 기

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F값은 32.850, *p*값은 .000(*p*<.001)으로 나타나 회귀식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행성취는 자신감을 9.5%(R^2 =.09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검증 결과의 값이 1.806으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F값은 34.129, *p*값은 .000(*p*<.001)으로 나타나 회귀식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행성취가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과제수준 선호도는 ***β***값이 .388, *p*값이 .000(*p*<.001)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 효능감은 ***β***값이 .303, *p*값이 .000(*p*<.001)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감은 ***β***값이 .309, *p*값이 .000(*p*<.00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행성취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는 채택되었다. 즉, 음악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수행성취가 높아지면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과제수준 선호도,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역시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전공학습경험 중 수행성취가 진로결과기대에 미치는 영향

[가설 2-2] 음악전공학습경험 중 수행성취는 진로결과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음악전공 학습경험 중 수행성취가 진로결과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에 수행성취를 투입하고 종속변인에 진로결과를 투입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그에 따른 진로결과기대의 각 하위요인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Ⅳ-13>.

<표 Ⅳ-13> [가설 2-2] 수행성취가 진로결과기대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β	t	p	R^2	F/p	Durbin-Watson
내재적 결과기대	.381	7.412 ***	.000	.145	54.936 /.000	1.971
외재적 결과기대	.331	6.303 ***	.000	.109	39.731 /.000	1.771

* p<.05 , ** p<.01, *** p<.001

먼저, 수행성취는 내재적 결과기대를 14.5%(R^2 =.14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검증 결과의 값이 1.971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F값은 54.936, p값은 .000(p<.001)으로 나타나 회귀식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행성취는 외재적 결과기대를 10.9%(R^2 =.10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검증 결과의 값이 1.771로 나타나 기준 값인 2와 근접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값은 39.731, p값은 .000(p<.001)로 나타나 회귀식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성취가 진로결과기대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회귀계수의 영향력

을 살펴보면 내재적 결과기대의 β값은 .381, p값은 .000(p<.001)으로 나타났으며, 외재적 진로결과기대의 β값은. 331, p값은 .000(p<.00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행성취는 진로결과기대의 두 하위요인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즉, 음악전공 대학생이 인지하는 수행성취가 높아지면 진로결과기대의 두 하위요인인 내재적 결과기대와 외재적 결과기대 역시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결정의 관계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결정의 관계는 가설 3에 대한 것이다. 가설 3은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진로결과기대와 진로결정 간의 인과관계 및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과기대의 매개효과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가설 3의 변인 간의 관계에 따른 세부적인 검증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가설 3-1]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에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인 과제수준 선호도,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을 투입하였으며, 종속변인에 진로결정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그에 따른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을 23.6%(R^2 =.23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검증 결과의 값은 1.989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F값은 33.240, p값은 .000(p<.001)로 나타나 회귀식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의 확인을 위하여 공차를 살펴본 결과 .798~.934 사이로 나타나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유발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표 Ⅳ-14>.

<표 Ⅳ-14> [가설 3-1]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β	t	p	R^2	F/p	Durbin-Watson	공차
과제수준 선호도	.310	5.692***	.000	.236	33.240 /.000	1.989	.798
자기조절 효능감	.242	4.809***	.000				.934
자신감	.105	1.985*	.048				.843

* p <.05 , ** p <.01, *** p <.001

이러한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과제수준 선호도의 β값은.310, p값은 .000(p<.001)이고, 자기조절 효능감의 β값은.242, p값은 .000(p<.001)이며, 자신감의 β값은 .105, p값은 .048(p<.05)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세 하위요인 모두 진로결정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즉, 음악전공 대학생이 인지하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결정 역시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진로결과기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가설 3-2] 진로결과기대는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로결과기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에 진로결과기대의 두 하위요인을 투입하고 종속변인에 진로결정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에 따른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진로결과기대는 진로결정을 44.3%(R^2 =.44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검증 결과의 값이 1.881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F값은 128.684, *p*값은 .000(*p*<.001)로 나타나 회귀식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의 확인을 위하여 공차를 살펴본 결과 .778로 나타나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유발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표 Ⅳ-15>.

<표 Ⅳ-15> [가설 3-2] 진로결과기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β	t	*p*	R^2	F /*p*	Durbin-Watson	공차
내재적 결과기대	.557	12.251***	.000	.443	128.684 /.000	1.881	.778
외재적 결과기대	.158	3.359**	.001				.778

* *p*<.05 , ** *p*<.01, *** *p*<.001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진로결과기대의 하위요인 중 내재적 결과기대(β=.557, *p*<.001)와 외재적 결과기대(β=.158, *p*<.01)는 진로결정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즉,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과기대가 높으면 진로결정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관계에서 진로결과기대의 매개영향

[가설 3-3]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 진로결과기대는 매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진로결과기대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단계 매개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진로결과기대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3]은 채택되었다 <표 Ⅳ-16>. 단계에 따른 세부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매개분석의 3단계

1단계: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과제수준 선호도(β=.137), 자기조절 효능감(β=.208), 자신감(β=.192)은 모두 진로결과기대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과제수준 선호도(β=.310), 자기조절 효능감(β=.242), 자신감(β=.105)은 모두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매개변수인 진로결과기대가 진로결정에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β=.565) 3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6> [가설 3-3] 진로결과기대의 매개적 영향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진로결과기대 (매개변인)	진로결정 (종속변인)	진로결정 (종속변인)	공차 한계
과제수준 선호도	.114(.137)*	.315(.310)**	.237(.233)**	.784
자기조절 효능감	.196(.208)**	.278(.242)**	.143(.125)**	.892
자신감	.130(.192)**	.087(.105)*	-.003	.814

			(−.003)	
진로결과기대			.689(.565)**	.857
R^2	.143	.236	.510	
F	17.970	33.240	83.641	
p	.000	.000	.000	

<※단계별 기술된 값: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 p<.05 , ** p<.01, *** p<.001)

(2) 매개효과 판단여부

독립변수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을 비교한 결과, 과제수준 선호도의 3단계(β=.233)가 2단계(β=.310)보다 작고, 자기조절 효능감의 3단계(β =.125)도 2단계(β=.242)보다 작고, 자신감도 3단계(β=−.003)가 2단계(β=.105)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 세 변인 모두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세부적으로는 과제수준 선호도(β=.233)와 자기조절 효능감(β=.125)은 진로결정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신감(β=−.003)은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β=−.003)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1단계에서 14.3%, 2단계에서는 23.6%, 그리고 3단계에서는 51%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단계별로 F 값을 보았을 때, 회귀선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차한계 값에서 모든 독립변수들에서는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환경적 맥락,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의 관계

환경적 맥락,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의 관계는 가설4와 가설5의 변인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것이다. 가설4는 환경적 맥락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며, 가설5는 환경적 맥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러한 가설의 세부적인 검증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적 장벽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설 4-1] 환경적 맥락 요인 중 외적 장벽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경적 맥락 요인 중 외적 장벽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독립변인에 환경적 맥락 요인 중 외적장벽을 투입하였으며, 종속변인에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수준 선호도,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외적장벽은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β=-.159, p<.01)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9>.

한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과제수준 선호도(β=-.083, n.s), 자기조절 효능감(β=-.044, n.s)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 따른 세부가설 검증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적 장벽이 과제수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인 외적장벽은 종속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과제수준 선호도를 7%(R^2=.007) 설명하고 있다. Durbin-Watson은 2.003으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판단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F값은 2.267, p값은 .133으로 나타나 회귀식의 모델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7>.

<표 Ⅳ-17> [가설 4-1] 외적 장벽이 과제수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β	t	p	R^2	F/p	Durbin-Watson
과제수준 선호도	-.083	-1.506	.133	.007	2.267 /.133	2.003

* p<.05 , ** p<.01, *** p<.001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아도 β값은 -.083, p값이 .133으로 독립변인인 외적장벽은 종속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과제수준 선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외적 장벽이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인 외적장벽은 종속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을 2%(R^2 =.002) 설명하고 있다. Durbin-Watson은 1.946으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판단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F값은 .628, p값은 .429로 나타나 회귀식의 모델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8>.

<표 Ⅳ-18> [가설 4-1] 외적 장벽이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β	t	p	R^2	F/p	Durbin-Watson
자기조절 효능감	-.044	-.793	.429	.002	.628 /.429	1.946

* p<.05 , ** p<.01, *** p<.001

이에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β값이 -.044, p값이 .429로 외적장벽은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외적 장벽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인 외적장벽은 종속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을 2.5%(R^2 =.025) 설명하고 있다. Durbin-Watson은 1.859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판단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F값은 8.376, *p*값은 .004(*p*<.01)로 나타나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9>.

<표 Ⅳ-19> [가설 4-1] 외적 장벽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β	t	*p*	R^2	F/*p*	Durbin-Watson
자신감	-.159	-2.894**	.004	.025	8.376 /.004	1.859

* *p*<.05 , ** *p*<.01, *** *p*<.001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β값은 -.159, *p*값은 .004(*p*<.01)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적장벽이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외적장벽을 높게 인식하면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부모진로지지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설 4-2] 환경적 맥락 요인 중 부모진로지지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경적 맥락 요인 중 부모진로지지는 부모정서지지, 부모경제지지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다. 독립변인인 부모진로지지가 종속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수준 선호도,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부모정서지지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β=.140, p<.05)과 자신감(β=.129,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부모진로지지가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세부적인 검증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진로지지가 과제수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인 부모진로지지는 종속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과제수준 선호도를 1.8%(R^2 =.018) 설명한다. Durbin-Watson은 2.005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F값은 2.052, p값은 .052로 나타나 회귀식의 모델의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798로 확인되어 모두 기준 값인 .1보다 높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표 Ⅳ-20>.

<표 Ⅳ-20>[가설 4-2] 부모진로지지가 과제수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β	t	p	R^2	F/p	Durbin-Watson	공차
부모정서지지	.120	1.925	.055	.018	2.052 /.052	2.005	.798
부모경제지지	.027	.426	.670				.798

* p<.05 , ** p<.01, *** p<.001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모정서지지는 β값이 .120, p값이 .055으로 나타났고, 부모경제지지는 β값이 .027, p값이 .67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진로지지는 종속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과제수준 선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부모진로지지가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인 부모진로지지는 종속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효능감을 2.9%(R^2 =.029) 설명하고 있다. Durbin-Watson은 1.980으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F값은 4.908, p값은 .008(p<.01)로 나타나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가 .780으로 나와 모두 기준값인 .1보다 높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표 Ⅳ-21>.

<표 Ⅳ-21>[가설 4-2] 부모진로지지가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β	t	p	R^2	F/p	Durbin-Watson	공차한계
부모정서지지	.140	2.260*	.024	.029	4.908 /.008	1.980	.780
부모경제지지	.053	.857	.392				.780

* p<.05 , ** p<.01, *** p<.001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모정서지지는 β값이 .140, p값이 .024(p<.05)로 나타나 독립변인인 부모정서지지는 종속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경제지지는 β값이 .053, p값이 .392로 나타나 독립변인인 부모경제지지는 종속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진로지지 중 부모정서지지가 높아지면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부모진로지지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인 부모진로지지는 종속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을 1.8%(R^2 =.018) 설명하고 있다. Durbin-Watson은 1.801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F값은 2.894, 유의확률은 .057로 나타나 회귀선이 모델의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는 .780으로 나와 모두 기준값인 .1보다 높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표 Ⅳ-22>.

<표 Ⅳ-22> [가설 4-2] 부모진로지지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β	t	p	R^2	F/p	Durbin-Watson	공차한계
부모정서지지	.129	2.065*	.040	.018	2.894 /.057	1.801	.780
부모경제지지	.008	.123	.903				.780

* p<.05 , ** p<.01, *** p<.001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모정서지지는 β값이 .129, p값이 .040(p<.05)으로 나타나 독립변인인 부모진로지지 중 부모정서지지는 종속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경제지지는 β값이 .008, p값이 .903으로 나타나 독립변인인 부모진로지지 중 부모경제지지는 종속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진로지지 중 정서지지가 높으면,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교사지지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설 4-3] 환경적 맥락 요인 중 교사지지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경적 맥락 요인 중 교사지지는 교사지도기술, 정보지지, 정서지지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종속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인 과제수준 선호도,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교사지지 중 정서지지가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β=.171,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표 Ⅳ-25>.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세부적인 검증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사지지가 과제수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인 교사지지는 종속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과제수준 선호도를 7.1%(R^2=.071) 설명한다. Durbin-Watson은 1.975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판단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F값은 9.275, p값은 .000(p<.001)으로 회귀식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가 .417에서 .436으로 나와 모두 기준 값인 .1보다 높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표 Ⅳ-23>.

<표 Ⅳ-23> [가설 4-3] 교사지지가 과제수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β	t	p	R^2	F/p	Durbin-Watson	공차한계
교사지도기술	.134	1.620	.106	.071	9.275 /.000	1.975	.417
교사정보지지	.138	1.482	.139				.417
교사정서지지	.036	.447	.655				.436

* p<.05 , ** p<.01, *** p<.001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교사지도기술은 β값이 .134, p값이 .106으로 나타났고, 교사정보지지는 β값이 .138, p값이 .139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정서지지는 β값이 .036, p값이 .655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지지는 종속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과제수준 선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교사지지가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인 교사지지는 종속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효능감을 5.1%(R^2=.051) 설명하고 있다. Durbin-Watson은 1.974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판단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F값은 6.813, p값은 .000(p<.001)으로 나타나 회귀식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가 .332에서 .436으로 나와 모두 기준 값인 .1보다 높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표 Ⅳ-24>.

<표 Ⅳ-24> [가설 4-3] 교사지지가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β	t	p	R^2	F/p	Durbin-Watson	공차한계
교사지도기술	.159	1.905	.058	.051	6.813 /.000	1.974	.417
교사정보지지	.096	1.020	.308				.332
교사정서지지	.006	.078	.938				.436

* p<.05 , ** p<.01, *** p<.001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교사지도기술의 β값이 .159, p값이 .058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정보지지는 β값이 .096, p값이 .308로 나타났고, 교사정서지지는 β값이 .006, p값이 .938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변인인 교사지지는 종속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교사지지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인 교사지지는 종속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을 2.8%(R^2=.028) 설명하고 있다. Durbin-Watson은 1.798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판단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F값은 4.070, 유의확률은 .007(p<.01)로 나타나 회귀식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가 .332에서 .436으로 나와 모두 기준 값인 .1보다 높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표 Ⅳ-25>.

<표 Ⅳ-25> [가설 4-3] 교사지지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β	t	p	R^2	F/p	Durbin-Watson	공차
교사지도기술	.007	.080	.936	.028	4.070 /.007	1.798	.417
교사정보지지	.020	.211	.833				.332
교사정서지지	.171	2.067*	.040				.436

* p<.05 , ** p<.01, *** p<.001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교사정서지지는 β값이 .171, p값이 .040(p<.05)로 나타나 교사정서지지는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지도기술은 β값이 .007, p값이 .936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정보지지는 β값이 .020, p값이 .83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지도기술과 교사정보지지는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교사정서지지가 높아지면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외적 장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가설 5-1] 환경적 맥락요인 중 외적 장벽은 진로결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경적 맥락요인 중 외적 장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독립변인에 환경적 맥락요인 중 외적 장벽을 투입하였으며, 종속변인에는 진로결정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외적장벽은 진로결정을 2.7%(R^2 =.02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은 1.966으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아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F값은 8.950, p=.003(p<.01)으로 나타나 회귀식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Ⅳ-26>.

<표 Ⅳ-26> [가설 5-1] 외적 장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β	t	p	R^2	F/p	Durbin -Watson
외적 장벽	-.164	-2.992***	.000	.027	8.950 /.003	1.966

* p<.05 , ** p<.01, *** p<.001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β값은 -.164, p값은 .000(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적장벽은 진로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1]은 채택되었다. 즉, 외적 장벽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은 낮게 측정된다고 할 수 있다.

5)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가설 5-2] 환경적 맥락요인 중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경적 맥락요인 중 부모진로지지는 부모정서지지, 부모경제지지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다. 독립변인인 부모진로지지의 각 하위요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을 44.3%(R^2 =.44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은 1.881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아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F값은 128.684, p=.000(p<.001)으로 나타나 회귀식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가 .778로 나와 모두 기준 값인 .1보다 높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표 Ⅳ-27>.

<표 Ⅳ-27> [가설 5-2]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β	t	p	R^2	F/p	Durbin-Watson	공차한계
정서지지	.230	3.938***	.000	.443	128.684 /.000	1.881	.778
경제지지	.209	3.579***	.000				.778

* p<.05 , ** p<.01, *** p<.001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모진로지지 중 정서지지의 β값은 .230, p값은 .000(p<.001)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진로지지 중 경제지지의 β값은 .209, p값은 .000(p<.00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진로지지의 두 하위요인은 모두 진로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2]는 채택되었다. 즉, 부모진로지지를 높게 인식하면 진로결정 또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6) 교사지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가설 5-3] 환경적 맥락요인 중 교사지지는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경적 맥락요인 중 교사지지는 교사지도기술, 정보지지, 정서지지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다. 독립변인인 교사지지의 각 하위요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을 14.8%(R^2 =.148) 설명하고, Durbin-Watson은 1.915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아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F값은 18.616, p=.000(p<.001)으로 나타나 회귀식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는 .332에서 .436으로 나와 모두 기준 값인 .1보다 높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표 Ⅳ-28>.

<표 Ⅳ-28> [가설 5-3] 교사지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β	t	p	R^2	F/p	Durbin-Watson	공차한계
지도기술	.181	2.276*	.023	.148	18.616 /.000	1.915	.417
정보지지	.081	.905	.366				.332
정서지지	.166	2.130*	.034				.436

* p<.05 , ** p<.01, *** p<.001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교사지지 중 지도기술의 β값은 .181, p값은 .023(p<.05)로 나타났고, 교사지지 중 정서지지의 β값이 .166, p값은 .034(p<.05)로 나타나 교사의 지도기술과 정서지지는 진로결정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지지 중 정보지지의 β값은 .081, p값은 .36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3]은 부분 채택되었다. 즉, 교사지지 중 지도기술과 정서지지가 높으면 진로결정 또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V. 논의

1. [연구문제 1]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연구문제1에 따라 전공학습경험(교육기간, 콩쿠르, 연주경험, 음악활동)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기간, 콩쿠르 수상경력, 연주경험, 음악활동에 따른 인지요인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교육기간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차이

전공교육기간에 따라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효능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F=2.415, p=.049)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음악적 자기효능감 전체(F=.259, p=.904)와 진로결과기대(F=.976, p=.421)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기간에 따라 인지변인에 차이가 있다고 한 페리 외(Ferry, et al., 2000)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지만 음악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전공경력에 따른 자기효능감, 연주몰입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장근주, 심소연, 2013; 안소영, 2016; Zelenak, 2019)와는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가 전공에 따른 특성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부전공에 따른 전공교육기간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악, 현악, 성악, 작곡, 피아노의 총 다섯 가지 음악전공에 대한 결과를 다루었다.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세부 전공에 따라 그 전공교육기간이 다른 경향이 있으므로, 전공교육기간에 따른 인지요인의 차이를 살펴봄에 있어 이러한 세부전공 요인 또한 고려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세부 전공에 따른 교육기간의 비율을 살펴보면 관악

(41%), 성악(52%), 작곡(39%)에서는 5~10년이 가장 많았고, 현악(39%), 피아노(40%)에서는 10~15년이 가장 많았다(부록Ⅲ참조). 따라서 교육기간에 따른 전공의 경향성에서 기간의 범주가 길수록 현악, 피아노 학생들의 비율이 높고, 기간이 짧은 범주에서는 성악과 작곡의 비율이 높고, 관악의 경우 고루 분포해있으므로 교육기간에 따른 인지요인을 살펴보는 것에 각 세부 전공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육기간과 관련된 인지요인의 측정에 있어 기간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주연(2016)의 연구에서는 조기음악교육에서의 경험기간과 교육경험에서의 강요경험, 즐거움 유무, 행복감 유무의 질적 차이를 함께 측정하였는데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업의 지속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습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한 질적 향상 방안에 대한 접근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유의수준 및 사후검증결과를 근거로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경험한 전공교육기간이 길다고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인지하는 것이 높거나 음악활동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높은 결과기대를 가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가원(2006)은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학부에서의 전공학업을 대학원을 위한 과도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통계적 검증은 '음악전공학업의 지속' 이 진로의 결정 및 구체적 수행에 있어 어떠한 교육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나. 콩쿠르 수상경력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차이

콩쿠르 수상경력에 따라 집단 간 진로결과기대의 모든 하위요인에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조절효능감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보람(2014)의 연구에서 초등생의 콩쿠르 수상경력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을 지지하는 한편, 연구의 대상을 음악전공생

으로 확장하고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변인 간 관계와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음악전공 대학생들에게 콩쿠르는 자신의 음악적 경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음악전공자들이 대학입학 이전부터 입학 이후까지 콩쿠르 도전을 통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음악가로서 인정을 받기 위한 경력을 쌓는다. 그러므로 콩쿠르 수상경력이 많을수록 자신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음악적 진로에 대한 결과기대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콩쿠르 수상경력과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관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진로결과기대의 두 하위요인인 내재적 결과기대와 외재적 결과기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신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콩쿠르 수상경력이 수행에 대한 일종의 성취 지표를 의미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예상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수상경력이 많을수록 음악활동을 위한 음악적 경력이 축적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에 따라 자신감 또한 높아지거나 횟수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 자기조절 효능감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신감에 대한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난 결과에 대해 콩쿠르라는 학습경험의 과정적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다.

콩쿠르는 학습이나 음악적 경력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상경력을 쌓기 위한 많은 도전을 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취지표를 인식함에 있어 수상경력이라는 결과는 진로결과기대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경험의 과정적 측면을 반영하는 자기조절 효능감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서적 측면과 관련되는 자신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학습에서 콩쿠르라는 요인은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이나 진로결과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과제를 도전하고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정서적 지지방안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연주경험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차이

연주경험은 집단 간의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과제수준 선호도,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두 하위요인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학습경험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악학습에서 연주활동, 발표 등의 음악적 경험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박지현(2009)의 결과와 일치하는 한편, 음악전공 영역에서 학습경험 중 연주경험이 음악적 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진로결과기대에도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연주경험을 특정 상황에 제한하여 측정한 것을 바탕으로 대학생 시기에 이루어지는 연주경험이 음악전공 대학생들에게 가지는 의미와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연주경험은 음악전공자에게 학습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학습경험요인이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주수업은 학습적으로 학생들이 연습하거나 배우고 있는 레파토리의 기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연주의 경우에는 보다 음악가로서 자신의 음악활동에 대한 내용이 되거나 사회적 수요와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음악가로서 어떠한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음악적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연주경험은 위클리, 향상음악회 등의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연주수업에서의 학습경험을 제외한 그 밖의 다양한 연주경험에 대한 측정으로 이루어졌다. 측정된 연주경험의 의미는 앞서 언급한 학습적 기량향상의 목적보다는 음악가로서 직업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주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 연주된 음악의 장르나 레파토리가 학내에서의 연주보다 다양하고 본인의 관심으로 인한 것이거나 사회적 수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연주경험은 대학생 이라는 시기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음악활동 및 음악가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경험으로 교육에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특정 경험으로 제한하여 조사된 연주경험과 음악적 자기효능

감, 진로결과기대의 세부적인 관계에서 한 가지 더 새롭게 주목할 만한 것은, 연주경험이 전공학습경험 중 자신감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유일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전공학습경험은 대부분 자기조절 효능감에만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주경험의 경우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에서 연주경험은 학생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경험 요인으로써 이들의 음악가라는 진로목표를 구체화시키고 음악가 정체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음악활동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차이

음악활동은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음악학습에서 다양한 음악적 활동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박지현(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진로결과기대의 하위요인 중 외재적 결과기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음악활동은 음악전공자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활동에 대한 것으로 학교내부 및 외부의 마스터클래스, 음악캠프, 음악 페스티벌과 같은 음악관련 활동 및 연수의 횟수를 측정한 것이다. 이러한 음악활동의 경우, 전공학습경험으로써 수행될 때 미치는 외부요인의 영향을 통해 일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앞서 살펴본 콩쿠르 수상경력은 도전 과제로써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수행의 성취적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마스터클래스, 음악캠프, 음악페스티벌과 같은 음악활동은 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비용, 오디션, 기회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환경적 요인과 관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교육적 지원의 관점에서 학교차원에서 다양한 음악활동의 기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2. [연구문제 2]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연구문제2에 따라 전공학습경험 중 수행성취가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행성취는 인지요인의 형성에 미치는 정보의 원천으로써 학습에서의 성취감이나 성공경험을 의미한다.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수행성취는 음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모든 하위요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영역에서의 직접적인 성취경험이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Ferry et al., 2000; 박지현, 2009; 김유경, 2012; Zelenak, 2019).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행성취경험을 음악전공실기학습에 적용하여 음악전공 영역에서의 수행성취와 인지요인의 관계를 새롭게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학습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개인의 전공실기능력일 것이다. 이에 따라 수행성취경험의 측정 또한 전공실기능력과 관련된 대학에서의 수업을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개인이 인지하는 음악능력의 수행 및 성취에 대해 측정하였다.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지요인이므로,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행성취가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수행성취경험과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하위요인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면, 과제수준 선호도($\boldsymbol{\beta}$=.388***)가 가장 높고 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기조절 효능감($\boldsymbol{\beta}$=.303***)과 자신감($\boldsymbol{\beta}$=.309***)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제수준 선호도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음악전공에서의 과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습적 능력에 대한 인지적 측면을 측정한 것이므로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의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의 전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자신감은 연주나 작품발표, 실기시험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 스트레스를 측정한 것이다. 자신의 전공에 대한 수행성취가 높으면 자신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신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음악전공에서의 연주, 발표, 실기시험 등의 평가방식이 실연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서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지지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결과기대는 내재적 결과기대, 외재적 결과기대의 두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진로결과기대와 수행성취의 관계에서도 하위요인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결과기대는 진로선택 및 행동의 수행 자체에서 오는 자기지향적 결과를 측정한 것인데 그 영향력이 β=.381***로 나타나 외재적 결과기대(β=.331***)와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전공 대학생들은 수행에 대한 성취가 높았을 때, 진로를 선택 및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수입, 직업의 안정성, 사회적 인정과 같은 외적 결과보다는 내재적 결과를 더 높게 인식하며, 음악가라는 직업이 가지는 외적 조건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전공 졸업자들의 취업률, 직업에 대한 기대와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음악가들의 취업률이나 음악가로서 성취하고자 했던 직업에 대한 기대는, 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수행성취를 이루고 도달했느냐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의 지원, 기회의 구조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높은 수행성취를 통해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와 같은 인지요인을 높이는 것도 진로결정 및 발달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겠으나, 각 하위요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직업에 대한 내적·외적 기대 또한 진로가 직업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음악가로 활동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연구문제 3]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연구문제3은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과기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의 사이에서 진로결과기대의 매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이 진로목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결과들(Lent et al, 1994; Lent & Brown, 2013; Ferry et al., 2000; Fouad et al., 2002),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정(+)적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이성식, 정철영, 2007; 강영숙, 2015; 전미리, 김봉환, 2015; 정미경, 2015),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진로결정과 영향변인을 검증한 연구의 결과(어윤경, 2019; 연규진 외, 2019)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전공이라는 특정영역의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에도 동일한 영향력을 검증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든 하위요인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역시 높아지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제수준 선호도($\boldsymbol{\beta}$=.310***)가 가장 높고, 자기조절 효능감($\boldsymbol{\beta}$=.242***)이 그 중간의 수치를 보이며, 자신감($\boldsymbol{\beta}$=.105*)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행성취와 음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각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하였을 때, 과제수준 선호도에 비해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과도 비슷한 맥락인 것으로 해석되며, 음악전공

대학생의 자신감과 관련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에서의 평가란, 학습자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닌 개인의 도움과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고 작용했을 때 그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 음악의 경우, 전공의 특성으로 평가방식이 실연에 의해 이루어지고 결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학생들은 평가를 보다 직접적인 경쟁상황으로 인식하여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평가나 평가의 결과에 대해 스트레스, 불안감 등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평가에서는 연주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평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평가를 보다 학습의 과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가의 방식이나 활용방안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더불어 자신감과 관련되는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긍정적으로 지지되어야 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서 자신감이라는 인지요인은 관련 변인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변화할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닌다(Lent et al, 1994).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틀을 적용하여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맥락에서 각 변인들을 살펴보면,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의 관계는 두 변인의 작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변인이나 매개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선행변인이 되는 수행성취라는 학습경험이 자신감이라는 인지요인에 영향을 미치면, 그러한 자신감이 다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보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자신감은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맥락에서 개입할 수 있는 환경적 맥락과의 관계를 통한 지지 방안을 4절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나. 진로결과기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과기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과기대와 진로결정의 관계는 렌트(Lent et al., 1994)의 모형이 제안된 이후 주로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다루어졌다. 하지만 페리 등(Ferry et al., 2000)의 연구결과에서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가 진로결정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고, 김유경(2012)의 연구에서도 수정된 모델에서 진로결과기대가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진로결정과 관련 변인을 탐구한 연구(어윤경, 2019; 연규진 외, 2019;)에서도 대학생의 진로결과기대가 진로결정수준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음악전공영역에서의 진로결과기대와 진로결정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진로결과기대의 두 하위요인의 영향력이 상반된 양상으로 나타나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과기대에 대한 특이점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과기대의 두 하위요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내재적 결과기대($\boldsymbol{\beta}$=.557***)의 영향력이 외재적 결과기대($\boldsymbol{\beta}$=.158**)보다 약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에 대한 설명력(R^2 =44.3)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대생들이 음악가라는 진로에 대한 자기 지향적 결과인 내재적 결과기대와 직업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기대인 외재적 결과기대를 인지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결과기대의 상반된 양상은 앞서 논의한 수행성취와 진로결과기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수행성취에 대한 내재적 결과기대($\boldsymbol{\beta}$=.381***)의 영향력이 외재적 결과기대($\boldsymbol{\beta}$=.331***)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진로결정에 대한 진로결과기대의 두 하위요인에 대한 결과를 지지한다.

음악전공 분야에서 진로결과기대와 진로결정의 영향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15] 비슷한 맥락에서 연구된 전공 선택의 내적·외적 동기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정환호(2016)는 음대생의 전공선택요인을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공선택요인 중 가장 높게 측정된 요인은 흥미, 재능, 음악에 대한 열정 등 내적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 동기를 의미하는 취업, 진로, 수입의 보장 등의 영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전공자들의 진로결과기대는 국내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직업의 안정성이나 취업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쳐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음악 전공자들의 취업률은 전체 취업자 및 예술 분야 취업자에 비해 20% 가량 낮은 취업률을 보이며, 프리랜서의 비율 또한 매우 높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특정 진로를 선택할 때, 그 직업이 가지는 내적 결과기대 또는 외적 결과기대를 반영한다고 하였으며(Lent et al., 1994; 공윤정 외, 2017), 외재적 결과기대는 직업에 대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다. 따라서 외재적 결과기대가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낮게 나타난 것은 진로결정에 미치는 직업적 여건, 기회와 같은 현실적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음악전공자들의 진로선택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음악에 대한 내적 동기의 영향으로 전공을 선택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음악가로서의 활동을 자신의 진로목표로 가진다. 하지만 졸업자들의 부진한 취업률이나 직업적 기회 및 여건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그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며 진로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선택하거나 확신을 가지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외재적 결과기대가 내재적 결과기대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음악전공자들의 진로선택과정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업과 관련된 현실적 여건 및 진로결정의 구체화에 대한 어려움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5)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과기대와 진로결정을 다룬 선행연구의 탐색을 위해 RISS, SAGE Journals 등의 학술저널DB와 음악교육과 관련된 온라인저널에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진로결과기대와 진로결정을 다룬 연구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음악가의 직업에 대한 기대를 다룬 연구만 찾을 수 있었다.

다.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에서 진로결과기대의 매개효과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기본가정과 일치한다(Lent et al., 1994; Lent & Brown, 2013). 진로결과기대의 매개효과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 따라 부분매개, 완전매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제수준 선호도 및 자기조절 효능감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는 진로결과기대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자신감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이 진로결과기대를 매개로 진로결정에 미치는 양상에 따라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진로결과기대($\boldsymbol{\beta}$=.565**)와 각 하위요인의 관계는 과제수준 선호도($\boldsymbol{\beta}$=.233**)가 가장 높고, 자기조절 효능감($\boldsymbol{\beta}$=.125**), 자신감($\boldsymbol{\beta}$=−.003)으로 나타나 자신감의 영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던 과제수준 선호도, 자기조절 효능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인 자신감과 비교하여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고, 매개효과를 통해서도 자신감은 다른 하위요인과 비교하여 낮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4절에서 환경적 맥락과 관련된 자신감의 지지방안에 대한 논의를 후술하고자 한다.

라.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영향에 대한 종합적 논의

본 연구에서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의 모든 하위요인은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립 변인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들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내재적 결과기대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외재적 결과기대와는 그 차이가 크다. 또한 음악적 자기효능감에서는 과제

수준 선호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며,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의 순서로 나타나 자신감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양상은 2절에서 수행성취와 음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관계에서 나타난 양상과 비슷하다. 따라서 수행성취가 선행변인의 개념으로 측정된 것을 고려하면 수행성취,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결정의 관계는 상보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연구문제 4]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연구문제4에 따라 환경적 맥락이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환경적 맥락 중 외적 장벽,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에 대한 결과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가. 외적 장벽이 음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환경적 맥락 중 외적 장벽이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적 장벽은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과 진로결정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부(-)적으로 유의하다는 연구(손은령, 손진희, 2005; 오은주, 2014; 정미경, 2015), 외적 장벽이 진로결정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손은령, 2002; 이성식, 정철영, 2007; 전미리, 김봉환, 2015; 연규진 외, 2019)의 결과와 일치한다.

외적 장벽과 관련하여 음악적 자기효능감이나 진로결정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음대생이 지각하는 내적, 외적 진로장벽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의 종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음대생의 진로장벽을 조사한 연구들에서 이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진로·직업조건의 갈등, 미래불안, 경

제적 어려움, 직업정보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슬, 2016; 정환호, 2016; 장명진, 2019),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한편, 상반되게 나타나는 지점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이슬(2016)의 연구에서는 '진로 및 직업 조건의 갈등'이 진로태도성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희망직업에 대한 외적 요인이 진로결정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전공, 학년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에서의 대상학교 또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16].

또 다른 한 가지는, 측정에 사용된 연구도구로 인한 가능성이다. 두 연구에 사용된 척도 문항을 살펴보면, 그 구성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이슬의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태도성숙 척도에서 진로 및 직업 조건의 갈등이라는 하위요인은 진로결정에 미치는 '사회적 인정의 어려움', '적은 보수로 인한 어려움'을 측정하는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했던 '제한적인 일자리', '개인의 외적 음악경력', '집안의 경제적 사정'을 의미하는 외적장벽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와의 결과 차이는 일반적 특성이나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내용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음악전공자들과 관련된 '진로나 직업의 조건에 의한 갈등'의 개념을 다룸에 있어 본 연구에서 측정한 희망 직업의 외적 요인과 선행연구에서 다뤘던 진로·직업 갈등 요인은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였을 때, 음악전공 대학생의 외적 장벽은 선행연구에서 다뤘던 음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

16)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음악전공의 입학정원이 공개된 7개교 중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6개교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이슬(2016)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선정기준에 대해 "서울 지역 4년제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라고 밝혔다(이슬, 2016 : 20).

며, 이들의 진로에서 희망직업을 방해하는 제한된 오디션기회 및 일자리, 개인의 음악적 경력이나 집안의 경제적 사정 등의 외적 장벽요인은 진로결정 및 진로결정과 관련되는 자신감(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음악전공생들이 자신의 진로결정에서 외적 장벽을 높게 인지하면 진로결정이 감소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신감 또한 감소되므로 외적 장벽(환경적 맥락)과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의 관계는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부모진로지지가 음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환경적 맥락요인 중 부모진로지지가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정서지지는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경제지지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에는 부모의 정서지지와 경제지지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의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Sichivitsa, 2002; 정미예, 조남근, 2011) 및 부모진로지지가 진로목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전미리, 김봉환, 2018)와 일치하며, 앞선 연구 결과에서 낮게 측정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변인을 확인한 것에서 의의가 있다.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은 본 연구의 5장 2절, 3절에서 다루었던 수행성취, 진로결정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하위요인과 비교하여 그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외적장벽과의 관계에서도 부(−)적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방안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그러므로 환경적 맥락 중 부모정서지지가 자신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음악전공생들의 자신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한 것에서 주목할 만하며, 부모님의 정서지지를 높게 인식하면 학생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맥락 중 부모진로지지의 두 하위요인인 정서지지와 경제지지의 영향력(β=.230***/.209***)과 설명력(R^2 =.443)이 진로결정과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음악학습에서 부모지지 및 가정환경요인이 음악의 수행과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주요한 예측 변인인 것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진로결정에도 주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새롭게 검증된 결과이며, 따라서 부모진로지지요인은 학생들의 음악학습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교사지지가 음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환경적 맥락요인 중 교사지지가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정서지지가 자신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지지와 진로결정의 관계에서는 교사의 지도기술과 정서지지가 진로결정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와 같이 학생에게 중요한 사람의 지지, 기대, 관심이 학생의 자기효능감이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Murdock & Miller, 2002; 박지현, 2009), 선생님과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높은 수준의 진로계획과 직업기대를 가진다는 연구결과(McWhirter et al., 1998)와 일치한다.

음악분야에서 교사의 지지와 진로결정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관련된 유사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음악학습에서 교사의 지지는 음악흥미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진다고 하였고(권슬기, 2016),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흥미모형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흥미를 매개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Lent et al., 1994; 김유경, 2012). 이를 근거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매커니즘에서

교사의 지지와 음대생의 진로결정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음악에 대한 흥미는 음악학습에 있어서 주요한 내적동기로 작용하는데, 교사의 지지는 음악학습 및 흥미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음악흥미는 다시 음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를 거쳐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사 요인, 음악흥미, 음악교육경험으로 인한 인지요인, 진로결정의 관계는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그러므로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에서 교사의 지지는 음악에 대한 흥미나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사의 지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보았던 부모지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주목할 만하다. 부모진로지지의 경우 부모의 정서지지가 경제지지보다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지지에서는 교사의 지도기술이 정서지지보다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교사의 역량에는 학생에 대한 정서지지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지도기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사지지 중 정보지지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에 대해서도 교육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부족은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공통적인 진로장벽 중 하나였다. 일반적으로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자가 학생에게 적합한 직업정보, 진로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도 생각된다. 하지만 음악과 관련된 직업의 사회적 여건, 기회, 일자리가 협소한 부분을 고려하면, 교수자의 입장에서 제시해줄 수 있는 음악활동과 관련된 직업 및 직업대안은 한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지지해줄 수 있는 학교차원의 진로교육 및 정책적 지지방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환경적 맥락의 영향에 대한 종합적 논의

본 연구에서 음대생들의 환경적 맥락은 희망진로에 대한 외적 장벽,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환경적 맥락의 종합적인 영향력 비교를 통한 음대생의 자신감과 진로결정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환경적 맥락 중 외적 장벽과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적 장벽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신감(β=−.159**)이 낮아지는데 교사정서지지(β=.171*), 부모정서지지(β=.129*)를 높게 인식하면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과의 관계에서도 외적 장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β=−.164***)보다 부모정서지지(β=.230***), 부모경제지지(β=.209***)의 영향력이 높으며, 교사지도기술(β=.181*), 교사정서지지(β=.166*) 또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자신감이나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외적장벽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모님의 정서적, 경제적 지지나 교수자의 지도기술, 정서지지를 통해 외적 장벽으로 인한 영향력은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I. 결론

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규명한 연구문제를 토대로 각 요인들의 상보적 관계 안에서 음악전공이라는 특정 영역에서 나타난 특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악 전공자의 진로결정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교육적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 및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음악전공학습경험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전공학습경험은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의 선행변인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두 인지요인은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학습경험 중 콩쿠르 수상경력, 다양한 연주경험 및 음악활동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수행성취는 두 인지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음대생의 전공학습경험과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관계에서는 콩쿠르 수상경력, 다양한 연주경험 및 활발한 음악활동, 전공에 대한 성취경험을 통해 전공과 관련된 밀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개인의 진로결정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전공학습경험의 세부 결과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콩쿠르 수상경력, 연주경험 두 학습요인은 모두 진로결과기대의 두 하위요인에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주요학습요인이라 할 수 있다. 콩쿠르는 실기능력의 수행성과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자신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양한 연주경험은 유일하게 음악적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 에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학습경험에서 콩쿠르와 같은 과제를 도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양한 연주경험이 음악가적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음악가로서의 진로활동 대안을 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많은 학생들에게 마스터클래스, 음악캠프, 음

악페스티벌 등의 음악활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행성취는 개인에 따른 인지수준이 판단 기준이 되므로,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환경적 맥락 중 교사의 정서지지가 학생의 자신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교사의 지도기술이 진로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전공실기 학습의 형태가 1:1 레슨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근거로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수행성취와 진로결정에서 교사요인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감은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그 영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서 자신감이라는 인지요인은 관련 변인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변화할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니는데,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자신감은 실기능력과 관련된 평가에서의 정서적 불안, 스트레스를 통해 측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신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평가의 교육적 의미와 그에 따른 방식 및 활용방안의 재고가 필요하다. 음악적 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이 향상되는 것은 진로결정뿐만 아니라 직업적 성취에도 영향을 미쳐 음악가로서 활동하고 소통하는 것에도 긍정적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진로결과기대와 진로결정의 관계에서는 내재적 결과기대의 영향력이 외재적 결과기대보다 4배 가량 높아 그 차이가 크다. 이러한 변인 간 관계는 선행변인인 수행성취와 진로결과기대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음대생의 진로결과기대의 인식에서 사회적 인정, 경제적 보상을 의미하는 외재적 결과기대의 영향력이 자기지향적 결과를 뜻하는 내재적 결과기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음악가라는 직업의 현실적 여건이 좋지 않음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악전공자들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진로선택 시기나 영향을 살펴보면, 전공을 위한 학습의 시작시기 및 전공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루어지고, 전공의 선택에는 재능이나 흥미, 환경적 요소의 영향이 크다. 따라

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취업의 기회, 직업의 안정성 등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외재적 결과기대와 같은 현실적 요인이 고려되기 어렵다.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진로결정은 자기이해, 직업세계의 이해, 합리적 의사결정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사회적, 교육적 지지방안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음악전공생들 역시 진로에 대한 내재적 결과기대 및 외재적 결과기대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는 음악가로 활동하는 외적 조건, 기회와 관련된 정책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적으로는 음악전공생들의 진로발달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대학졸업 이후의 진로결정은 자신의 능력과 환경적 맥락에 대한 이해, 외재적 결과와 같은 현실적 요인,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진로대안이 진로와 직업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위한 교육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맥락과 음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외적 장벽은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사의 정서지지와 부모의 정서지지가 자신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적 맥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 정서지지가 가장 높고, 외적 장벽의 영향력은 그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환경적 맥락이 가지는 종합적인 영향력의 측면에서 외적 장벽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각 변인들의 관계가 이들의 진로결정을 위한 교육적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사지지 중 정보지지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도기술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근거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지지해줄 수 있는 학교차원의 진로교육, 음악관련 직업정보 지지방안, 교수자들의 지도기술 및 교수역량, 효과적인 교수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더욱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제언

첫째,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학습과 진로결정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음악전공자의 진로결정은 이들의 진로발달과정에 작용하는 전공특성, 학습경험, 인지요인의 특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이 고려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구체적 내용에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학습경험 및 수행성취를 위한 교육의 질적 강화, 음악가적 정체성의 구체화, 직업 선택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선택요인, 직업가치관,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객관적 시각,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음악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상담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진로결정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 역동적 과정을 거친다. 음악전공자의 진로결정 또한 음악에 대한 재능, 흥미 이외에도 전공능력에 대한 효능감, 음악가라는 진로에 대한 내재적·외재적 결과기대, 사회적 장벽 또는 지지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겪게 될 수 있는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음악전공 대학생들 또는 그와 비슷한 예체능계열 학생들에 대한 차별화된 진로상담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적 관점에서 음악전공자들의 전공학습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적 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많은 음악인들이 겪어온 직업에 대한 갈등과 어려움을 다(多)학문적 관점을 적용한 이론의 틀 안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고, 선행연구와의 종합적 논의를 통해 진로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전공의 특이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대생의 전공학습경험이 진로결정과 구체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후속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진로결정과 관련된 변인의 특이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거나 분석방법의 정밀도를 높여 수행되기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강영숙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진로소명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고홍월 (2007).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성숙수준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교육부 (2015). **2015개정 교육과정 별책22 – 예술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제2015-74호).**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권슬기 (2016).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계 및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음악흥미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은 (2011). **대학생 진로결정-불편 집단의 하위유형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주 (2011). **청소년 진로포부 영향 요인 구조 분석.**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국현 (2016).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와 개인 및 대학 변인의 위계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보람 (2014). **음악 콩쿠르 참가 경험이 초등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9**(1), 311-333.

김봉환, 강은희, 강혜영, 공윤정, 김영빈, 김희수, 선혜연, 손은령, 송재홍, 유현실, 이제경, 임은미, 황매향 (2018). **진로상담 2판.** 서울: 학지사.

김석우, 최태진, 박상욱 (2015).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김설아 (2012). **무용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

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김유경 (2012). **대학에서의 사회복지실천 학습경험이 학생들의 사회복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진관 (2014).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 유지와 정서적 특성, 사회인지 요인, 학업만족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용 (2016). **상담학 사전.** 서울: 학지사.
남수진 (2017).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결정수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효빈 (2017). **음악중점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악 전문 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명숙 (2017).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공학, 32**, 73-87.
박세진 (2019).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간의 구조적 관계.**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세진, 김일섭, 가종민 (2019). 음악적 자기효능감 척도 타당화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561-577.
박아청 (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 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박지현 (2009).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음악경험, 교사기대, 부모지지 및 음악환경의 역할 분석. **음악교육공학, 8**, 153-167.
백고은, 이지예 (2017).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음악교육연구, 46**(4), 21-45.
백지숙 (2006).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진로미결정 이유, 진로성숙

도와 대학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1-10.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2003). **음악대학 졸업생의 취업실태 및 취업의식.** 서울: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손은령 (2002).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과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5**(2), 73-86.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17**(2), 399-417.

안소영 (2016). **음악전공 학생들의 연주 몰입에 대한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난미 (2006). **한국대학생의 사회인지 진로선택 모형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양명희, 박명지, 김희정 (2010).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 직업흥미 수준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9**(2), 137-156.

양은주 (2017).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몰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예술교육연구, 15**(4), 55-74.

어윤경 (2019).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기반한 학습경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흥미와 진로의사결정의 구조적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 26**(4), 49-68.

연규진, 양지웅, 정주리 (2019).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구. **교육연구, 41**(2), 1-22.

오은주 (2014).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4), 31-58.

윤효진 (2008). **예술 고등학교 음악교육현장에 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가원 (2006). 취업지도를 위한 음악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 연구: 바이올린 연주 전공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31**, 89-117.

이명화 (2015). **공과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학효능감과 결과기대, 흥미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보아라 (2012). 관현악전공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조사 및 전공교육과정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희 (2009). 대학생의 부모 진로지지 척도 개발 연구. **상담학연구, 10**(3), 1539-1553.

이성식, 정철영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4), 83-109.

이슬 (2016).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승민 (2014).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탐색 경험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개발역량의 상관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주연 (2016). 조기음악교육 경험의 기간과 질에 따른 음악효능감의 차이. **음악교육연구, 45**(2), 223-249.

이지영 (2012). **이해를 위한 교수를 적용한 음악창작수업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채식 (2005). **청소년 리더십기술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 **진로성숙도 개발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은미, 강혜영, 고홍월, 공윤정, 구자경, 김봉환, 손은령, 손진희, 이제경, 정진선, 황매향 (2017). **진로진학상담기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장근주, 심소연 (2013). 대학 음악 전공자들의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의 상관관계. **음악교육연구, 42**(4), 101-120.

장근주, 안애란 (2010). 서울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음악과정의 현

황. **예술교육연구, 8**(3), 1-18.

장근주, 조대현 (2011). 음악교사의 수업지도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음악교육공학, 12**, 17-31.

장명진 (2019).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조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선철 (2004).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533-551.

전미리, 김봉환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성격 5요인과 인지행동적 변인의 영향-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 **진로교육연구, 28**(4), 41-57.

전미리, 김봉환 (2018). 사회인지 진로 자기관리 모형에 따른 부모진로지지와 대학생의 성실성·개방성 및 진로탐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30**(2), 443-462.

전윤미 (2007). **음악교육시기가 음악전공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미경 (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간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3), 85-106.

정미예, 조남근 (2011). 사회인지진로이론적 관점에서 본 대학생의 진로만족 모형. **청소년학연구, 18**(10), 295-316

정민, 노안영 (2006). 대학생의 인생과제를 중심으로 한 생활양식 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47-567.

정완규, 권수미 (2008). 우리나라 대학원에서의 피아노교수학 석사과정 운영 실태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 *이화음악논집, 12*(2), 27-62.

정우현, 구병림, 강희돈, 정철영, 손준종, 김호동, 김선희 (1988).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발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진원 (2007). 음악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조절학습요소에 대한

이해와 교수-학습적 시사점. **음악교육연구, 32,** 127-158.
정환호 (2016).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과 진로선택 및 진로장벽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주희선 (2013a).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과 진로선택 및 진로장벽 분석. **음악교육연구, 42**(4), 187-208.
주희선 (2013b). 음대생들의 희망직업과 진로 자기효능감 조사. **예술교육연구, 11**(3), 107-120.
차혜윤 (2016). **음악대학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선월 (2014). **음악 중점고등학교 운영실태 분석 및 문제점 개선 방안.**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진호, 정완규 (2009).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선택요인 분석과 졸업 후 진로 조사. **음악교육연구, 37**, 215-244.
추상희, 최진호 (2018). 음악대학 관현악전공생들의 전공선택요인 및 진로준비행동 분석. **음악교수법연구, 19**(2), 197-219.
추상희 (2020). **관현악 전공생들의 전공선택요인·진로준비행동·진로결정수준 분석.**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탁진국, 이기학 (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경영연구, 1**(1), 167-180.
정우현, 구병림, 강희돈, 정철영, 손준종, 김호동, 김선희 (1998).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발전방안 연구(기본연구 98-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7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DB 연계 취업통계조사.**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8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8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통계자료 SM 2018-05).** 교육부.
한정수 (2017). **작곡전공 음대생들의 20세기 음악학습과 이에 따른 진**

로선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주연 (2012). **문화생산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양고전음악 전공자들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지연 (2018). 음악대학생들의 전공별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47**(2), 265-290.

홍혜경 (1998).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Bandura, A. (1977). Self 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y Review, 84,* 191-215.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on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H. Freeman Company.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옮김. 1999. 교육과학사: 서울시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399-410.

Bogunović, B., Dubljević, J., & Buden, N. (2012). Music education and musicians: Expectations, course and outcomes. Zbornik Instituta za pedagoska istrazivanja, 44(2), 402-423.

Çevik, D. B., & Bayoglu, B. (2018). The Occupational Expectations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 Conservatory Piano Majors. International Education Studies, 11(1), 1-10.

Ferry, T. R., Fouad, N. A., & Smith, P. L. (2000). The role of family context in a social cognitive model for career-related choice behavior: A math and scienc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 348-364.

Fouad, N. A., Smith, P. L., & Zao, K. E. (2002). Across academic domains: Extensions of the social-cognitive career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2),* 164-171.

Gall, J. P., Gall, M. D., & Borg, R. (1999). *Applying Educational Research: A Practical Guide.* New York: Longman.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526.

Ginzberg, E. (1984).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169-191). San Francisco: Jossy-Bass.

Gong, Y. (2002). *Career choice of Asian Americans in the investigative and social domains: The influences of personal and parental variables.* Purdue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ckett, N. E., & Betz, N.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 245-250.

Harren, V. H. (1979). A model of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Holland, J.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Jones, L. K. (1989). Measuring a three-dimensional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 A revi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cale- the Career Decision Profi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5), 469-477.

Jones, L. K., & Chenery, M. F. (1980). Multiple subtypes among vocationally undecided college students: A model and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469-477.

Kim, M. S., & Seo, Y. S. (2014)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academic interests and goals in south Korean engineering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1*(6), 526-646.

Lent, R. W. (2005). A social cognitive view of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In S. D. Brown & R. W. Lent(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101-127). NJ:Wiley

Lent, R. W., & Brown, S. D, (2006). On conceptualizing and Assessing Social Cognitive Constructs in Career Research: A Measurement Guid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1), 12-35.

Lent, R. W., & Brown, S. D.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fo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Lent, R. W., & Brown, S. D.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Lent, R. W., & Brown, S. D. (2019).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t 25: Empirical status of the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model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5,* 103316.

Lent, R. W., &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Lent, R. W., &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Lent, R. W., Brown, S. D., Schmidt, J., Brenner, B., Lyons, H., & Treistman, D. (2003). Realation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hoice begavior in engineering majors: Test of alternative social cognitive mode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458-465.

Lent, R. W., Ezeofor, I., Morrison, M. A., Penn, L. T., & Ireland, G. W. (2016). Applying the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3*, 47-57.

Luke, M. D., & Cope, L. D. (1994). Students attitudes toward teacher behavior and program content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The Physical Educator, 51,* 57-66.

McPherson, G. E., & McCormick, J. (1999).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musical practice. *Bulleting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41. 98-102.

McPherson, G. E., & McCormick, J. (2003). The role of self-efficacy in a musical performance examination: An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Psychology of Music,* 31. 37-51.

McWhirter, E. H., Hackett, G., & Bandalos, D. I. (1998). A casual model of the educational plans and career expectations of Mexican American highschool gir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297-307

Murdock, T. B., & Miller, A. (2002). Teachers as Sources of

Middle School Students' Motivational Identity: Variable-Centered and Person-Centered Analytic Approache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3*(4), 383-399.

Osipow, S. H., Carney, C. G., & Barac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33-243.

Sichivitsa, V. O. (2002). In of parental support in music, prior choral experience, self-efficacy, formal and informal intergration upon college-student persistence in music. *Journal of Integrative Psychology,* 2. 330-341.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Tak, J. K.,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328-345.

Zelenak, M. S. (2019). Predicting Music Achievement From the Sources of Self-Efficacy: An Exploratory Study.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22,* 63.

부록 Ⅰ <측정도구>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채지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설문은 **음악전공 대학생의 음악전공학습경험,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결정, 환경적 요인**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신 내용은 본 연구의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향후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 교육 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설문 문항에는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이 없으니, 귀하의 생각을 비교적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설문지는 총 5쪽 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소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설문 응답결과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 분석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설문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제언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과정 채지윤

지도교수 서정은

※ 다음의 문항들은 본격적인 설문 응답에 앞서
귀하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1) 학교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대학교
2) 학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학년
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여자
4) 본인의 전공 번호에 '√'표 한 후, 세부 전공(악기)을 괄호에 작성하여주십시오.
① 관악 ( ) ② 현악( ) ③ 성악
④ 작곡 ( ) ⑤ 피아노
5) 현재 전공 악기를 처음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3세 이하 ② 4세 ~ 7세 ③ 초등학교1 ~ 3학년
④초등학교 4 ~ 6학년 ⑤ 중학교 ⑥ 고등학교

6) 귀하가 졸업한 중학교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일반중 ② 예술중 ③ 음악거점중[17] ④기타:_____

7) 귀하가 졸업한 고등학교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일반고 ② 예술고 ③ 음악거점고[18] ④기타: _____

8) 주위에서 음악을 전공했거나 전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없다 ② 부모님 ③형제·자매 ④ 친척 ⑤기타: ___

17) 음악거점중은 본 연구의 III장, IV장, V장에서 제시된 음악중점중과 동일하며 자료수집 과정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에서는 음악거점중으로 표기되었다.
18) 음악거점고는 본 연구의 III장, IV장, V장에서 제시된 음악중점고와 동일하며 자료수집 과정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에서는 음악거점고로 표기되었다.

1. 진로결정

※다음은 귀하의 '음악진로결정' 에 대한 계획 및 진로 확신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음악전공과 관련하여 졸업 후 나의 진로에 대한 진학 또는 취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2-1) 졸업 후 일하거나 공부하고 싶은 음악 장르(클래식음악, 재즈, 대중음악 등)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위의 문항에서 응답한 일하거나 공부하고 싶은 음악장르는 무엇입니까? ① 클래식음악 ② 재즈 ③ 실용음악 (대중가요, 뮤지컬 등) ④ 영화음악 ⑤ 종교음악 ⑥ 기타 ( )					
3	졸업 후 음악가(연주자)가 되거나 음악전공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훌륭한 음악가(연주자) 혹은 음악교육자(음악교사, 레슨지도교사)가 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연주자(음악가)나 대학원(또는 유학)으로의 진입을 위한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나는 다시 도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음악적 자기효능감

※다음은 귀하가 자신의 **전공 학습**에서 그와 관련된 **음악활동**을 수행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려운 장르나 작품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려운 과제나 테크닉은 피해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쉬운 난이도의 음악 또는 작품을 비교적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전공실기와 관련된 공부가 쉬울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미리 세운 계획에 맞추어 새로운 작품 또는 과제를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전공수업에서 배운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음악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전공수업시간에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작품발표)를 하는 것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실기시험을 치룰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실기시험(곡 마감)이 다가올수록 불안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실기시험 기간만 되면 우울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시험 결과가 나오기까지 매우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3.진로결과기대

※다음은 귀하가 음악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음악진로를 선택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가 기대하는 정도를 표시(✓) 해주세요.
(전문음악인: 성악가, 연주가, 작곡가, 교·강사, 음악교사 등 음악전문 직업)

	음악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문음악인으로서 만족할 만한 일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전문음악인으로서 즐거운(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전문음악인으로 활동하는 동료들과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음악적 능력을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전문음악인으로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전문음악인으로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좋은 일자리의 기회가 생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경제적 수입이 충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음악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가족들은 음악가(연주가)인 나의 직업을 가치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고용수요가 높은 분야에 종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전공학습경험

※ 다음의 문항은 귀하의 전공실기 교육기간 및 음악활동경험을 묻는 것입니다.

1. 귀하의 음악전공(실기)교육을 받은 기간은 몇 년입니까?
(시작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년수)

① 5년미만 ② 5년이상~10년미만 ③ 10년이상~15년미만
④ 15년이상~20년미만 ⑤ 20년 이상

2. 재학 중 콩쿠르 수상경력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이상

3. 재학 중 학교내부 및 외부의 연주(작품발표)경험이 있습니까?
(위클리 제외)

①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이상

4. 재학 중 학교내부 및 외부의 마스터클래스 또는 음악관련 활동 및 연수(음악캠프, 음악페스티벌 등)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이상

※다음의 문항들은 귀하가 **대학의 전공실기 교과학습**의 수행을 통한 **음악적 성취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공레슨"**을 통한 음악능력 성취를 잘 수행했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전공연습"**을 통한 음악능력 성취를 잘 수행했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학내 연주실습"를** 통한 음악능력 성취를 잘 수행했다고 느끼십니까? (예: 향상음악회, 위클리, 연주와 비평, 작곡 포럼, 등 학내의 연주실습교과)	①	②	③	④	⑤
4	**"전공실기관련교과"**를 통한 음악능력 성취를 잘 수행했다고 느낍니까? (예: 합창, 합주, 앙상블, 반주법, 악기구조학(수리법), 특수악기,기초재즈 등)	①	②	③	④	⑤

5. 환경적 맥락

※다음은 귀하의 <u>희망직업을 방해하는 외적 요인</u>에 대한
<u>어려움</u>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벌이나 음악관련 경력부족으로 내가 바라는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오디션(연주)기회부족 또는 교·강사 등의 제한적인 음악전문직 일자리로 내가 바라는 직업을 추구하는 것이 갈등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집안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u>부모님의 진로지지</u>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음악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나눠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음악전공과 관련된 진로문제를 이해해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취업 및 **진학(유학)준비**를 위한 학원비, 레슨비 등을 지원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원하면 **대학원 및 유학**을 보내주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레슨지도교사**

(교수, 강사 등 중 주로 지도를 받는 선생님)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레슨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은 흥미 있게 잘 조직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레슨시간에 배우는 전공 및 음악지식은 나의 수준에 적당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레슨시간에 선생님에게 받는 지적들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선생님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선생님은 나의 전공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지식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은 내가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선생님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II.

<서울시 소재 음악대학 · 예술대학 · 음악학부 전공교과>

서울시 소재 4년제 음악대학은 총 17개교로 음악대학 7개교, 예술대학 1개교, 예술대학 내 음악대학 1개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1개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2개교, 예술체육대학 음악학과 1개교, 예체능대학 음악과 1개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 1개교, 음악학부 1개교, 음악과 1개교로 이루어진다. 그 중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가 재학 중인 4년제 일반대학 중 음악대학인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와 4년제 일반대학의 예술대학 중 음악학부인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중 음악대학인 추계예술대학교의 교과과정을 살펴보았다. 교과과정은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과목에 따른 학점 및 졸업이수 여건을 제외한 전공교과목의 구성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각 교과과정의 전공교과목은 대부분 공통교과(전공기초)와 전공필수 및 심화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학교에 따라 이론 및 실기교과가 다양하거나, 실기교과 위주로 이루어지거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교과가 개설되는 등의 특징이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공과 관련된 이론과 실기를 위주로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전공교과목(2018년 기준)

-각 과 공통교과와 과별 전공교과목으로 나누어지며 실기 및 이론 전반과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음.

각 과 공통교과	
각 전공실기, 국악개론 및 감상, 선택실기, 음악소프트웨어연습, 화성 및 대위법, 시창청음, 건반화성, 서양음악사, 시창청음,음악분석, 연주, 지휘법, 총보독법, 음향학개론,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지도법, 현대음악연주 및 제작실습, 해외현장학습, 공연현장실습, 보컬 스코어 리딩	
학과	전공교과목

<table>
<tr><td rowspan="3">기악과</td><td>피아노</td><td colspan="2">기악반주, 성악반주, 실내악앙상블, 피아노구조 및 관리, 피아노문헌, 피아노교수법</td></tr>
<tr><td>현악 전공</td><td colspan="2">현악합주, 관현악문헌, 실내악앙상블, 현악문헌, 바로크음악 연주법</td></tr>
<tr><td>관악 전공</td><td colspan="2">관악합주, 호흡법,관현악, 실내악앙상블,관악문헌,재즈입문</td></tr>
<tr><td colspan="2">성악과</td><td colspan="2">이태리어·독일어·프랑스어·영어딕션, 합창, 성악인을 위한 이탈리아어, 성악앙상블, 종교가곡 및 바로크성악곡, 오페라사, 오페라코칭, 오페라워크숍, 이태리·독일·한국·현대·영미·프랑스가곡,무대연기,무대동작기법,성악가를 위한 음악 코칭,</td></tr>
<tr><td rowspan="2">작곡과</td><td>작곡 전공</td><td colspan="2">대위법, 화성법, 멀티미디어음악 입문, 작곡 포럼, 악기론, 작곡실기, 전자음악실기,지휘실기,관현악법,전자음악이론 및 실습, 푸가, 현대음악사</td></tr>
<tr><td>이론 전공</td><td colspan="2">대위법,화성법,음악미학,음악학개론,서양음악사문헌,음악이론사,음악심리학,음악사회학,음악연구방법론,인도음악,영화음악의 이론과 실기, 전공이론, 음악이론세미나</td></tr>
<tr><td rowspan="5">국악과</td><td>이론 전공</td><td>국악이론세미나, 국악이론</td><td rowspan="5">국악분석, 전통가창실습, 한국춤, 국악반주법, 국악사, 동양음악개론, 국악공연기획, 인류음악학개론, 국악문헌, 민속악현장연구, 국악비평론, 창작국악론, 국악즉흥 연주실습, 연주사회공헌, 한국악기론</td></tr>
<tr><td>성악 전공</td><td>국악성악실기, 전통가창세미나</td></tr>
<tr><td>지휘 전공</td><td>국악지휘실기, 국악관현악</td></tr>
<tr><td>작곡 전공</td><td>국악작곡실기, 국악작곡세미나 국악관현악</td></tr>
<tr><td>기악 전공</td><td>국악 관현악, 국악기악 실기 정악합주, 국악관악 합주 민속악합주, 국악실내악 창작국악실습, 국악현악합주</td></tr>
</table>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전공교과목(2019년 기준)

-필수공통, 전공선택, 전공필수로 나누어짐.

-전공선택 교과가 다양하며 피아노, 작곡의 경우 진로와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실용교과들이 개설되어 있음.

필수공통		
전공실기,서양음악사, 시창청음, 졸업연주, 학내연주, 화성법(성악:선택)		
학과명	전공 선택	전공필수
피아노	20세기이후 연주세미나, 20세기이후 음악연구, 국악개론(피아노), 부실기, 소나타연구법, 실용음악, 연주와비평, 음악감상, 음악분석, 음악예술경영(피아노), 음악정보학(캡스톤디자인), 음악학원 운영실무, 인텐시브 실전반주, 지휘법(관현악), 피아노교수법(석사), 합창(성악과)	건반화성, 다각적 음악연구, 대위법, 반주, 피아노문헌, 피아노앙상블
관현악	관악앙상블, 관현악법, 국악개론(피아노), 국악기실습, 대위법, 바로크 음악실습, 부실기, 지휘법, 현대음악의 연주와 이해, 현악앙상블, 현악페다고지	관악합주, 오케스트라, 음악분석 및 형식론, 현악합주
성악	가창법, 국악개론(피아노), 국악기실습, 대위법, 부실기, 성악의 인성과 진로개발, 성악반주법, 성악앙상블, 오페라디자인, 음악분석, 한국가곡의 이해, 합창, 합창지휘법,	독어·불어·영어·이어·러시아어·스페인어 딕션, 성악문헌, 오페라워크숍, 음악이론
작곡	국악개론(피아노),국악기실습,리듬과장단,반주법(피아노),부실기(작곡과),시창청음,아동음악공연제작및실습(캡스톤디자인),음악과직업, 음악소프트웨어입문,음악예술경영(피아노),작	관현악법, 대위법, 악기론, 음악형식과 분석, 컴퓨터음악,

	곡가집중연구,작곡기법연주(석사),작곡양식,재즈화성의이해,지휘법,총보독법,컴퓨터음악,한국전통음악연구(석사),합창(성악과),합창지휘법,현대관현악법	현대음악분석,화성 및 건반화성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전공교과목(2020년 기준)

-전공과 교양으로 분류되며 전공은 전공기초, 전공필수로 나누어짐.

-특징: 전공실기과목이 매 학기 3학점(전공실기 1,2,3,4, 24학점으로 기재)으로 타 학교에 비해(보통 1학점) 높은 학점비율을 보임.

전공기초 및 공통과목	
시창청음. 화성학, 대위법, 형식과분석, 음악사, 합창(관현악), 마스터클래스	
학과명	전공교과목(전공핵심, 전공심화)
피아노과	전공실기, 건반화성, 피아노문헌, 실내악
관현악과	전공실기, 실내악, 관현악, 관합주, 현합주
성악과	전공실기, 이태리가곡클래스, 독일가곡클래스, IPA,음악사, 음성학, 영어가곡클래스, 성악문헌, 불란서가곡클래스
작곡과	전공실기, 악기론, 현대음악문헌, 국악개론, 관현악법, 작곡세미나
교회음악과	전공실기, 교회음악개론, 교회음악합창,찬송가학, 예배와음악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전공교과목(2020년~2023년 기준)

-교양, 전공으로 교과영역이 나누어짐.

교양필수: 창의적컴퓨팅, 과학기술의철학적이해, 커리어개발I: 취창업 진로로드맵, 사랑의실천1, 말과글, 전문학술영어, 사랑의 실천2(스마트커뮤니케이션), 셀프리더십, 커리어개발II: 취창업 진로포트폴리오, 기업가정신과 비즈니스리더십

-학년별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영역이 다르게 분배됨.

1학년: 전공기초(필수), 교양필수, 전공핵심

2학년: 전공핵심, 교양필수, 전공심화

3학년: 전공핵심, 교직전공, 전공심화, 교양필수

4학년: 전공심화, 교양필수, 교직전공

공통교과(전공기초 필수과목)	
전공실기, 시창 및 청음, 음악이론, 연주와 비평, 합창(피아노), 딕션(성악), 관현악(관현악)	
학과명	전공교과목(전공핵심, 전공심화)
피아노과	합창, 국악개론 및 감상, 피아노 문헌, 피아노앙상블, 피아노 반주법, 건반화성, 연주를 위한 음악분석, 기악앙상블, 피아노 교수법, 예술경영 및 마케팅, 피아노과 캡스톤 PBL, 중등음악교육실습, 피아노협주곡문헌, 피아노테크닉의 이해와 적용, 피아노구조와 관리,
관현악과	실내악, 기초뮤지션쉽, 관악현악 합주, 피아노실습(건반화성), 오케스트라, 기악앙상블, 바로크음악연주, 관현악 문헌, 현대음악 연주, 지휘법, 마스터클래스

성악과	합창, 딕션, 피아노 실습, 무대예술, 전공 쏠페지오, 음악교과 교육론, 가곡과 앙상블, 연주기획과 평론, 성악문헌, 예술가곡,, 한국가곡 문헌, 성악 마스터클래스,
작곡과	화성학, 대위법, 악기론, 미디어와 음악, 기악 및 국악기실습, 관현악법, 20세기음악, 음악형식과분석, 음악학개론, 연주매체특강, 전자음악, 20세기 대위법, 관현악워크샵, 작곡워크샵, 포스트프로덕션, 국악작곡기법, 극과음악워크샵, 미디어음악실습, 음악치료입문, 건반화성, 4차산업혁명과음악
국악과	국악총론, 타악기실기, 국악실습, 정악합주, 국악 실내악, 국악가창, 기악 및 성악합주, 정가실습, 국악사, 국악기론, 일반 서양음악사, 세계음악문화, 판소리실습, 국악문헌, 단소 실습, 민요 실습,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전공교과목(2019년 기준)

-공통, 전공필수, 선택으로 이루어짐

-필수와 선택은 각 학년마다 이론, 실습, 이론+실습의 형태로 구성.

-전공선택, 전공필수로 나누어 선택에 따른 심화학습을 가능하게 함.

-개설교과목이 매우 많고 음악실기 외 음악직업 관련 교과 매우 많음.

공통선택		공통필수
현장실습		S-TEAM Class, 사제동행세미나
전공명	전공 선택	전공필수
피아노 이론	서양음악사, 대위법, 음악분석, 서양음악사, 화성학, 국악개론, 예술과 사회,현대음악개론, 음악교육론, 문화예술마케팅특강, 문화예술기획I,	음악의 이해, 서양예술문화사,피아노기초이론, 대위법I, 피아노문헌, 화성학I, II, 국악개론, 예술과 사회, 현대음악개론, 음악교육론, 문화예술마케팅특강, 문화예술기획,
피아노 실습	합창 실내악, 반주법, 실용피아노II, 지휘법	전공실기, 연주, 졸업연주, 실용피아노
관현악 실습	관현악합주, 실내악, 시창청음, 클래스피아노,	전공실기, 연주, 현악합주, 관현악합주, 졸업연주,
관현악 이론	화성학, 대위법, 서양음악사, 국악개론, 음악분석,	관현악기이론, 음악의 이해, 서양예술문화사
관현악 실습+이론	지역과문화예술, 지휘법, 바디퍼커션, 스즈끼교육콘텐츠실습	
성 실	시창청음, 클래스피아노, 오페	전공실기, 합창, 연주, 졸업연

악	습	라웍샵 및 무대연기 캡스톤디자인, 오디션실습, 영어딕션, 지휘법,	주,
	이론	음악의 이해, 서양예술문화사, 서양음악사II, III, IV, 국악개론I, II, 지역과문화예술I, 음악교수학습방법, 문화예술기획I, 문화예술콘텐츠분석	성악기초이론, 서양음악사
	실습+이론	화성학I, II, 대위법I, II, 음악분석, 성악앙상블, 리듬과 동작I, II, 예술가곡문헌	이태리어독어불어딕션,
작곡	이론	음악의이해, 서양예술문화사, 서양음악사, 대위법, 음악형식과분석, 음악소프트웨어 입문, 작곡가론, 대중음악의 이해, 미디어소통과예술, 음악치료, 현대음악사조, 음악학개론	작곡기초이론, 기초대위법, 악기론, 현대화성, 서양음악사, 관현악법, 국악개론, 비조성음악분석,
	실습	합창, 특수악기, 시창청음, 건반화성, 편곡법	전공실기, 연주, 졸업연주

추계예술대학교 음악대학 전공교과목(2019년 기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1, 2학년 전공필수과목이 3, 4학년 필수과목과 거의 동일
-선택과목의 폭이 넓지 않음.
-합창, 합주 등 1, 2학년과 3, 4학년 공유하는 실기교과가 많음.
-작곡, 피아노전공 1, 2학년은 전공선택과목이 없음.

.

학과명		전공 필수	전공선택
관현악	1,2학년	전공실기, 연주, 관현악합주, 실내악, 시창청음, 화성법, 관악합주, 현악합주	음악문헌 및 감상
	3,4학년	전공실기, 연주, 관현악합주, 실내악, 음악사, 고나악합주, 현악합주,	음악미학개론, 실내악문헌, 대위법, 지휘법, 관현악의 역사
성악	1,2학년	전공실기, 합창, 연주, 시창청음, 음악기초이론, 이태리어디견, 독어딕션, 화성법, 불어딕션	분장실습, 오페라개론
	3,4학년	전공실기, 합창, 연주, 시창청음, 성악문헌, 서양음악사, 불어딕션, 오페라클래스	영어딕션, 보컬앙상블, 한국가곡, 러시아딕션,합창지위법,
작곡	1,2학년	전공실기, 연주, 시창청음, 대위법, 화성법, 음악형식론, 현대음악개론, 현대작곡기법 및 분석, 악기론, 음악분석, 컴퓨터음악실습	-
	3,4학년	전공실기, 연주, 음악사, 현대작곡기법 및 분석, 관현악법, 컴퓨터음악실습, 작곡세미나	국악개론, 음악미학개론, 합창지휘법, 녹음입문
피아	1,2학	전공실기, 연주, 합창, 여성합창, 시창청음, 화성법, 음악개론, 피아노문헌,	-

노	년	실내악	
	3,4학년	전공실기, 연주, 건반화성, 대위법, 반주법, 음악사, 피아니즘발달사, 음악분석, 피아노교수법, 연주	악식론, 지휘법, 피아노 악기개론 및 조육
국악과	1,2학년	전공실기, 연주, 시창청음, 국악시창, 국악관현악, 국악합주, 관악합주, 현악합주, 성악합창	국악개론, 기악실습, 경서도창, 국악총론
	3,4학년	전공실기, 연주, 국악관현악, 국악합주, 실내악실습, 관악합주, 현악합주, 성악합주,	단가, 동양음악사, 국악사

부록 Ⅲ.
<세부전공과 교육기간 및 교육기관 유형>

1. 세부전공에 따른 교육기간의 비율

교육기간 / 전공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백분율 (명)
관악	18% (8명)	41% (18명)	39% (17명)	2% (1명)	0	100% (44명)
현악	3% (2명)	28% (21명)	39% (29명)	27% (20명)	3% (2명)	100% (74명)
성악	22% (18명)	52% (42명)	21% (17명)	5% (4명)	0	100% (81명)
작곡	27% (15명)	39% (22명)	27% (15명)	5% (3명)	2% (1명)	100% (56명)
피아노	1% (1명)	27% (19명)	40%[19] (28명)	28% (20명)	4% (3명)	100% (71명)
총계(명)	44명	122명	106명	48명	6명	326

2. 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세부전공 비율

전공 / 교육기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피아노	백분율 (명)
일반고	16% (19명)	11% (14명)	26% (32명)	30% (36명)	17% (20명)	100% (121명)
예술고	10% (18명)	30% (53명)	24% (42명)	8% (14명)	28%[20] (48명)	100% (175명)
음악중점고	40% (6명)	7% (1명)	27% (4명)	13% (2명)	13% (2명)	100% (15명)
기타	6.5%[21] (1명)	40% (6명)	20% (3명)	27% (4명)	6.5% (1명)	100% (15명)
총계(명)	44명	74명	80명	56명	71명	326

19) 원래 39.43이지만 백분율 계산을 위해 올림처리 함.
20) 원래 27.4이지만 백분율 계산을 위해 올림처리 함.
21) 원래 6.6이지만 백분율 계산을 위해 6.5로 처리 함.

Abstract

Social Cognitive Factors Influencing Career Choices in College Music Students:

Based o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iyun Chae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Music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ocial cognitiv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areer choice in college music students, guided by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In particular, the study explored the interrelations of learning experiences, self-efficacy, outcome expectancies, previous performance accomplishments, and contextual influences with respect to the career decisions by performing a statistical analysis.

Study population comprised of 326 sophomores, juniors, and seniors studying instruments, voice, and composition in six four-year colleges in Seoul, and a few relationships were

underscored. First,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nci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varying types of learning experiences. Second, performance accomplishment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ncies, while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nci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career choices. Third, outcome expectancies were identified as a mediator between the self-efficacy and career choices. Fourth, instructor's teaching ability, instructor's emotional support, and parents' support in pursuing musical careers were all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and career choices, whereas external barriers were negatively correlated.

In conclusion, the study highlights several constructs that reinforces the career choices in music students. Ultimately, the study serves as a platform to understand the roles of social cognitive factors in music majors, and further as a reference to counsel the career choices specifically with the targets of music students.

keywords : music education, college music students,
career choice,
self-efficacy, outcome expectancies,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tudent Number : 2015-21681

감사의 글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과 가르침을 받았고, 인생의 귀중한 경험을 한 것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세심하게 지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저의 지도교수님이신 서정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스승의 모습과 학자로서의 가르침은 앞으로도 제 인생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음악교육전공의 주임교수님이시자 심사위원장으로서 심사와 수정과정, 졸업에 많은 도움과 격려 주신 이민정 교수님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논문 완성에 꼭 필요한 심사의견을 주신 박지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주신 권혜근 교수님, 조성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문항과 내용을 검토해주신 백고은 선생님, 백지예 선생님, 신은지 선생님, 김태환 선생님, 지혜인 선생님, 이유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긴 설문에 응해주신 국민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 학생들에게도 고맙습니다. 논문을 써가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도움 주신 권슬기 선생님, 김민제 선생님, 신영예 선생님, 여지윤 선생님, 이보림 선생님, 이유로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학업과 가정, 육아를 함께 병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주시고 지지해주신 우리 가족과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중요한 순간마다 달려와서 아이들을 돌봐주신 우리 엄마에게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엄마의 부재를 이해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아빠와 동생 지훈이에게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6년의 긴 학업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지를 해준 남편 이대근님에게 감사합니다. 남편님 덕분에 그토록 하고 싶었던 다른 인생의 경험을 원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선배이자 동반자로서 언제나 나의 곁에서 모든 순간과 과정을 함께 해주고, 우리의 세 아이들에게도 엄마의 학업으로 인한 공백을 채워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멋진

남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시부모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공부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통해 많이 배우고, 어머님의 격려에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하는 나의 세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나주고 잘 자라주어서 고맙습니다. 첫째 아들 병준이가 태어나기 전인 2015년 3월부터 학업을 시작하였는데, 2020년 병준이가 6살이 될 때까지 두 명의 동생들이 더 태어났습니다. 병준이도 어린 아기여서 많은 보살핌이 필요했을 텐데, 첫째로서 동생들을 보살펴주고, 무엇이든 스스로 잘 해내는 멋진 맏아들로 자라주어서 고맙습니다. 둘째 아들 병화도 학업으로 지친 엄마에게 언제나 행복을 주고, 사랑스럽고 배려심이 많은 아이로 잘 커주어서 고맙습니다. 논문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전부터 엄마뱃속에서 함께한 셋째 딸 예진이가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무탈하게 잘 자라 세상에 나와 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또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도 우리 가정의 기쁨으로서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주어서 고맙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의 긴 시간동안 저의 사랑하는 세 자녀를 잘 돌봐주시고 함께 키워주신 도봉동의 아리아 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엄마이자 학생이었던 제가 연고도 없는 곳에서 용기를 내고 학업과 논문을 잘 마무리하기까지 선생님들의 사랑과 도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봉동의 나래유치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저희 아이들을 항상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예원사랑어린이집, 샬롬어린이집, 한성유아학교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논문 막바지에 이사로 아이들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는데, 좋으신 선생님들 덕분에 집중하여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